

GYEONGSANGNAMDO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1권

2019년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자체연구보고서

01. 경남형 돌봄체계 구축 방안 연구
02. 김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성과 분석



Contents

- 01. 경남형 돌봄체계 구축 방안 연구 03
- 02. 김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성과 분석 131



경남형 돌봄체계 구축 방안 연구(I)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진

연구책임자 | 한미영(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공동연구자 | 윤연경(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김성연(창원교육지원청)

연구협력관 | 윤수영(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연구요약>

경남형 돌봄체계 구축 방안 연구(I):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초등돌봄 운영 및 기관별 협력 실태를 살펴보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의 돌봄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경남의 돌봄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경남의 18개 시군별 돌봄기관 인프라 현황 및 돌봄기관별 초등돌봄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돌봄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초등돌봄 운영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돌봄기관별 연계·협력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지역(마을)의 다양한 인적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경남에 적용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전략 및 돌봄 운영모형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경남의 돌봄기관 인프라 현황 분석, 돌봄기관별 초등돌봄 운영 및 협력 실태 분석과 타시도 사례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경남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남의 18개 시군별 초등돌봄교실 학생참여율 및 학년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먼저 경남의 초등돌봄교실 전체 학생참여율은 2018년 기준 10.6%로, 8개의 시 지역보다는 10개의 군 지역에서 초등돌봄교실 학생참여율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군 단위에 속하는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는 대·중소도시에 비해 공적 돌봄기관인 학교 이외에 주변의 돌봄 관련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학생들의 초등돌봄교실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양산, 김해, 거제, 창원 등과 같은 비교적 젊은 도시 지역에서는 초등돌봄교실 학생참여율이 전체 평균인 10.6%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초등돌봄 수요가 많은 데 반해 현재 초등돌봄교실이 이러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 이용자를 학년별로 다시 살펴보면, 1학년이 32.0%, 2학년이 24.7%로 높고, 3학년부터는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비율이 급격히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돌봄교실 수 부족으로 1~2학년 대상 위주의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기관의 초등돌봄 운영 실태 및 어려움, 협력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초등돌봄 운영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대표적인 돌봄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면담조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여건 및 학교환경을 고려하여 초등돌봄교실 지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여건 및 학교가 처한 환경에 따라 돌봄교실의 이용 목적 및 돌봄전담사의 역할이나 고충에서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여건 및 학교환경을 세분화하여, 학교 여건에 맞는 돌봄 제공 및 돌봄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급, 애로사항 지원 등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초등돌봄 운영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지만, 초등돌봄교실은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따라서 돌봄 수요자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여 돌봄교실 운영을 좀 더 유연하고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돌봄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의 돌봄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한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돌봄협의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 내 돌봄 담당자와 지역 돌봄 담당자로 구성된 권역별 돌봄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역 내 돌봄기관 간의 정보교환, 서비스 질 개선 방안 및 중복 서비스 방지, 대상자 정보 공유 및 인계 등 실질적인 업무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 안의 돌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이외에 지자체 중심의 또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시설 및 돌봄공간 부족, 교사의 업무 가중, 예산 부족, 서비스의 질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학교 안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는 방안은 한계에 달했다 할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 신청으로 미처 파악하지 못한 틈새돌봄이나 시스템적으로 대기자가 된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창원, 김해, 양산 등과 같이 초등 저학년 비율이 높고, 또 신도심의 과밀학급으로 돌봄교실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지자체 중심의 돌봄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군단위 농촌 지역의 경우는 방과후학교 활동비 지원으로 돌봄교실 및 방과후 수요까지 수용하고 있으나 군지역 특성상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의 한계로 인해 도시 지역과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돌봄을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경남에 적용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전략 및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 운영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알맞은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분석과 지역사회 협력 돌봄 운영모델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기초로 하여 4가지 유형의 돌봄모형을 설정하였고, 설정한 돌봄 운영모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우수사례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타 지자체의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력 속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을 책임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남지역에 맞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교

육청 협력 돌봄 수요조사 실시, 돌봄 전담조직 설치, 돌봄기관 및 유관기관 간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한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운영, 방과후 돌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지역의 돌봄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관주도의 제한적인 돌봄서비스에서 벗어나 틈새돌봄 및 수요자의 다양한 돌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과 같은 민간기관 중심의 돌봄 운영모델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밖 지역 기반의 방과후 마을학교는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과 마을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함으로써 마을 전체가 돌봄과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아침의 오전돌봄이나 저녁의 저녁돌봄뿐만 아니라 주말·휴일·방학 돌봄과 같이 틈새 및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초등돌봄교실 이외에 사회적 돌봄망이 거의 없는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거점형 돌봄교실 운영 사례나 통합센터를 통한 돌봄 지원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농촌 지역은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이외에 돌봄 관련 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에 학교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돌봄 및 방과후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통학 차량 지원을 통해 인근학교 학생들을 함께 수용하여 안전한 돌봄 및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협력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돌봄수요 가정은 물론 지역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지역 내 통합센터를 설치하고, 통합센터 내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학교 내 유휴교실이나 유휴공간이 있는 지역, 특히 도심 공동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생 수도 감소한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자원 활용모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사례들은 학교라는 안정적인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용 아동이 접근하기 쉽고, 학교와 연계한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섯째, 학교 내 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을자원 활용모델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돌봄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아동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경남의 돌봄기관 인프라 현황 분석, 초등돌봄 운영 및 협력 실태 분석과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경남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과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경남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① 아동 중심의 보편적·통합적 돌봄체계 구축, ②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을 통한 돌봄체계 구축, ③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돌봄모형 개발·운영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초등돌봄은 시간, 장소, 자원 등 여타의 여건에 의해 제한적이고 분절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의 총체적인 삶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중심의 포용적·통합적 돌봄을 실현해야 한다.

둘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수요자 중심의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지역사회의 과제로 인식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 마을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교와 연계된 돌봄이 실천되어야 하며, 학교와 교육청은 기존의 돌봄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협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알맞은 돌봄모형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마다 그 지역의 고유한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이 다르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상이하기 때문에 타 시도 및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돌봄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위해서는 ① 지역 기반의 초등돌봄 인프라 구축, ② 학교와 마을 간의 연계·협력 강화, ③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활성화, ④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확대, ⑤ 돌봄 협력형 모델 개발 및 운영, ⑥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를 통한 돌봄서비스 질 제고의 여섯 가지 방안을 제안

하였다.

첫째, 우리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 돌봄 종합계획 수립, 예산 확보,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돌봄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기반뿐만 아니라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초등돌봄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의 연계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와 마을 간의 연계 및 협력에는 부처별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한 시간대별 연계나 프로그램 및 시설·장소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마을의 시설을 활용하고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학교와 마을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돌봄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마을과 연계한 방과후 돌봄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내 각 돌봄기관 및 민간 유관기관 간의 정보교환, 이용대상자 연계 및 대상자 정보 공유,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 방안 등 실질적인 상호 협력 및 연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역돌봄협의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돌봄협의체를 기반으로 읍·면·동 단위의 실질적인 생활권 중심의 마을돌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별로 개인 일정 등에 따라 자유로운 출입, 탄력적 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처하면서 지역의 학부모와 마을주민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마을돌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학교 간의 협력 또는 지자체와 마을 간의 협력 등 다양한 협력형 돌봄 모델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 마을의 협력과 연계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의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양적 증가와 함께 돌봄서비스의 질 관리 또한 중

요하다. 따라서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 다함께 돌봄센터의 돌봄관리자 등 돌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신장할 필요가 있다.

<목 차>

- 표 목차 -

I.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2. 연구내용 18

3. 연구방법 19

II. 돌봄 정책 분석 및 선행연구 검토 20

1. 중앙정부의 돌봄서비스 지원 정책 및 운영 현황 분석 20

2. 지방(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분석 41

3. 지역사회 협력 돌봄 운영모델 관련 선행연구 검토 49

III. 경남 돌봄 인프라 현황 및 초등돌봄 운영 실태 분석 53

1. 경남 돌봄 인프라 현황 분석 53

2. 경남 초등돌봄 운영 및 협력 실태 분석 65

3. 소결 87

IV.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운영 사례 분석 91

1. 사례조사 분석 92

2.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114

V. 경남의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117

1.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 117

2.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 운영 방안 118

참고문헌 124

[부록 1]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126

<표 II-1>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요 21

<표 II-2> 프로그램 운영 내용 25

<표 II-3> 최근 10여 년간 지역아동센터 수 및 이용 초등학생 수 현황 27

<표 II-4> 서비스 지원 내용 28

<표 II-5> 프로그램 운영 내용 30

<표 II-6> 연도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31

<표 II-7>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및 지원 내용 32

<표 II-8> 연도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현황 36

<표 II-9> 정부 부처별 돌봄서비스 지원 현황 37

<표 II-10>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선정지역 주요 사업내용 42

<표 II-11>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정(2018) 45

<표 II-12>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운영 현황 및 특성 47

<표 III-1> 시군별·연령별 인구 현황 53

<표 III-2> 경남 시군별 초등돌봄 학생 수 현황 54

<표 III-3> 전국 시도별 돌봄기관 인프라 현황 57

<표 III-4> 경남 시군별 돌봄기관 인프라 현황 58

<표 III-5> 경남 2019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59

<표 III-6> 경남 지역아동센터 운영 주체 60

<표 III-7> 경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61

<표 III-8> 돌봄기관별 초등학생 이용 현황 62

<표 III-9> 경남 초등돌봄교실 학년별 이용 현황 63

<표 III-10> 경남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현황 63

<표 III-11> 경남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학년별 이용 현황 63

<표 III-12> 경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학교 학년별 이용 현황 64

<표 III-13> 초등돌봄교실 면담 대상학교 선정 65

<표 III-14> 학교돌봄과 마을돌봄기관 면담대상자 66

<표 III-15> 면담조사 내용 67

- 그림 목차 -

<표 III-16>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69
 <표 III-17> 마을돌봄기관 운영 현황 79
 <표 IV-1> 지역 중심의 돌봄 운영모델(안) 91

[그림 II-1] 초등돌봄교실의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21
 [그림 II-2] 최근 10여 년간 초등돌봄교실 운영 추이 24
 [그림 II-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추진 목적 32
 [그림 II-4] 이아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34
 [그림 II-5]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추진 목적 35
 [그림 II-6] 온종일 돌봄체계의 개념 38
 [그림 II-7] 온종일 돌봄 공급 계획 39
 [그림 II-8] 범정부 돌봄서비스 협력 및 전달체계 40
 [그림 II-9] 우리동네키움센터 추진 방향 44
 [그림 III-1] 시군별 초등돌봄교실 학생참여율 55
 [그림 IV-1] 거점형 돌봄교실 운영 93
 [그림 IV-2] 서울 노원구 돌봄협의회 구성 10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양극화, 과열된 사교육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인간을 존엄하고 인간답게 돌볼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돌봄”은 이제 더 이상 한 가정의 ‘개인적’이며 ‘집안일’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정용주, 2018).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와 이에 따른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해 가정 내 아동 양육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임 아동이나 방과후 나홀로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다(김진석 외, 2018).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돌봄 공백에 대한 가장 주된 영향요인은 부모의 맞벌이로, 맞벌이 요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한 후에도 방과후 돌봄 공백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혜정, 2017).

초등돌봄 공백을 사회가 아닌 가정에서 해소해야 하는 구조는 곧 부모의 경력 단절을 낳는다. 부모가 온 좋게 경력을 유지하더라도 조부모의 희생이나 저임금 돌봄 노동, 불필요한 사교육비 과다 지출, 틈새 돌봄을 위한 비효율적인 보조양육자 고용 등 연쇄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송지현, 2018). 결국 초등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여성에게 출산 이후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두 번째 위기로 이어져, 여성의 경력단절의 주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초등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현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2018년부터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체계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빈틈없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4.4.).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온종일 돌봄 정책 결과, 2018년에는 학교

돌봄 이용자 24만 명, 마을돌봄 이용자 9만 명을 포함하여 온종일 돌봄 33만 명을 달성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9.4.11.).

경남에서도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구현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잡고,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 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경상남도교육청, 2018). 이에 초등돌봄교실을 확충하여 2018년 대비 초등돌봄교실을 79실 증설하였고, 돌봄교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돌봄전담사의 초단시간 근무제를 4.5시간 월급제로 전환함으로써 근무환경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을 포함한 공적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매년 초등돌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 학부모들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돌봄 수요가 초등돌봄교실에 집중됨으로써 돌봄시설 및 공간 부족,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돌봄전담사 간의 근무형태 다양화로 인한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안의 돌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돌봄을 지역사회의 과제로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돌봄’의 책임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우리 지역(마을)의 아이들을 돌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또한 돌봄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돌봄기관과 협력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돌봄과 학교 밖 마을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돌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이희현 외, 2019). 그러나 돌봄과 관련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 및 협력은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일례로, 초등돌봄과 관련하여 ‘돌봄’이 학교의 역할인가? 아니면 지역사회의 역할인가?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초등돌봄 운영 실태 및 기관별 협력 실태를 살펴보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의 돌봄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경남의 돌봄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가. 돌봄 정책 분석 및 돌봄 운영모형 탐색

정부의 돌봄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부처별로 제공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지원 현황 및 온종일 돌봄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다양한 돌봄모델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예: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 경기도의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사업 등)을 분석하였다.

나. 경남 돌봄 인프라 현황 분석

경남의 18개 시군별 돌봄기관 인프라 현황과 대표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돌봄 운영 현황 및 초등학생 이용 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다. 돌봄기관별 초등돌봄 운영 실태 및 협력 실태 분석

학교돌봄과 대표적인 마을돌봄기관의 관계자 대상 면담조사를 통해 돌봄기관별 초등돌봄 운영 실태 및 문제점, 현장의 요구, 그리고 돌봄기관들 간의 협력 실태를 살펴보았다.

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운영 사례 분석

지자체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분석과 지역사회 협력 돌봄 운영모델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기초로, 협력 돌봄모델 유형(예: 교육청-마을협력 모델, 지자체-학교협력 모델, 지자체-마을협력 모델 등)을 설정하고 이러한 돌봄 운영모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마. 경남 돌봄체계 구축 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 운영 방안 제언

경남의 돌봄기관별 초등돌봄 운영 및 협력 실태 분석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례 분석을 기초로, 경남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과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제언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정부의 돌봄 관련 주요 정책을 파악하고 지역 기반의 돌봄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 운영모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 부처별 돌봄서비스 운영 현황 분석, 온종일 돌봄 정책 및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분석, 그리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돌봄 운영모델을 제안한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다.

나. 현장방문 및 면담조사

대표적인 돌봄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초등돌봄 운영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돌봄기관별 연계·협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돌봄기관별 초등돌봄 운영의 어려움 및 한계를 상호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방안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 사례조사

경남의 지역 여건 및 특성에 알맞은 돌봄체계 구축 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마을)의 다양한 인적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의 돌봄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II. 돌봄 정책 분석 및 선행연구 검토

1. 중앙정부의 돌봄서비스 지원 정책 및 운영 현황 분석

가. 정부 부처별 돌봄서비스 지원 현황

초등학생 대상의 돌봄은 크게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돌봄에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이 있고, 마을돌봄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아이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있다. 먼저 부처별로 제공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지원 현황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각 정부부처 간, 돌봄기관 간 분절적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의 여건 및 돌봄 수요에 맞게 지자체 중심의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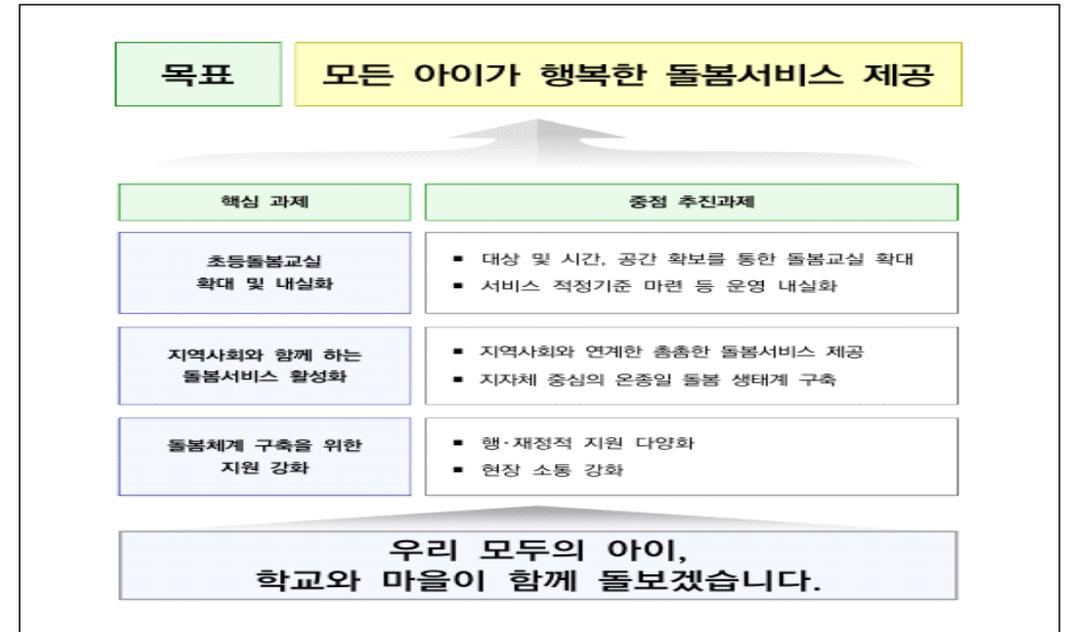
1) 교육부

(가) 초등돌봄교실¹⁾

초등돌봄교실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전용교실 또는 겸용교실을 갖춘 공간에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을 말한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그림 II-1]과 같이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연계를 통한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내실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서비스 활성화,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1) 한국교육개발원(2018).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개정판 2019)」를 참고하여 작성함



[그림 II-1] 초등돌봄교실의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8).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P. 5.

(1) 운영 내용

초등돌봄교실은 오후돌봄, 방과후학교연계형 돌봄, 저녁돌봄, 방학중 돌봄교실로 운영된다. 돌봄교실 유형별 대상학생 및 운영시간, 그리고 운영방법은 다음 <표 II-1>과 같다.

돌봄교실 단일 학급 내 인원은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교실 공간의 크기, 학년당 학생 수, 퇴실 시간, 학생들의 발달 단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학급을 편성한다. 저녁돌봄교실 참여 인원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돌봄기관과의 연계 운영 방안을 강구한다.

<표 II-1>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요

구분	내용
오후 돌봄교실	① 대상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학년: 초등 1, 2학년 위주에서 점차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대상 학년 선정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

구분	내용
	② 운영시간 • 운영시간: 방과 후부터 17시(18시)까지 운영 ③ 운영방법 • 학년의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개인 및 단체활동 프로그램으로 놀이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의·인성 함양에 기여 - 외부강사 및 교원을 활용하여 매일 1개 이상 또는 주 5회 이내 무상으로 단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 학부모의 수익자부담 돌봄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프로그램 개설·운영 가능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① 대상학생 • 1개 이상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② 운영시간 • 운영시간: 방과 후부터 17시까지 운영 ※ 학교 여건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③ 운영방법 • 학생의 방과후학교 활동 및 자율활동을 관리하는 봉사인력 및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 등을 활용하여 틈새 프로그램 운영 가능
저녁 돌봄교실	① 대상학생 • 대상학년: 1~6학년 - 오후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 중 맞벌이,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 ② 운영시간 • 운영시간: 오후돌봄교실 종료시간(17시 또는 18시)부터 22시까지 운영 가능 ※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③ 운영방법 •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중심으로 구성 • 간단한 놀이, 운동, 교육방송 시청 등 개인활동 및 단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방학 중 돌봄교실	① 대상학생 • 대상학년: 1~6학년 - 학기 중에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 또는 방학 중 신규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 등 ② 운영시간

구분	내용
	• 운영시간: 9시부터 17시 ※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은 학부모의 수요와 학교의 여건을 바탕으로 조정 ③ 운영방법 • 학부모의 수요 및 학교 여건을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며, 유관기관 등의 무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유놀이 및 자기주도적 프로그램을 편성·운영 ※ 교육기부 및 지역사회, 대학생 봉사 캠프 등 연계 • 매일 1개 이상 또는 주 5회 이내 무상프로그램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 학교 여건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방학 중 운영 거점 학교 지정 및 지역아동센터, 인근학교 등과 연계하여 운영 방안 모색 • 간식 및 급식: 교육비 지원대상 이외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제공하되 학교별 운영 시간대에 따라 간식 및 급식 제공 방법 및 범위 결정 • 학교 외부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는 교사 동행을 원칙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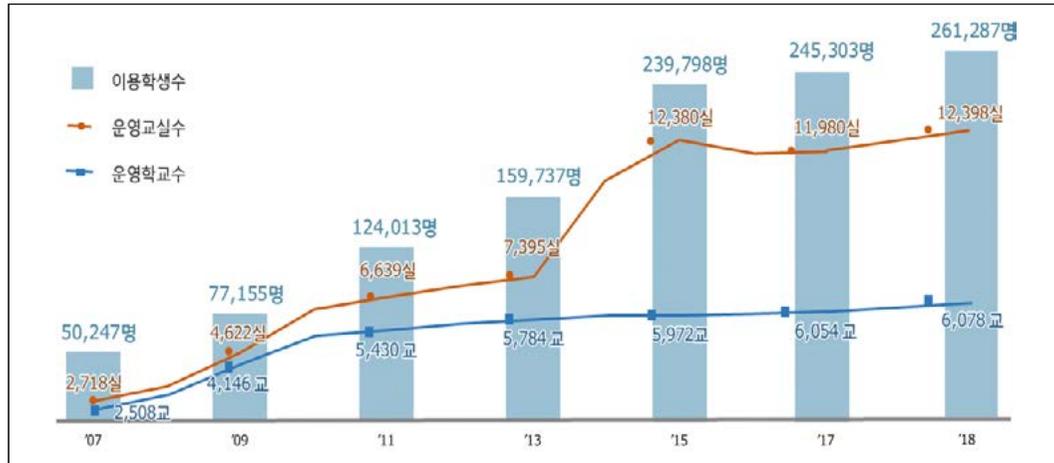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18)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개정판 2019) 재구성

(2) 돌봄 인력

초등돌봄교실의 돌봄 인력은 돌봄업무 담당교사, 돌봄전담사, 자원봉사자 등이 있다. 돌봄전담사는 학생의 보호, 돌봄교실 관리, 돌봄교실 프로그램 관리, 기타 돌봄교실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을 전담한다. 돌봄전담사의 자격요건은 유·초·중 등 교원자격증 소지자이거나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인력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은 시도별로 채용기준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돌봄봉사 인력은 별도의 자격 제한은 없으나, 교육기부자, 자원봉사자, 교원, 학부모 등과 같이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한다.

(3) 운영 현황

2004년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도입 정책이 발표되고, 28개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이 시범운영 된 이래,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수 및 이용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II-2] 최근 10여 년간 초등돌봄교실 운영 추이

출처: 교육부 행복한 교육(2019.1). 포용사회를 위한 교육복지 정책. P. 10.

최근 10여 년간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I-2]와 같이 운영학교 수는 2007년 2,508개교에서 2009년에는 4,146개교로 65.3%(▲1,638개교) 증가하였다. 이후에도 2011년에는 116.5%(▲2,922개교), 2013년에는 130.6%(▲3,276개교)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현재 6,078개교로 142.3%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초등학교 수 대비 초등돌봄교실 운영학교의 비율은 2007년 43.6%에서 2018년 100.2%로 2배가 넘게 증가하였으며, 운영교실 수 역시 2007년 2,718개실에서 2018년 12,398개실로 356.1% 증가하였다.

2009년에는 77,155명으로 53.6%(▲26,908명), 2011년에는 124,013명으로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이용학생 수 또한 2007년에 50,247명이던 학생 수가 146.8%(▲73,766명)로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18년에는 261,287명의 학생이 이용하여 420.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 보건복지부

(가) 지역아동센터²⁾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8

2) 보건복지부(2019).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함

세 미만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을 기본운영 시간으로 하며, 학기 중에는 14시~19시, 방학 중 및 공휴일은 12시~17시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30명을 기준으로 생활복지사 2명을 배치한다. 생활복지사의 자격조건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이거나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9).

(1) 지원 내용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기본과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본 프로그램은 <표 II-2>에 제시한 것과 같이, 크게 보호(급식 및 저녁 돌봄 제공 등), 교육(학습지도 및 특기적성 교육), 문화(체험활동 및 참여활동), 정서지원(상담 및 가족지원), 지역사회 연계(자원봉사활동, 후원자 관리 등)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특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특수성 및 주요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표 II-2> 프로그램 운영 내용

영역	세부영역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예시
보호	생활	일상생활관리	센터생활적응지도, 일상생활지도, 일상예절 교육, 부적응아동지도 등
		위생건강관리	위생지도, 건강지도 등
		급식지도	급식지도, 식사예절교육 등
	안전	생활안전지도	저녁돌봄 등
		안전귀가지도	안전귀가지도, 생활안전지도 등
		5대 안전의무교육	교통안전, 실종유괴예방, 약물오남용예방, 재난대비, 성폭력예방 등
교육	학습	숙제지도	숙제지도, 학교생활관리 등

영역	세부영역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예시
특기적성		교과학습지도	수준별 학습지도, 온라인교육, 학습부진아 특별지도 등
		예체능활동	미술, 음악, 체육지도 등
	적성교육	진로지도, 적성교육(독서, 요리, 과학 등) 등	
		인성·사회성 교육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등
	자치회의 및 동아리활동	자치회의, 동아리활동 등	
문화	체험활동	관람·견학	공연 및 연극 관람, 박물관 등 견학 등
		캠프·여행	체험활동, 캠프 및 여행 등
	참여활동	공연	공연 등
		행사(문화, 체육 등)	전시회, 체육대회 등
정서지원	상담	연고자 상담	부모 및 가족상담, 연고자 상담 등
		아동 상담	아동상담 등
		정서지원 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가족지원	보호자교육	보호자교육 등
행사·모임		부모소모임, 가정방문 등	
지역사회연계	홍보	기관홍보	기관홍보 등
	연계	인적연계	자원봉사활동, 인적결연후원, 후원자관리 등
		기관연계	지역조사와 탐방, 전문기관 연계, 복지단체 연계 등

출처 : 보건복지부(2019).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PP. 54-55.

(2) 운영 현황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3>에 제시한 것과 같이 지역아동센터 수는 2007년 2,618개소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4,189개소에서 총 108,578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초등학생 수는 전체 이용학생 중 78.01%로, 이 중 초등 1~3학년인 저학년 학생의 이용 비율은 38.65%(총 41,970명), 4~6학년인 고학년 학생은 39.36%(총 42,7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 최근 10여 년간 지역아동센터 수 및 이용 초등학생 수 현황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센터 수	2,618	3,013	3,474	3,690	3,985	4,036	4,061	4,059	4,102	4,107	4,189
이용 학생 수	76,229	87,291	97,926	100,982	104,982	108,982	109,936	108,936	109,661	106,668	108,578
저학년 (1~3학년)	32,867	35,972	39,053	37,865	37,407	38,030	39,293	40,425	42,267	41,750	41,970
고학년 (4~6학년)	28,177	33,163	38,032	40,233	42,324	42,396	41,025	40,662	40,113	40,390	42,736
소 계	61,044	69,135	77,085	78,098	79,731	80,426	80,318	81,087	82,380	82,140	84,706

출처 : 보건복지부(2018). 「2017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P.39. 재구성

(나) 다함께 돌봄사업³⁾

다함께 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민간 중심의 지역 맞춤형 돌봄 생태계 구축 사업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보육 및 돌봄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 방과후, 야간 업무, 병원 이용 등 아동을 일시·긴급하게 맡길 수 있는 인프라 등이 부족하고, 지역주민의 수요와 지역자원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보건복지부, 2019).

다함께 돌봄사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역의 돌봄 수요 및 상황에 알맞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과 같은 접근성이 높고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지역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이용해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일시·긴급 돌봄 등을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 중에는 14시~19시, 방학 중에는 9시~18시를 운영하되 지역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2019). 「2019.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를 참고하여 작성함

(1) 지원 내용

다함께 돌봄사업에서는 <표 II-4>에 제시한 것과 같이, 기본적인 돌봄 관련 프로그램(출결 및 급·간식)과 숙제지도 및 신체활동과 같은 공통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특기적성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학습활동(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놀이, 휴식 중심의 프로그램을, 고학

<표 II-4> 서비스 지원 내용

구분	활동분야	활동내용	서비스 제공 주체
기본 프로그램	출결확인	• 출석과 결석 관련 사항 확인	돌봄선생님 중심으로 운영하되, 센터장 및 자원봉사 인력 지원
	아동지원	• 일상생활교육(위생청결교육, 화재 및 안전교육) • 아동 및 학부모 상담	
	급·간식 지원	• 급식 지원(방학) • 간식 지원	
공통 프로그램	숙제지도	• 숙제지도(알림장 확인, 숙제 확인)	돌봄선생님 중심으로 운영하되, 센터장 및 자원봉사 인력의 재능기부 등으로 운영 가능
	독서지도	• 독서지도 (읽기, 말하기, 쓰기 등) • 독서활동 프로그램 운영	
	신체활동	• 신체놀이 (줄넘기, 자전거, 배드민턴, 축구 등) • 또래놀이 (놀이터, 민속놀이, 인형극 등)	
	휴식	• 자유활동 • 휴식 취하기	
학습활동 (특별 활동)	기초 외국어	• 기초외국어지도(읽기, 말하기, 쓰기 등) • 외국어활동 프로그램 운영	분야별 전문 소양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센터장과 돌봄선생님 지원 (단, 특별활동 내용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여야 함)
	예체능	• 예체능활동지도 (음악, 미술, 체육 등) • 예체능활동 프로그램 운영	
	과학	• 과학 지도 (드론, 로봇, 과학 상자 등) • 과학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체험활동	• 문화예술 체험(영화, 난타, 박물관, 시장 등) • 문화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요리, 화훼 등)	

출처 : 보건복지부(2019). 2019.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P. 30.

년의 경우 학습지도와 체험활동 등 교과 및 학습 관련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제공한다.

(2) 운영 현황

다함께 돌봄사업은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여 총 10개 지역(서울 노원구, 부산 사하구, 울산 북구, 강원 속초시, 충북 진천군, 충남 서천군, 충남 보령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경남 창원군)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018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2017년 시범사업의 대상은 0~12세까지 포괄적이었으나 2018년부터는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한 초등돌봄에 집중하여 만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춘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150개소를 증원하여 총 167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는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까지 다함께 돌봄센터 총 1,800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3) 여성가족부

(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 청소년들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생활 관리 등 청소년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으로,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9% 미만),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다.

운영시간은 일 4시수, 주 5~6일로, 주중활동은 1주 20시수 이상(1주 20시수 기준, 주중 자기개발 2시수와 급식 5시수 의무포함, 주중 전문체험활동 및 학습

4) 여성가족부(2018). 「2019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를 참고하여 작성함.

지원활동은 재량 편성)을 주말활동은 월 1회 5시수 이상(급식 포함)이며 1일 2시수 이상 운영한다. 단, 주말 자기개발 활동은 수요조사에 의한 재량운영(월 최대 1회)하며, 운영 시 1일 2시수 이상 운영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는 팀장 1명을 전담 배치하고 1개 반에 1명의 담임을 배정하는데, 팀장 및 담임은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3급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지원 내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다음 <표 II-5>과 같이, 크게 전문체험활동과정(창의융합역량강화, 민주시민의식, 진로체험활동 등), 학습지원활동과정(교과학습, 보충학습 등), 자기개발활동과정, 생활지원과정(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특별지원과정 포함 5개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표 II-5> 프로그램 운영 내용

구분	세부내용	
전문체험활동과정	주중체험활동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형태가 아닌 체험활동 위주로 청소년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예술체험활동, 과학체험활동, 직업개발활동, 봉사활동, 리더십개발활동 등) • 주말체험활동과정 운영 시 외부활동 권장
	주말체험활동과정	
학습지원활동과정	교과학습과정	• 전문 강사진의 교과학습 중심의 학습지원
	보충학습지원과정	•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숙제, 보충학습지도, 독서지도 등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자기개발활동과정	주중자기개발 활동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활동(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 • 각 운영기관에서 자유롭게 편성하여 운영하는 과정
	주말자기개발 활동과정	
생활지원과정	• 급식, 상담, 건강관리, 생활일정 관리(메일링서비스) 등의 생활지원	
특별지원과정	• 청소년캠프(방학), 부모(보호자)교육, 초청인사 특별강의, 발표회 등	

출처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2018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 P. 71.

(2) 운영 현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4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이래 매년 확대되어, <표 II-6>과 같이 2018년 현재 260개소에서 10,588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 연도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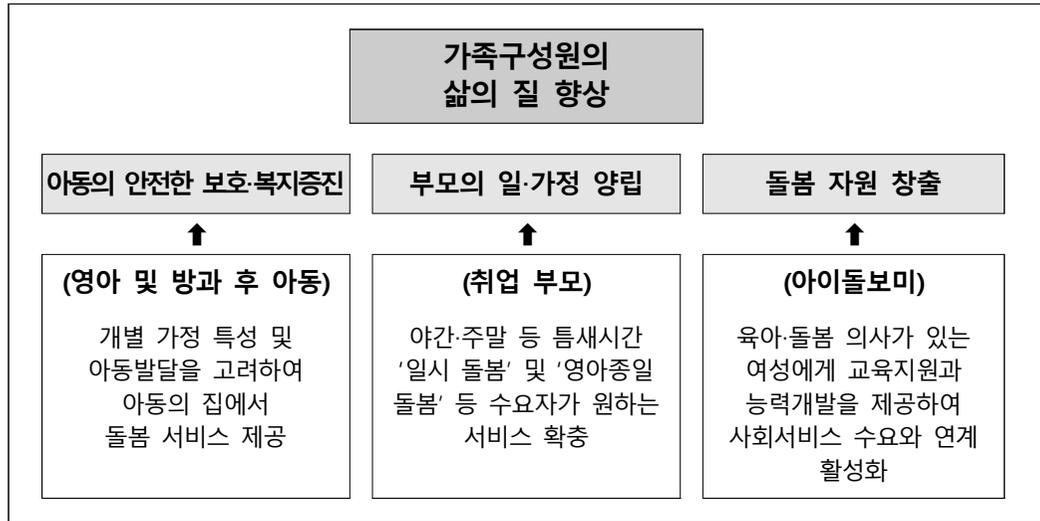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지원(개소)	100	151	185	178	161	200	200	200	200	244	250	250	260
참여인원(명)	4,200	6,300	7,980	7,560	6,672	8,200	8,060	8,200	8,043	9,490	9,745	9,773	10,588
국고예산(억원)	77	120	150	129	121	155	155	161	144	184	185	185	197

출처 : 여성가족부(2018.12.). 2019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P. 4.

(나) 아이돌봄 지원사업⁵⁾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 200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목적은 [그림 II-3]와 같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동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5) 여성가족부(2019). 「2019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함.



[그림 II-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추진 목적

출처: 여성가족부(2019).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15.

(1) 지원 내용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돌봄, 종일제돌봄, 질병 감염아동 특별지원, 기관연계돌봄의 4가지로, 종류별 이용대상 및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 <표 II-7>과 같다.

<표 II-7>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및 지원 내용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내용
시간제 돌봄	일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요금은 시간당 9,65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 시간은 연 720시간 지원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등
	종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요금은 시간당 12,55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은 시간제 서비스(일반형) 지원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내용
		시간 한도 내에서 차감 •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추가 제공
종일제 돌봄	영아 종일제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요금은 시간당 9,65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 지원 1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1,580원 질병아동의 병원이용 동행 및 재가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연계 돌봄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6,500원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출처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

(2) 운영 현황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007년 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사업을 실시한 이래, [그림 II-4]와 같이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222개소에서 총 64,591가구(시간제 이용자 60,053명, 종일제 이용자 4,538명)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222개소 중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77.9%(135개)로 가장 많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2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13개), 여성단체여성인력, 지자체 직영(10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 이아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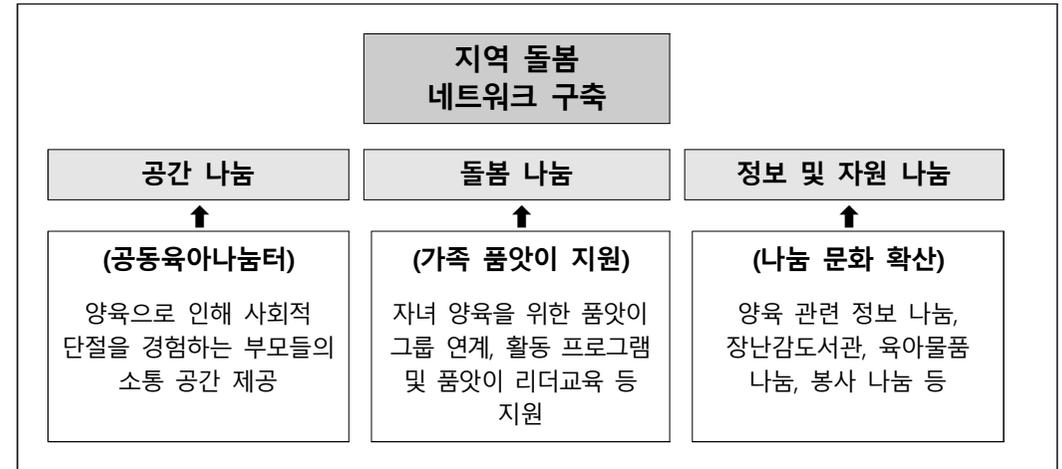
출처: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

(다) 공동육아나눔터⁶⁾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 2010년 시범운영 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그림 II-5]에 제시한 것과 같이 육아와 소통의 공간 나눔, 가족품앗이 연계를 통한 돌봄 나눔, 정보와 자원 나눔 등을 통해 지역중심의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이나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다. 이용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 및 자녀이며, 맞벌이 및 비맞벌이 가정에 상관없이 모두 이용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18시까지 주 40시간 이상 운영하되, 평일 야간이나 주말 연장 운영도 가능하다. 돌봄 인력은 지역의 육아 품앗이 참여 부모, 은퇴교원이나 경력단절 보육교사 등을 활용한다.

6) 여성가족부(2019). 「2019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함.



[그림 II-5]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추진 목적

출처: 여성가족부(2018).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안내. P. 1.

(1) 지원 내용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의 부모와 자녀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하며 가족품앗이⁷⁾ 그룹활동 모임 장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에게 안전한 돌봄 활동이 가능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소통 등 정보 나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놀이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장난감 및 도서를 대여해 준다.

(2) 운영 현황

공동육아나눔터는 2010년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래, <표 II-8>과 같이 2011년 60개소, 2013년 72개소로 계속 확대되어, 2017년 기준으로 전국 160개소에서 664,898명이 이용하였다.

7)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주민이 함께 그룹을 형성하여 자신의 재능과 물품을 교환하며 육아 정보를 나누고 자녀 양육을 함께 하는 그룹활동으로, 가족품앗이 활동에는 등하교 동행 품앗이, 체험활동 품앗이, 놀이 품앗이, 학습 품앗이, 예체능 취미활동 품앗이, 정보공유 품앗이 등이 있다.

<표 II-8> 연도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소(수)	60	64	72	84	109	120	160
이용 인원(명)	93,452	146,828	164,589	216,526	297,565	513,312	664,898
예산 현황(백만원)	350	350	648	648	648	1,296	1,688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8.3.16). 공동육아나눔터, 다양한 돌봄유형을 지원한다.

이상 위에서 살펴본 부처별 돌봄사업 및 돌봄서비스 지원 현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II-9>와 같다.

<표 II-9> 정부 부처별 돌봄서비스 지원 현황

구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청소년비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
사업명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청소년비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시행시기	2004	2004	2017	2005	2010
지원근거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	아동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아이돌봄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지원대상	초1~6학년	만 18세 미만	만 6~12세 미만	초4 ~ 중3학년	18세 미만
지원내용	보호, 교육 및 일부 급·간식 지원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시간제 돌봄, 프로그램 지원 등	전문재활활동 학습지원, 자기개발활동, 특별지원 및 생활지원(급식지원 포함)	이웃 간 공동 돌봄 장소 제공, 품앗이활동 지원 등
운영 시간	학기 (일부 저녁돌봄 운영)	14~19시	14~19시 (여건에 따라 자율)	방과 후~21시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는 1회 3시간 이상 신청)
	방학	12~17시	9~18시 (여건에 따라 자율)	여건에 따라 자율	월~금(10~18시)
담당인력	돌봄전담사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지역 인적 자원	청소년지도사	경력단절 보육교사, 참여 부모
운영규모 ('18.)	12,398실 (261,287명)	4,107개소 총 11만명 (초등 96,000명)	17개소 (320명)	260개소 총 1만명 (초등 5,300명)	160개소 (664,898명)* *2017년 기준임
지원기준 (소득)	맞벌이 가정 중심 (없음)	취약계층 중심 (중위소득 100%이하)	맞벌이 가정 중심 (없음)	취약계층 우선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맞벌이 가정 중심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차등지원)
지원형태	무상 (프로그램,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무상 (소득별 이용료 5만원 이내 부담)	이용료 자부담 (프로그램 참여 등 월 10만원 이내, 간식비는 실비 별도 부담)	무상	이용료 자부담 (소득별 정부지원금 차등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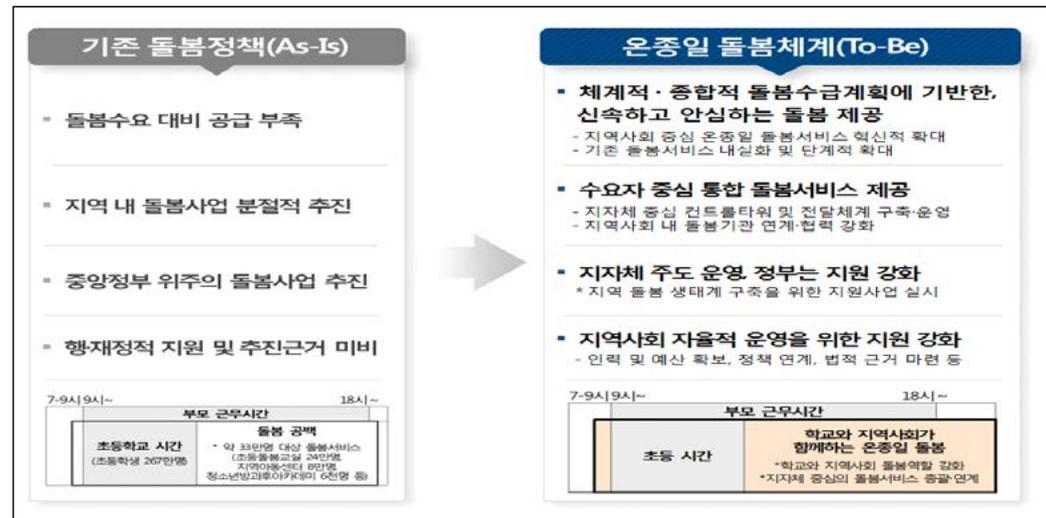
출처 : 저출산고령위원회(2018.4.4).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제구성.

나. 범정부 차원의 온종일 돌봄 정책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월 초등돌봄 공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학교 안팎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하였다.

온종일 돌봄 정책은 정규교육과정 이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서비스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해 운영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또한 온종일 돌봄은 “학교-교육청, 마을-지자체를 중심으로 학교, 지역사회, 지자체 등이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학교 및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을 활용하며, 지자체 중심의 돌봄 컨트롤타워 및 전달체계 구축을 토대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부처별 돌봄서비스 지원 정책은 [그림 II-6]에 제시한 것과 같이, 중앙-지방-돌봄기관 간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도 미흡하여 수요자(아동)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되 수요자 중심의 통합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및 지역사회 차원의 방안으로



[그림 II-6] 온종일 돌봄체계의 개념

출처: 관계부처합동(2017.12.28),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현장 정책토론회 개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초등돌봄 서비스 확대와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확충 및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현하는 것이다.

둘째, 2018년 현재 33만 명인 초등돌봄 이용대상 학생 수를 2022년까지 53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림 II-7]과 같이, 초등돌봄교실 3,500실을 확대하여 7만 명,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협업하여 활용가능교실 1,500실을 활용하여 3만 명,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과 같은 마을돌봄을 통해 10만 명을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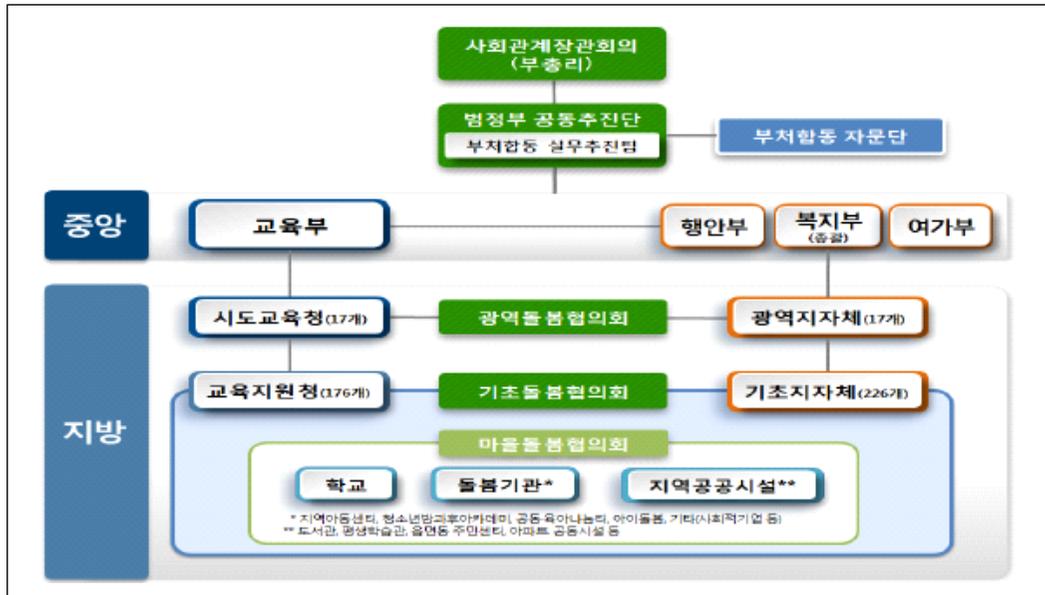
셋째,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 위주의 돌봄 이용대상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의 돌봄서비스 이용 보장을 목표로 하되, 돌봄 인프라 구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맞벌이 가정 등의 학부모 수요 및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러한 추진 방향에 따라 “지역혁신을 통한 온종일 돌봄 선도모델 구축, 초등단계 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주요 추진



[그림 II-7] 온종일 돌봄 공급 계획

출처: 관계부처합동(2018.4.26),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그림 II-8] 범정부 돌봄서비스 협력 및 전달체계

출처: 관계부처합동(2018.4.26).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등돌봄 공급을 정부 부처 간, 돌봄기관 간의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지역의 여건 및 돌봄 수요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개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하고,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확대를 통해 온종일 돌봄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그림 II-8]과 같이, 중앙과 지방의 돌봄 협력과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전담조직을 두고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학교와 마을돌봄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돌봄서비스의 유기적 연계·공유를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돌봄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각 부처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부처 간 돌봄 정책을 조정하며 공동사업을 발굴·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돌봄기관 간 협력을 통한 돌봄서비스 총괄·연계, 돌봄 공급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교육청에서 주관했던 지역돌봄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변경하며, 지자체가 돌봄 수요조사 및 지역돌봄 공급계획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박지영, 2018).

2. 지방(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분석

가. 관계부처합동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은 온종일 돌봄 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지역을 지원하고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돌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이희현 외, 2019). 선도사업 선정 지역에는 3년간('18~'20) 총 80억 원을 차등 지원하며,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및 지원중단을 결정한다. 2018년 6월 공모를 통해 <표 II-10>에 제시한 것과 같이, 서울 구로구, 노원구 포함 4개의 자치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 등 총 9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2019년 6월에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1차 년도('18.7.~'19.6.) 성과 공유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성과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선도사업 지자체들은 현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노력 및 다양한 돌봄모델을 운영하고 있어 타 지자체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1차 년도 성과보고회를 통해 보고된 선도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지자체 돌봄 전담조직(과, 팀) 설치, 돌봄기관 간의 소통·협력을 위한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운영, 온종일 돌봄 조례 제정 등 지역의 돌봄 기반을 구축”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마을)의 다양한 인적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그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알맞은 돌봄모델을 구축·운영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관계부처합동, 2019.6.25.).

<표 II-10>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선정지역 주요 사업내용

시도	시·군·구	주요 내용
서울	구로구	다함께 행복한 '온(溫)' 돌봄공동체 만들기
		(지역여건)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고 서민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방과 후 돌봄 수요 높으나 돌봄 공급기관 부족 (사업내용)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초등학생 걸음으로 15분 안에 24시간 돌봄이 보장되는 돌봄지원체계 구축·운영
	노원구	아동 친화 돌봄 생태계 구축 및 "우리동네 아이 休 센터" 조성
		(지역여건) 중위소득 맞벌이가정 비율이 높아 소득에 무관한 돌봄 확충 필요 (사업내용) 집중돌봄(종일), 시간돌봄(일시), 공간나눔(유희공간 리모델링), 시간나눔(돌봄기관의 빈시간 활용, 저녁) 등 운영
	성동구	온 마을 행복돌봄 한울타리 네트워크
		(지역여건) 초등돌봄 대상 아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31.1%), 청계천, 서울숲 등 자연자원 활용 활발 (사업내용) 돌봄 포털시스템 구축, 주민센터, 종교시설, 아파트, 교실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
	성북구	아이를 돌보는 마을, 아동친화도시 성북
		(지역여건) 초등아동 수 및 취약계층 아동 수가 서울시 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음 (사업내용) 폐업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활용한 돌봄망 확대, 시간별 이원적* 돌봄체계 구축 * 울타리형(방과 후~17시), 등지형(17~21시)
	대전	서구
(지역여건) 신도시 개발지역, 공동화로 인한 쇠퇴지역, 농촌지역 등 다양한 권역 존재, 돌봄의 질적 향상 필요 (사업내용) 아파트 관리사무소(도서관) 유희공간 활용 * 3개소 시범 운영 후 → 23개 행정동 전역으로 확산		

시도	시·군·구	주요 내용
경기	시흥시	함께 키우는 시흥아이
		(지역여건)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여 권역별*(북부, 중부, 남부) 맞춤형 돌봄 공급 필요 *북부: 중노년층↑, 중부: 아동인구↑, 남부: 외국인·청년↑, 출생률↑ (사업내용) 평생교육도시 사업 등으로 양성한 지역 내 인력(마을강사, 학교 강사 등 250여 명) 활용, 자체 개발한 돌봄 모형(8개)을 통한 서비스 확대
	오산시	오산형 돌봄 "함께자람"
		(지역여건) 시민 평균연령 36.4세의 젊은 도시, 도시 곳곳 어디든지 30분 이내 이동 가능한 콤팩트 도시 (사업내용) 온라인 포털 추가하여 지역사회의 풍부한 돌봄 인프라를 활용한 돌봄 통합지원
충남	홍성군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도농복합형 돌봄 생태계 구축
		(지역여건) 도청 이전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지역과 기존의 농촌지역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도농복합도시(농산어촌 맞벌이 가정 증가 추세) (사업내용) 읍 지역은 교실을 활용, 신도심은 아파트 단지 내 돌봄센터 설치·운영(LH 무상임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틈새돌봄 지원
전남	광양시	"해아 돌봄센터" 운영
		(지역여건) 도농복합도시(읍 1, 면 6, 동 5)이며 평균연령 39.5세로 전국 대비 젊음 (사업내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지역 내 유희공간을 리모델링한 돌봄센터 운영 *돌봄 취약지역(읍면)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 → 도시지역으로 단계적 확산

출처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18. 6. 28.).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9개 지자체 선정.

나.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⁸⁾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시가 ‘틈새없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전면 확대’ 공약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사업의 서울형 버전이라 할 수 있다(이해숙·이영주, 2018).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그림 II-9]와 같이,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마을) 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주로 도서관이나 아파트 커뮤니티 유희공간 등 마을 내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만 6~12세 초등학생의 방과후나 방학, 휴일 등의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우리동네키움센터가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과 다른 점은 이용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과 개인의 일정에 따라 자유로운 입·출입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학부모나 마을주민들이 ‘마을돌봄’의 중심 역할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표 II-11>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정(2018년)

자치구	유형	운영업체	정원 (현원)	종사자	주소	개소일
성북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역돌봄 공동체형	성북구마을 사회적경제센터	35 (35)	상근 1 시간제 2	돌곶이로37길 32-4 (단독주택)	‘18.6.1.
도봉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역돌봄 공동체형	도봉구청, (사)일촌공동체 위탁	40 (43)	상근 1 마을활동가 5	시루봉로17길 42 (방아골종합 사회복지관 내)	‘18.6.1.
노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종합사회 복지관형	노원구청, 한국장로교 복지재단 위탁	25 (12)	상근 1 시간제 2	월계로42길 9 (월계문화 복지센터 내)	‘18.9.3.
마포 우리동네 키움센터	공동육아 부모협동 조합형	친한친구공동체 방과후 협동조합	25 (14)	상근 1 시간제 2	월드컵로36길 52 2층 (민간건물 내)	‘18.6.1.

출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2019.2.)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 구축 기본계획(안) 재구성.

서울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를 통해 방과후, 방학 등 학교 외 초등 공적돌봄 인프라를 조성하고, 온마을이 참여하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에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표 II-11>과 같이,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등 4개소를 선정하였다.

서울시는 2019년에는 94개소의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2022년까지 400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며, 지역 여건 및 서비스 특성별 유형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첫 번째 유형은 “일반형 키움센터로, 일반형 키움센터는 초등 방과후 돌봄에 집중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방과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른 아침 또는 늦은 저녁에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융합형 키움센터로, 취약계층 아동 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일원화한 모델”이다. 이 유형은 취약계층 중심 지역아동센터 아동이라는 낙인감 문제를 해소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해 ‘보편적 돌봄체계’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융합형 키움센터는 마을 내 산재해 있는 다양한 돌봄 자원의 조정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와



[그림 II-9] 우리동네키움센터 추진 방향

출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2019.2.). 2019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계획.

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2019.2.) 「2019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계획」 과 내 손안에 서울 (2018.7. 23.) 「방과후 돌봄공백 채워줄 ‘우리동네키움센터’ 4곳 첫선」 을 참고하여 작성함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융합한 것으로, 서울시는 융합모델을 통해 유기적인 공적 돌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세 번째는 “거점형 키움센터로, 기존 센터의 공간적·인적·물적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것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한 모델”이다. 거점형 센터에서는 아동 맞춤형 심리·정서치료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아이가 아플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 또는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 등의 지원도 가능하다.

다. 경기도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사업⁹⁾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안정적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역 내 돌봄 자원을 연계·협력하여 지역 기반의 돌봄공동체 운영모델을 개발·확대하기 위한 목적성 사업이다(안현석, 2019).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은 학교 내 돌봄교실 운영의 어려움과 한계를 상호보완할 수 있는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돌봄모델 개발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공공성을 확대하고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2018년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공모사업에는 <표 II-12>와 같이, 교육지원청-마을협력 모델(2019년에는 마을중심 모델로 명칭 변경) 3기관, 학교시설 활용모델 2교, 학교중심 모델(2019년에는 기관중심 모델로 명칭 변경) 6교가 선정되었다.

먼저, “교육지원청-마을협력 모델(마을중심 모델)은 학교 대부분이 과밀학교로 활용가능교실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지역 내 공공시설에 돌봄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연천 런조이회(마을발전위원회)에서는 군인관사인 연천아이파크 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활용하여 연천초 및 인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돌봄 인력은 지역의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마을주민이나 양성된 마을강사를 활용함으로써, 마을이 중심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육하는 돌봄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둘째, “학교시설 활용모델은 학교 내 유휴교실이 있는 지역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학교 내 활용가능교실에 돌봄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모델”로, 온종

9) 경기도교육청의 ‘2018.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운영 사례 및 공모계획서’ 및 「2019 지역기반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운영 계획」를 참고하여 작성함

<표 II-12>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운영 현황 및 특성

유형	기관명	운영실 수	운영 특성
교육지원청-마을협력 모델 (마을중심 모델)	연천 런조이회	1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연천교육지원청 • 연천 런조이회 운영, 연천군청, 신한대학교, 육군 제5보병사단 연계 • 800세대의 관사 아파트 내 입주인 공동 시설(작은도서관 및 카페테리아) 활용 • 연천군 ‘평생학습마을’ 주민강사(2명) 활용, 지역의 아이를 지역의 ‘어머니’들이 직접 가르치고 보육하는 교육공동체 형성을 통해 자생적인 평생학습마을 조성 • (장점 및 기대효과)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민·관·군·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마을 자체적인 돌봄체계로 마을주민이 직접 보육하는 돌봄교실 구축
	신북마을 온종일 돌봄교실	3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포천교육지원청 • 공동육아 경험이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책상없는학교)이 중심이 되어 복지회관에 있는 마을도서관을 거점으로 운영 • 다양한 인력 풀(재능기부)을 보유, 이를 활용하여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 제공 • 마을주민 및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문화 소외지역의 한계를 극복 • (장점 및 기대효과) 학생과 마을의 공동 성장 도모 및 마을생태계 조성
	사회적기업 (주)다수리	1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시흥교육지원청 • 아파트단지 내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학교 밖 돌봄교실 시스템 구축·운영 • (장점 및 기대효과)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다양한 미래형 돌봄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택지개발 예정 지역(은계·장현지구) 모델 형성 및 확산 예정

유형	기관명	운영실 수	운영 특성
학교시설 활용모델	성남시립도담 청솔지역아동센터	2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경기도교육청, 성남(수원)시청, 청솔(서호)초 •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수원시립서호 지역아동센터	2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상 문제점) 저소득층 자녀 우선 대상으로 인해 일반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 해소에 한계가 있음 • (장점 및 기대효과)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협력모델 구축
학교중심 모델 (기관중심 모델)	양평 조현초	1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부터 시범운영 중 • (장점 및 기대효과) 비영리협동조합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 학교 및 교원의 업무 부담 감소 • (운영상 문제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에 의거 인력관리 운영의 어려움이 있음
	시흥 배곧한울초	2실	
	시흥 배곧초	2실	
	시흥 조남초	2실	
	의정부 고산초	1실	
	양주 상수초	1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초를 중심으로 인근 다문화학생을 중심으로 거점형 운영 • 지역 돌봄자원(대학, 상담센터, 체험시설 등) 적극 활용 • (장점 및 기대효과) 다문화학생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모델로 일반화

출처 : 이병희 외(2018). 초등돌봄교실 정책 분석(P. 17.) 및 경기도교육청 제공 자료(2018.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운영 사례)를 기초로 재구성.

일 돌봄 생태계 모델의 도시형 B모델에 해당하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의 유휴교실을 무상 임대하고, 지자체에서 학교 안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모델이다. 청솔초 내 위치한 성남시립도담 지역아동센터나 서호초 내 위치한 수원시립서호 지역아동센터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셋째, “학교중심 모델(기관중심 모델)은 돌봄기관의 지리적 특성이나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서 돌봄기관의 지리적 분포를 고려하여 권역 설정, 권역별 거점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모델”이다. 양주시의 경우, 공단 과밀지역으로

다문화 가정이 많고 다문화 가정 학생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 맞벌이 가정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방과후 교육을 받지 못해 일찍 귀가를 하여 나홀로 지내는 학생이 많다. 또한 통학 거리가 대부분 멀고 공장 및 군부대 대형차량이 많아 통학버스를 운행하여 방과후부터 하교시간까지 학생들이 학교의 돌봄서비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이에 양주 상수초를 거점으로 마을자원(예: 양주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다문화 한국어교실, 양주시 보건소 등)을 활용하여 다문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지역사회 협력 돌봄 운영모델 관련 선행연구 검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방과후 돌봄 운영모델을 제안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강현주(2017)는 돌봄 및 방과후학교의 이해관계자인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부모,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관계자 대상 면담조사 및 국내외 초·중·고등돌봄 마을협력 사례분석을 기초로 하여, 마을협력 모델 구성요소 및 마을협력 모델을 도출하였다.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성요소로 “인적자원, 지역 인프라, 공동체 문화, 학교 개방성, 지자체 지원”의 다섯 가지 요소를 도출하였고, 지역별로 각 구성요소의 수준에 따라 3가지 마을협력 모델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기관중심 모델(사회적 경제조직 및 비영리기관 중심 모델)”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협력 하에 지역 내의 교육공동체나 교육협동조합 등이 주도하여 돌봄 및 방과후학교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마을중심형 모델로, 지역사회 내의 인적자원의 구축과 활용을 토대로 점차 지자체 및 학교와 연계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내의 마을공동체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역량을 강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및 지역사회 내 기관과의 연계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마지막은 “학교중심 모델로, 학교의 유휴공간을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방과후 및 돌봄교실과 마을의 연계를 실행하는 모델”이다. 학교중심 모델은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면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에 학교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의 마을로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는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임선일 외(2017)는 현행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의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사례분석 및 해외사례 조사를 기초로 하여, 5가지 미래형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모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단위학교 모델로,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델”이다. 두 번째는 “교육지원청-단위학교 협업 모델로, 교육지원청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재원을 주관하고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단위학교에 필요한 강사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교육지원청이 강사비를 비롯한 제반 경비의 지출과 정리를 담당하고, 단위학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프로그램의 효과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세 번째는 “지자체-교육청 협업 모델로, 학교가 프로그램을 실시할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학교에 유휴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지자체의 공공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등과 같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모델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상호보완하는 방식으로, 돌봄교실은 보육사업이고 지자체의 역할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돌봄교실에 적합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교육지원청-민간위탁 모델(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로,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위탁기관이 모든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은 “교육(지원)청-지자체-민간 협업 모델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각각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여 민간(지역사회)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재원과 민간기관의 인력이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반 업무를 진행한다.

김진석 외(2018)는 기존의 방과후 돌봄모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국내외 다양한 지역사회 중심 방과후 돌봄모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온종일 돌봄모형으로 삼을 수 있는 3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방과후 돌봄기관 기능 특화형으로, 이 모형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정책사업 및 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되, 대상과 이용시간대, 욕구의 특성별로 그 기능을 특화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초등돌봄교실은 기존과 같이 방과후 5시 이전까지의 오후돌봄에 특화하고,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과 같은 마을돌봄기관이 저녁돌봄을 특화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 모형은 해당 지자체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기존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상당 수준 확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유형별 공급 부족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 활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 모형은

“방과후 돌봄기관 기능 통합 및 지역 분화형으로, 이 모형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기존의 돌봄기관 및 시설의 지리적 분포에 따라 구역을 나누고, 구역 내의 방과후 돌봄 욕구를 일정 기관이 전담하는 방식”이다. 이 모형은 해당 지역 내 방과후 돌봄기관의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농산어촌이나 도서산간 지역에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이다. 세 번째 모형은 “방과후 돌봄기관 융합형으로, 이 모형은 방과후 돌봄기관이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여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일부 기능을 보완하거나 융합하는 형식으로 협업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에서 학교 내 방과후 돌봄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모형으로,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학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돌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수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혜숙·이영주(2018)는 방과후 돌봄 협력형 모델 구상 시 “대상, 시간, 공간·시설”의 세 가지 주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방과후 돌봄 모델을 크게 “학교직영형, 지역협력형, 지역사회형”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학교직영형은 “학교가 직접 방과후 돌봄을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의 초등돌봄교실이 이에 해당한다. 지역협력형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돌봄을 운영하는 모델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 등과 같은 마을돌봄기관이 학교의 유휴공간이나 시설을 활용하여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역협력형은 아동이 정규수업을 마치고 곧바로 학교 내의 돌봄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담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아동의 입장에서는 하루종일 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피로감이 가중될 것이라는 단점도 있다. 이에 다양한 교구 마련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의 지루함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형은 “지역사회 기관이 방과후 돌봄을 운영하는 모델로,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같은 마을돌봄기관이 지역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연구자마다 돌봄모형을 유형화한 것은 조금씩 다르고 명명하는 모델 명칭도 다르지만, 그 내용은 서로 유사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각 모델마다 운영의 장·단점이 있어 지역 규모, 돌봄 수요 및 인프라 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돌봄모형을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돌봄 공백없이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돌봄모형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관계부처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 사업이나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형 돌봄교실 사업 등이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 볼 수 있다.

III. 경남 돌봄 인프라 현황 및 초등돌봄 운영 실태 분석

1. 경남 돌봄 인프라 현황 분석

가. 경남 초등돌봄 수요 인구 및 초등돌봄교실 참여율

먼저, 경남 18개 시군의 연령별 인구 현황 및 초등학교 학생 수를 살펴보았다. 18개 시군별, 연령대별 인구를 살펴보면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시군별·연령별 인구 현황

(2018. 기준, 단위: 명)

지역	평균연령 ¹⁾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창원	40.7	91,545	108,378	137,929	146,472	173,933	188,811	122,968	83,565	1,053,601
진주	41.0	29,994	37,502	44,680	43,470	56,216	56,737	40,713	36,675	345,987
통영	42.8	11,854	13,493	12,477	16,983	22,184	23,276	18,233	15,220	133,720
사천	44.2	9,638	10,902	11,498	13,724	18,522	18,675	15,109	15,820	113,888
김해	38.5	52,453	65,146	68,370	72,978	100,004	90,848	48,629	35,244	533,672
밀양	48.0	6,212	8,634	9,900	9,999	13,686	19,824	19,149	19,340	106,744
거제	37.5	30,656	28,905	25,861	43,235	46,882	37,480	22,392	15,105	250,516
양산	39.6	37,299	35,098	41,716	54,221	59,942	56,725	36,432	27,206	348,639
의령	53.1	1,278	1,751	2,214	2,083	3,147	4,889	4,900	7,405	27,667
함안	45.0	5,053	6,262	6,276	6,919	10,080	11,721	10,045	10,669	67,025
창녕	49.2	3,715	4,585	5,661	5,858	7,659	11,680	10,968	13,270	63,396
고성	48.8	3,149	4,214	4,353	4,835	7,093	9,525	8,916	11,158	54,243
남해	53.2	1,755	3,081	3,458	2,830	5,055	7,745	7,856	12,210	43,990
하동	52.0	2,231	3,455	4,184	3,420	5,917	8,872	8,206	11,248	47,533
산청	52.7	1,656	2,372	2,859	2,614	4,048	6,727	6,458	9,218	35,952
함양	51.4	2,091	3,299	3,322	2,983	4,956	7,051	6,658	9,684	40,044
거창	47.4	4,261	6,015	6,036	5,641	8,350	10,823	9,086	12,243	62,455
합천	54.5	1,826	2,896	3,375	3,078	4,896	8,309	8,307	13,229	45,916
전체	41.8	296,666	345,988	394,169	441,343	552,570	579,718	405,025	358,509	3,373,988

출처 : 경남도청 경남통계 통계DB

1) 평균연령(2017.12.31.기준): 경남통계연보

시군별 평균연령은 거제가 37.5세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김해 38.5세, 양산 39.6세, 창원 40.7세, 진주 41.0세 순으로 나타나, 다른 시도에 비해 젊은 도시임을 알 수 있다.

초등 저학년이 속해 있는 0~9세 비율이 높은 지역은 창원(2.71%), 김해(1.55%), 양산(1.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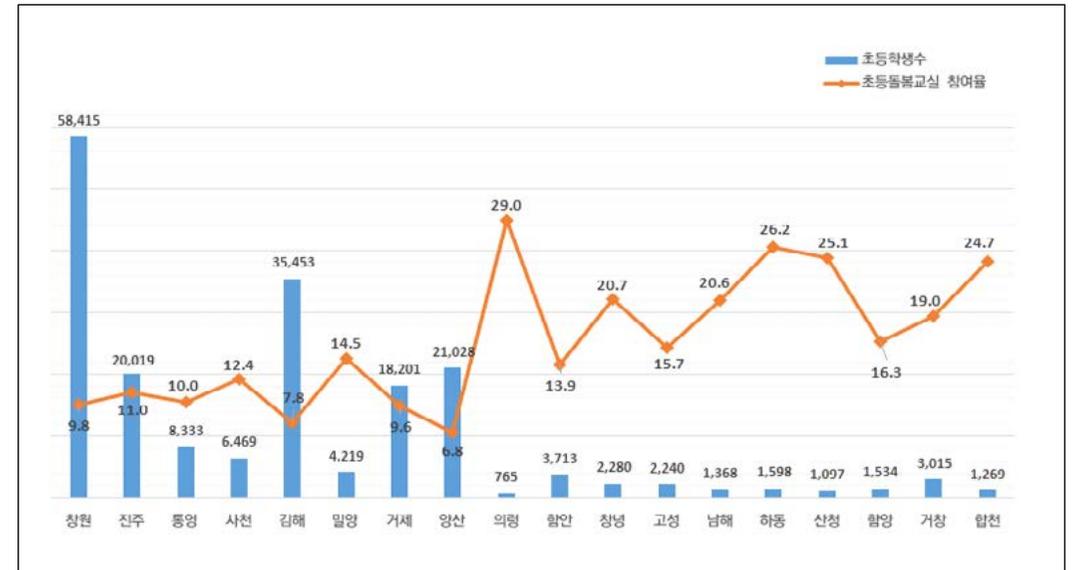
경남 전체 초등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2>과 같이 전체 학생 수는 2018년 기준 191,016명이다. 이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거제시가 거제시 인구 대비 초등돌봄 학생 수가 7.27%(18,201/250,516)로 초등돌봄 수요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김해시 6.64%, 통영시 6.23%, 양산시 6.03%, 진주시 5.79% 순

<표 III-2> 경남 시군별 초등돌봄 학생 수 현황

(2018. 기준, 단위: 명)

지역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창원시	10,097	9,728	9,357	9,678	10,299	9,256	58,415
진주시	3,368	3,368	3,115	3,385	3,571	3,212	20,019
통영시	1,455	1,502	1,363	1,381	1,436	1,196	8,333
사천시	1,061	1,140	1,088	1,102	1,087	991	6,469
김해시	5,838	5,868	5,652	5,943	6,370	5,782	35,453
밀양시	648	689	639	760	805	678	4,219
거제시	3,396	3,273	2,962	2,952	3,025	2,593	18,201
양산시	3,935	3,704	3,318	3,466	3,501	3,104	21,028
의령군	120	123	137	129	143	113	765
함안군	598	605	631	659	648	572	3,713
창녕군	391	390	368	367	399	365	2,280
고성군	368	399	356	396	378	343	2,240
남해군	197	221	221	246	255	228	1,368
하동군	226	268	224	294	300	286	1,598
산청군	149	202	160	173	220	193	1,097
함양군	191	248	241	277	289	288	1,534
거창군	519	458	521	513	534	470	3,015
합천군	212	166	207	222	264	198	1,269
전체	32,769	32,352	30,560	31,943	33,524	29,868	191,016

출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통계



[그림 III-1] 시군별 초등돌봄교실 학생참여율

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남 18개 시군별 초등돌봄교실 학생참여율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남의 전체 초등학생 수는 191,016명이고, 초등돌봄교실 전체 학생참여율은 2018년 기준 10.6%이다. 이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그림 III-1]과 같이, 의령군이 초등학생 수 대비 돌봄교실 학생참여율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하동군 26.2%, 산청군 25.1%, 합천군 24.7% 순으로 높았다.

[그림 III-1]에서 볼 수 있듯이, 8개의 시 지역보다는 10개의 군 지역에서 초등돌봄교실 학생참여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군 단위에 속하는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는 대·중소도시에 비해 공적 돌봄기관인 학교 이외에 주변의 돌봄 관련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학생들의 초등돌봄교실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전국 및 경남의 돌봄기관 인프라 현황

먼저, 전국 시도별 돌봄기관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III-3>에 제시한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초등돌봄교실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 > 서울 > 경남 순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경기 > 서울 > 전남 순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경기 > 전남 > 서울 순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경남의 18개 시군별 돌봄기관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4>와 같다. <표 III-4>에 제시한 것과 같이, 전국 현황과 마찬가지로 초등돌봄교실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순으로 많았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2019년 4월 현재 창원시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제외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모든 돌봄기관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시·일시 마을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1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경남에는 창원군에 2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표 III-3> 전국 시도별 돌봄기관 인프라 현황

(단위: 운영학교 또는 개소 수)

지역	초등돌봄교실 ¹⁾	지역아동센터 ²⁾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⁴⁾	다함께돌봄센터 ³⁾	아이돌봄센터 ⁵⁾	공동육아나눔터 ⁶⁾	드림스타트 ⁷⁾
서울	569	454	24	1	25	27	25
부산	300	212	17	1	12	8	16
대구	225	200	15	1	8	14	8
인천	250	178	10	1	9	21	10
광주	152	308	7	-	5	3	5
대전	149	144	8	-	2	2	5
울산	120	56	6	-	5	4	5
세종	47	13	3	1	1	10	1
경기	1,271	789	50	1	31	27	31
강원	363	172	19	1	18	21	18
충북	259	184	13	1	11	8	11
충남	420	238	19	3	15	19	15
전북	419	285	18	1	14	6	14
전남	426	378	27	2	21	9	22
경북	490	271	16	-	23	17	23
경남	512	263	18	2	20	19	18
제주	106	66	9	-	2	2	2
전 체	6,078	4,211	279	17	222	217	229

- 1) 초등돌봄교실(2018.4.기준): 2019학년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교육부 보도자료, 2019.1.8.).
- 2) 지역아동센터(2018.12.기준): 2018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보건복지부).
- 3) 다함께돌봄센터(2018.12.기준): 2019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2019.1.기준): 2019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여성가족부).
- 5) 아이돌봄(2019.1.31.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여성가족부).
- 6) 공동육아나눔터(2019.5.16.기준): 한국건강가정진흥원_공동육아나눔터 기관 현황.
- 7) 드림스타트: 2019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보건복지부).

10) 경남에서는 진주시가 2019년 4월 25일 '진주시가좌 다함께 돌봄센터'를, 창원시가 2019년 6월 12일 '창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개소하였으나, 본 연구의 돌봄기관 인프라 현황은 2018년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음

<표 III-4> 경남 시군별 돌봄기관 인프라 현황

(2019.4.1.기준 /단위: 운영학교 또는 개소 수)

지역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드림스타트
창원시	110(1)	78	4	-	3	4	1
진주시	44	23	1	-	1	-	1
통영시	20(1)	11	1	-	1	-	1
사천시	18	7	1	-	1	-	1
김해시	58	34	1	-	1	1	1
밀양시	21	19	1	-	1	1	1
거제시	38(1)	11	2	-	1	2	1
양산시	37	14	2	-	1	1	1
의령군	13(1)	3	1	-	1	-	1
함안군	16(2)	4	1	-	1	2	1
창녕군	17(1)	8	2	2	1	2	1
고성군	19	6	1	-	1	-	1
남해군	13	7	-	-	1	1	1
하동군	16(3)	6	1	-	1	1	1
산청군	13	5	1	-	1	1	1
함양군	13	4	-	-	1	-	1
거창군	17	15	1	-	1	1	1
합천군	17(1)	10	-	-	1	-	1
전체	500(11)	265	21	2	20	18	18

초등돌봄교실: ()는 분교장 수

<표 III-5> 경남 2019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2019.4.1.기준)

지역	운영학교 수	전체 학생 수	오후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방과후~17:00)	수용 학생 수	대기 학생 수	수용률 (%)
			오후 (방과후 ~17:00/18:00)	오후 연장형 (17:00~19:00)	저녁 (19:00~22:00)				
창원	111	55,323	222	2		39	6,634	103	96.7
진주	44	19,879	89	1		4	2,388	11	99.5
통영	21	8,443	37			3	916	1	99.9
사천	18	6,452	33			3	879	11	98.8
김해	58	35,179	115	1	1	10	2,988	64	97.9
밀양	21	4,284	29			3	690	-	100.0
거제	39	16,221	73	1		7	1,962	46	97.7
양산	37	21,823	64		1	-	1,513	69	95.6
의령	14	784	17			3	269	21	91.2
함안	18	3,697	24			4	638	-	100.0
창녕	18	2,275	25			-	492	-	100.0
고성	19	1,832	23	1		-	354	22	94.2
남해	13	1,336	16			6	405	-	100.0
하동	19	1,480	25	2		-	386	-	100.0
산청	13	1,055	18			4	323	-	100.0
함양	13	1,470	16	1		9	399	-	100.0
거창	17	3,026	30	1		-	602	-	100.0
합천	18	1,244	19			3	352	-	100.0
합계	511	185,803	875	10	2	98	22,190	348	97.9

출처: 경상남도교육청, 2019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자료.

다. 돌봄기관별 돌봄 운영 현황

돌봄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3개의 돌봄기관을 중심으로, 돌봄 운영 현황 및 초등학생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경남의 2019년 4월 현재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5>와 같다. 경남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수는 분교 포함하여 511개교

이다.

이 중, 오후돌봄교실 이용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17시~19시 이내로 운영하는 오후연장형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10개교, 저녁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2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경남 지역아동센터 운영 주체

2018년 말 기준/단위: 개소(%)

구분		전국	경남
개인		2,951(70.1)	186(71.5)
법인 ¹⁾		896(21.3)	58(22.3)
일반단체 ²⁾		288(6.8)	14(5.4)
지자체	직영	25(0.6)	-
	위탁	51(1.2)	2(0.8)
전 체		4,189(100.0)	260(100.0)

* 전국 지역아동센터는 2018년 말 기준 4,211개소이나, 조사 시점(2019.4.1.~5.20.)에 휴지 또는 폐지, 운영준비 시설 22개소를 제외하여 총 4,189개소임

** 경남지역도 2018년 말 기준 263개소이나, 이 중 3개소(폐지 1, 특례 1, 운영준비 1)를 제외하여 총 260개소임

1) 법인에는 재단/사단/사회복지 법인 포함

2) 일반단체에는 시민단체/종교단체 포함

출처: 보건복지부(2019)의 「2018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및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정보공개 요청자료 참고

2018년 말 기준 경남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총 260개소의 운영 주체를 살펴본다. <표 III-6>에 제시한 것과 같이, 전체 260개소 중 개인이 운영하는 센터가 186개소(71.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법인 운영 센터가 58개소(22.3%), 일반단체 14개소(5.4%)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총 2개소(0.8%)로 통영시에 1개소, 산청군에 1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I-7>과 같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 21개소 중,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경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2019년 기준)

연번	지역	기관명	운영형태	위탁기관명
1	창원시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마산YMCA
2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3		봉림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사)봉림
4		진해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반석청소년재단
5	진주시	진주시청소년수련관	직영	-
6	통영시	통영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
7	사천시	사천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8	김해시	김해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김해시복지재단
9	밀양시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10	거제시	거제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11		옥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12	양산시	양산시청소년회관	직영	-
13		양산청소년문화의집	직영	-
14	의령군	의령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사)경남홍이청소년육성회
15	함안군	함안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16	창녕군	창녕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재)푸른쉼터장학재단
17		남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푸른쉼터장학재단
18	고성군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	직영	-
19	하동군	하동진교청소년문화의집	직영	-
20	산청군	산청군청소년수련관	직영	-
21	거창군	거창흥사단	민간위탁	거창흥사단

출처: 경남도청 정보공개 요청자료 참고

라. 돌봄기관별 초등학생 이용 현황

앞에서 살펴본 돌봄기관 운영 현황에 따라, 돌봄기관별 지난 2018년 1년 동안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초등학생 수가 몇 명인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각 돌봄기관별 초등학생 이용 현황은 <표 III-8>과 같다. 경남의 초등학

<표 III-8> 돌봄기관별 초등학생 이용 현황

(단위: 명)

지역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¹⁾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²⁾
창원시	6,000	1,753	20
진주시	2,208	470	24
통영시	812	184	59
사천시	821	193	19
김해시	2,709	939	40
밀양시	618	435	-
거제시	1,759	245	80
양산시	1,406	333	89
의령군	257	55	40
함안군	629	109	238
창녕군	455	157	40
고성군	373	119	19
남해군	412	99	-
하동군	401	118	36
산청군	308	81	38
함양군	252	64	-
거창군	508	356	21
합천군	382	171	-
전 체	20,310	5,880	763

1)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수는 2018년 월평균 이용자 수입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자 수는 초등 4~6학년 학생의 이용자 수입
 출처: 경남도청 및 경남도교육청의 정보공개 요청자료 참고

생수는 191,106명으로, 이 가운데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 학생은 20,3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학생은 5,8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자는 7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 제시된 이용자 수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만이 포함된 수치이다. 다음으로, 돌봄기관별 초등학생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2018년 1년 동안의 초등돌봄교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I-9>와 같다.

<표 III-9> 경남 초등돌봄교실 학년별 이용 현황

(2018년 기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전체 학생 수	32,769	32,352	30,560	31,943	33,524	29,868	191,016
(오 후 돌봄)	10,444	7,926	294	186	79	62	18,991
(방과후연계형 돌봄)	37	81	466	353	229	153	1,319
돌봄 이용학생 수 (학년전체 대비 비율)	10,481 (32.0)	8,007 (24.7)	760 (2.5)	539 (1.8)	308 (0.9)	215 (0.5)	20,310 (10.6)

출처: 경남도교육청 요청자료 참고

초등학생의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은 10.6%로, 이 가운데 1학년이 32.0%, 2학년이 24.7%로 높고, 3학년부터는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비율이 급격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돌봄교실 수 부족으로 1~2학년 대상 위주의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의 2018년 1년 동안의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III-10>과 같이, 초등학생이 82.6%로 지역아동센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표 III-11>과 같이 4학년이 19.6%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다음으로 3학년이 18.5%, 5학년 18.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10> 경남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현황

(2018년 말 기준)

구분	미취학	초등	중등	고등	학교밖	합계
이용자 수	136(2.0)	5,515(82.6)	865(13.0)	159(2.4)	3(.04)	6,678(100.0)

출처: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요청자료 참고

<표 III-11> 경남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학년별 이용 현황

(2018년 말 기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이용학생 수	776 (14.1)	909 (16.5)	1,023 (18.5)	1,080 (19.6)	1,014 (18.4)	713 (12.9)	5,515 (100.0)

출처: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요청자료 참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1년 동안의 초등학교 이용자 수를 살펴 보았다. <표 III-12>와 같이, 5학년이 39.3%, 6학년이 38.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12> 경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학교 학년별 이용 현황 (2018년 기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이용학생 수	-	-	-	172(22.5)	300(39.3)	291(38.1)	763(100.0)

출처: 경남도청 정보공개 요청자료 참고

2. 경남 초등돌봄 운영 및 협력 실태 분석

가. 면담조사 개요

1) 면담조사 목적

대표적인 돌봄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초등돌봄 운영의 전반적 실태 및 문제점, 현장의 요구 등을 파악하고자 현장방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초등돌봄교실과 지역 내 마을돌봄기관 간의 효율적 연계 및 협력 방안과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면담조사 대상자

경남의 18개 시군별 돌봄기관 인프라 현황에 기초하여, 대표적인 학교돌봄기관인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 돌봄센터의 각 기관을 현장방문하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초등돌봄교실 면담 대상학교는 <표 III-13>에 제시한 것과 같이, 권역 및 지역 규모와 지역 여건, 그리고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2019

<표 III-13> 초등돌봄교실 면담 대상학교 선정

지 역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	전 체
대도시	신도심	창원 A초(대)	-	-	2
	구도심				
중소도시	신도심	양산 D초(대)	통영 F초(대)	-	4
	구도심				
		김해	C초(중)*		
농촌		-	의령 G(중)	거창 I초(중) 하동 H(소)**	3
전 체		5	2	2	9

* 저녁돌봄교실 운영

** 오후연장형 돌봄교실 운영

<표 III-14> 학교돌봄과 마을돌봄기관 면담대상자

구분	지역	학교/ 기관	면담대상자	면담 일시	
학교 돌봄	초등 돌봄교실	창원	A초	담당교사(1) 돌봄전담사(2)	18.6.5.
			B초	담당교사(1) 행정실무원(1) 돌봄전담사(1)	18.6.17.
		김해	C초	담당교사(1) 돌봄전담사(1)	18.6.4.
		양산	D초	담당교사(1) 돌봄전담사(2)	18.6.10.
			E초	돌봄전담사(1)	18.6.11.
		통영	F초	담당교사(1) 돌봄전담사(1)	18.6.12.
		의령	G초	담당교사(1) 돌봄전담사(1)	18.6.13.
		하동	H초	담당교사(1) 돌봄전담사(1)	18.6.3.
		거창	I초	담당교사(1) 돌봄전담사(1)	18.6.14.
마을 돌봄	지역아동센터	통영	○○공립지역 아동센터	센터장(1)	18.6.12.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창원	○○청소년 수련관	관장(1)	18.6.17.
	다함께 돌봄센터	창녕	○○돌봄센터	돌봄관리자(1) 군청 담당공무원(1)	18.6.7.

년 경남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2019.4.1.기준)을 참고하여 저녁돌봄교실 운영학교, 오후연장형 돌봄교실 운영학교, 초등돌봄교실 학생 수용율이 80% 미만인 학교 등을 우선적으로 대상학교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조사 대상자는 <표 III-14>와 같이, 초등돌봄교실의 경우는 돌봄 담당교사와 돌봄전담사를, 마을돌봄기관은 각 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3) 면담조사 내용

면담조사 내용은 크게 각 기관의 초등돌봄 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과 각 돌봄기관 간 연계 및 협력 실태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면담조사 내용은 다음 <표 III-15>와 같다.

<표 III-15> 면담조사 내용

영역	면담조사 내용
I. 기관별 초등돌봄 운영 현황 및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대상(우선순위 지원대상) 및 운영시간(학기, 방학 중), 아동정원 등 - 시설 및 환경(각 지역의 환경 및 여건) - 운영 프로그램(서비스) 내용, 타기관과의 차별화된 서비스 - 인력(담당인력) - 운영방식 및 재정 지원 ○ 운영의 어려움(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II. 기관별 연계 및 협력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돌봄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마을돌봄기관 간, 마을돌봄기관 간 협력 정도 - 연계 및 협력 내용 및 방법(예: 공간이나 시설, 이용 학생, 프로그램 등) - 지역 내 돌봄기관 간 네트워크 현황(지역돌봄협의체 운영, 참여주체별 역할 등) - 협력의 한계 및 어려움, 개선사항 ○ 학교돌봄과 마을돌봄기관 간의 효율적 연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돌봄기관 간 네트워크 및 협력 체계 구축 방법 - 돌봄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법 등

나. 면담조사 결과 분석

1) 학교돌봄 운영 실태 및 요구 분석

(가)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현황

본 면담조사 대상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 <표 III-16>과 같다.

<표 III-16>에 제시한 것과 같이, 대도시와 농촌 지역, 도시 내에서도 구도심과 신도시 지역, 그리고 학교 통학버스 유무 등과 같이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및 학교환경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은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 이외에 주변에 다른 돌봄 관련 시설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의 학교나 구도심 지역의 저소득 가정이 많은 학교의 경우에는 대개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돌봄교실 운영 수 및 정원은 대개 2개실 운영에 각 교실당 20명~25명 안팎이었으나, 신도시 개발로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1실당 수용 인원이 25명을 넘게 수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운영시간은 공식적으로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학교가 많았으나 도시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원을 가기 위해,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통학버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많은 학생이 교실을 퇴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도시 지역의 비교적 환경이 좋은 학교에서는 학기 중에 별도로 외부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반면 비교적 학교환경이 열악하거나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학부모들의 돌봄교실 의존도가 높은 학교에서는 외부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지역	학교	학교환경	이용대상	돌봄교실 수	운영시간	돌봄인력	프로그램 운영	비고
창원	A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어 신규아파트와 단독주택에 사는 가정으로 양극화되어 있음 행복학교라는 인스몬에 의해 1학년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1학년만 2학년은 방과후 연계형(특별실)	2개실(전용교실) -1실: 26명 -2실: 26명	(학기) 13:00~17:00 *3,4월 연장형돌봄교실 운영(~18:00) (방학) 9:00~13:00	2명(4.5시간 근무)	외부 특별프로그램(종이 접기) 운영	
	B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도시(주공아파트) 형성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음 과밀학급으로 유류교실이 없음 	1, 2학년	2개실(전용교실) -1실: 34명(1학년) -2실: 32명(1+2학년)	(학기) 13:00~17:00 (방학) 9:00~13:00	2명(6시간/4.5시간 근무)	내부교사(과학, 체육)를 활용하여 특별 프로그램 운영(주 2회, 20,000원)	
김해	C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도심에 위치한 면단위 학교로, 전교생의 50%가 교육취지원대상자일 정도로 환경이 열악함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학교 통학버스가 없어 학생들이 통학 중심의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1, 2학년 3~6학년은 방과후 연계형(도서실)	1개실(전용교실) -1실: 23명(1+2학년)	(학기) 13:00~20:00 *저녁돌봄교실 운영 (방학) 9:00~16:00	1명(6시간 근무)	학부모 자원봉사 활용하여 특별프로그램 운영	급간식비 수익자부담 50%
	D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구역으로는 읍지역에 있어서 동아촌 특혜를 받는 학교지만, 실제로는 신도시 지역에 위치하여 환경이 좋음 과밀학급으로 돌봄교실 공간이 부족함 	1, 2학년	2개실(1실은 전용교실, 실기실은 반 교실) -1실: 23명(1학년), 3층에 위치 -2실: 17명(2학년), 4층에 위치	(학기) 13:00~17:30 (방학) 8:40~15:00(점심 제공)	2명(6시간 근무)	외부 특별프로그램 운영 없음	간식 수익자부담 월 10,000원 방학 중 점심 급식 월 15,000원
양산	E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도심 지역에 위치한 학교로, 다문화가정이 많음 	1~6학년 전교생	2개실(전용교실) -1실: 23명 -2실: 22명	(학기) 13:00~20:20 *저녁돌봄교실 운영 (방학) 8:30~16:30	2명(6시간/4.5시간 근무)	외부 특별프로그램(다도 예절교육) 운영	

지역	학교	학교환경	이용대상	돌봄교실 수	운영시간	돌봄인력	프로그램 운영	비고
통영	F초	■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학교로 계속 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임	1, 2학년 3~6학년은 방과후 연계형(전용교실)	4개실(전용교실) -각 1실당 29명 (1+2학년)	(학기) 13:00~17:00 (방학) 8:30~17:00	4명(4.5시간 근무)	외부 특별프로그램 운영 없음	
의령	G초	■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농촌학교로 다문화가정이 많음	1, 2학년 3~6학년은 방과후 연계형(도서실)	1개실(전용교실): 25명	(학기) 13:00~17:00 (방학) 9:00~13:00 (간식만 제공)	1명(6시간 근무)	외부 특별프로그램 운영 없음	
하동	H초	■ 지리산 관광지 내에 위치한 학교로, 농사나 체험을 하는 가정이 많음 ■ 현지 토박이 가정과 외지에서 귀촌한 가정이 각각 절반임	1~6학년 (유 초연계 운영)	1개실(겸용교실): 15명	(학기) 13:00~17:00 *3, 4월에는 오후연장형 돌봄교실(~19:00) 운영 (방학) 9:00~17:00(점심 제공)	1명(4.5시간 근무)	유치원연계 프로그램(3개) 운영	
거창	I초	■ 주로 딸가능사, 하우스농장 등 농사를 짓는 가정과 온천지구로 숙박업, 음식점 등 자영업하는 가정이 대부분임	1, 2학년 전학생, 3, 4학년 희망학생	2개실(실은 전용교실) 1실은 반 교실 -1실: 21명(1학년만) -2실: 24명(2학년+3, 4학년 희망학생)	(학기) 13:00~16:20 (방학) 9:00~12:00	2명(4.5시간 근무)	방과후 프로그램(피아노, 미술 신체놀이) 운영주 4시간	



초등돌봄교실 모습

(나)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태 및 어려움

(1) 돌봄 담당교사의 업무 기피 현상

돌봄교실 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업무, 돌봄전담사 인건비 처리, 학교와 돌봄전담사 간의 중간 역할로서의 위치, 그리고 학부모들의 민원 처리 등 잡다하고 번거로운 업무로 인해 교사들은 돌봄교실 담당 업무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나타내듯, 본 면담조사 대상학교의 돌봄 담당교사들은 대부분 해당 학교에 전입한 신규 교사나 아니면 반대로 오랫동안 돌봄 업무를 담당해온 교사가 계속해서 맡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돌봄 담당교사의 잦은 변경은 돌봄 업무에 대한 효율성 및 연속성 측면에서 돌봄교실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한 학교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돌봄전담사와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 연계에 있어서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단은 뭐 챙겨야 할 것이 많아서...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도 신청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다 제가 기안해야 하니까. 매년, 매월 말일에 바쁘더라고요. 다 스캔도 해야 하고 그래서...” (G초 돌봄 담당교사)

“요즘 뭐 워낙 기간제나 비정규직에 대한 뉴스가 많으니까. 그분들 입장도 들어 봐야 하고, 또 이렇게 학교나 교육청에서 원하는 또 입장이 있고 하니까... 얼마 전 징검다리 휴일일 때, 교육청에서는 웬만하면 학부모 입장에서 수용하라 하고, 전담사한테는 나오라고 하기가... 그 중간에서 제가 어렵죠...” (G초 돌봄 담당교사)

“5년 다 이 업무만 맡고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희망을 안 하시니까. 일이 많고, 번거롭고, 돌봄 업무와 관련해서 교사가 봐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있고...” (H초 돌봄 담당교사)

“근데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시간대하고 저희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창 바쁠 때 선생님은 그때 수업 마치시니까. 시간대가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의논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간대가 안 맞는 것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해마다 이제 담당 선생님이 바뀌시니까 저희도 힘들고...” (A초 돌봄전담사)

(2) 돌봄 담당교사와 돌봄전담사 간의 역할 분담 문제

본 면담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돌봄 담당교사들은 돌봄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교사가 어디까지 처리하고 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돌봄전담사와의 역할 분담 및 업무 분장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경남에서는 올해부터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이에 맞는 명확한 업무 분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돌봄 경력이 오래된 돌봄전담사들은 학생 출결관리, 생활지도, 안전지도, 귀가지도 등 아이들 돌봄과 행정업무를 포함하여 월간·주간 돌봄 운영계획 작성, 프로그램 관리, 급·간식 준비 등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하고 있는 반면, 일부 학교에서는 담당교사가 더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도 있어 학교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돌봄 담당교사와 돌봄전담사 간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역할 및 업무 분담이 명확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

“공문상으로나 도에서 이분들이 4.5시간 월급제로 바뀌면서 그분들의 권리나 그걸 보장해주기만 할 게 아니고 일에 있어서도 어떤 업무를 명확하게 고정을 해버리면 서로가 편리할 건데 그냥 알아서 적당히 해라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H초 돌봄 담당교사)

“근데 저도 애매한 부분이 이분들이 월급제로 되면서 완전한 우리 학교의 직원이 됐는데, 어 그 일을 어디까지 나눠야 할지는 저도 미지수예요. 어디까지를 저쪽으로 넘겨주고, 제가 관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일까 하는 게 있어요.” (I초 돌봄 담당교사)

“어떤 학교는 돌봄전담사가 모든 것을 다 해서 기안도 올리고 안내장도 보내고 이런 걸 다 해서 아예 업무가 없다 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전담사가 내 업무가 아니다 해서 선생님이 하시는 곳도 있고. 전담사도 이제 무기계약직이 되면서 어디까지 업무를 드리고, 내가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가, 돌봄 업무 맡으면서 맨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죠. 이제 절충안을 찾는 거죠.” (F초 돌봄 담당교사)

(3) 학부모들의 돌봄교실에 대한 인식 부족

면담조사에 의하면, 학부모들은 학교에서의 돌봄서비스를 당연히 받아야 할 해

택으로 인식하면서 꼭 돌봄이 필요하지 않아도 주변의 의견에 휩쓸려 돌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돌봄교실은 학기 초에 들어가지 않으면 중간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일단 돌봄교실에 신청을 해서 받을 들여 놓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정작 돌봄이 꼭 필요한 아동의 돌봄 기회를 빼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담당교사나 돌봄전담사들은 학기 초 돌봄교실 규칙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에도 불구하고 자율귀가 문제나 간식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가 돌봄 업무의 어려운 점 중의 하나라고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돌봄교실이 꼭 필요하지 않은 아동은 우선적으로 가정에서의 돌봄과 교육이 선행될 수 있도록, 자녀에 대한 돌봄은 기본적으로 가정 돌봄을 중심으로 하면서 공적 돌봄이 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이해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

“3월, 4월은 대기자가 20명, 30명 됐거든요. 근데 3월이 지나고 이제 2학년은 없어요. 대기가. 근데 1학년은 대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물론 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어머니들이 겁을 많이 먹어요. 수업을 일찍 마치고 오후시간에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돌봄이라도 넣어야 안정이, 안심이 되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에서 돌봄을 막 신청하세요. 근데 이제 3월 중반 넘어가면 살살 한 명씩 빠집니다. 그 대기인원이. 또 돌봄을 듣던 애들도 한 명씩 빠져요. 빠지는 이유가 시간이 안 맞는 거. 학원도 가야되고 방과후도 가야되고 이제 시간이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지기도 하고. 그것은 역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 돌봄이 필요한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B초 돌봄 담당교사)

“우선 초등돌봄교실의 가장 어려운 걸 말씀드리면, 제가 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뭔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이것은 학부모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혜택 같은 느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정말로 절실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그게 돌봄인데, 이거는 누구나 다 받아야 하는 거로 생각하는....” (C초 돌봄 담당교사)

“일단은 저희가 돌봄이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학생 혼자 자율귀가가 안 되고 대리인이라든지 귀가 동행자가 와서 데리고 가야 하는데, 맞벌이나 한부모 대상으로 하는 것이 돌봄인데 엄마가 일하다가 어떻게 애를 데리러 올 거냐고 규칙에 의해서 부모님들하고 많이 트러블이 있는 거죠.” (F초 돌봄 담당교사)

“프로그램보다는 사실은 엄마들이 좀 간식에 대해서 저학년이다 보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사실 먹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수익자부담하려고 했었어요. 초기에는 수익자부담을 했었는데, 학부모님들 민원이 너무 센 거예요.” (B초 행정실무원)

(다) 초등돌봄교실의 개선점 및 요구사항

(1)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실 운영

돌봄 담당교사들은 돌봄 업무는 교육이라기보다 보육이고 또 학교는 현재 돌봄을 위한 공간이나 시설,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의 본질적인 업무인 교육활동 이외에 학교폭력,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과 관련된 업무로 인해 교사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초등돌봄교실은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정규수업이 끝난 후 이동 없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학부모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현재 증가하는 초등돌봄 수요를 학교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로의 돌봄 업무 이양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틈새돌봄을 해주면 이제 맞벌이 부부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되기는 하겠죠. 왜냐면 이게 오후 일과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사는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거기다가 저희 이번에 민원사항 때문에 한 반을 더 늦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라 했는데 이게 그것도 조심스러운 것이... 돌봄전담사분한테 이제 한 시간 더 근무를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F초 돌봄 담당교사)

“교육청에서 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지원 부분에서. 근데 그걸 지자체에서 한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교육비 안에서 쪼개서 쓰는 거고, 거기서 군 예산이나 시도 예산에서 쓰는 거니까 훨씬 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을 거거든요. 지금 우리 돌봄교실에 가보면 아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자체에서 한다면 좀 더 아이들 환경에 맞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학교 건물일지라도 제 개인

적인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애들을 위해서 더 좋게 만들어서 운영할 거라면 얼마든지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I초 돌봄 담당교사)

“학교에 다양한 활동도 많은데 굳이 돌봄을 꼭 학교에서 운영해야 되는가, 뭐 학교에서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그걸 꺼안고 하는 것 같은데, 밖에서 지역 연계해서 돌봄센터가 있으니까 저는 지역사회가 돌봄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H초 돌봄 담당교사)

(2) 돌봄전담사의 역량 강화 연수

돌봄전담사들은 형식적인 연수보다는 행정업무를 위해 에듀파인이나 나이스 사용법과 같은 실질적인 것에서부터 돌봄교실에서 아동들에게 다양한 활동이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연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학기 중의 돌봄교실은 이용 학생들의 대부분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듣거나 학원에 가기 위해 입·출입이 제각각이고 한데 모이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부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시간은 없다. 따라서 돌봄전담사들이 틈새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개인활동이나 단체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놀이나 활동 중심의 연수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돌봄과 교육에 관한 정기적인 온·오프라인 연수 지원을 통해 초등돌봄교실의 질을 높이고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실 나이스나 품의 올리고 하는 게 익숙지 않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건 힘들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품의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연수도 안 받았거든요. 나이스 연수도 안 받고. 무작정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점이 힘들었어요. 잘 몰라서...” (A초 돌봄전담사)

“연수가 있으면 출장을 내서 가서 또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야 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 얼굴 볼 시간도 없고 그냥 강의 강사 오면 앉아 있다가 밥 주면 밥 한 그릇 먹고 빨리 와야 하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저희로서는 마음만 바쁘지 별 도움 되고 이런 것도 사실 없더라고요.” (I초 돌봄전담사)

“유치원처럼 좀 교사자질 연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뭔가 현장에 왔을 때 애들 가르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거. 사실 우리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 케어하는 그런 위주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색종이 접기를 하더라도 배우고 오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 배우기도 힘들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

서 이제 하는 거죠. 자료 찾아서. 애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연수를...” (A초 돌봄전담사)

“우리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처럼 조금 양질의 프로그램을 해줄 수 있도록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연수라든지 좀 있으면 보고, 듣고 해서 저희도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E초 돌봄전담사)

(3) 학교 상황 및 수요자 특성에 맞는 돌봄교실 운영 방안 모색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저학년, 우선순위 아동 위주로 선정되며 학교의 돌봄교실 공간 및 운영 교실 수에 따라 정원에 제한이 있다. 또한 학기 초에 돌봄교실 이용 학생이 확정되고, 또 대개 정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학기 중간이나 방학에 새로운 학생이 충원되어 들어가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본 면담조사에 따르면, 현재 오후돌봄교실은 저녁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이외에 5시까지 운영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중도시에 있는 비교적 환경이 좋은 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이 학원에 가기 위해, 읍면 지역에 있는 농촌학교의 경우는 통학버스 때문에 대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많은 학생이 중간에 교실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구도심 지역에 있는 비교적 학교환경이 열악한 학교나 통학버스가 없는 학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돌봄교실에 머무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의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들은 상시돌봄보다는 간식 제공이나 학원 가기 전 안전하게 잠깐 쉬거나 놀 수 있는 일시돌봄 또는 틈새돌봄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은 경향이 있다. 반면 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지역이나 농촌의 학부모들은 돌봄교실에서 급식부터 숙제 지도나 기초 교과학습 지원 등 통합적인 돌봄을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돌봄교실 운영 방식으로는 학교 상황이나 학부모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역 여건 및 학교가 처한 상황, 그리고 돌봄 수요자 특성에 맞는 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3시부터 3시 반 사이가 제일 많이 막 빠져서 그때는 돌봄교실은 애들 내보내는 것 때문에 정신이 약간 없어요. 그래서 4시 반에서 5시까지 운영을 하지만 4시 반까지 남아 있는 애들은 사실 몇 명 없어요.” (F초 돌봄 담당교사)

“부모님들이 지금 추세가 1, 2학년 때 몰라도 나중 되면 다 안다는 주의인지, 그래서 그냥 지금은 나중에 때 되면 다 아니까 굳이 공부에 대해서 안 하시겠다는 그런 추세라 뭐 학습지원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애들 잘 놀았으면 좋겠고 그냥 잘 먹었으면 좋겠고 그러시더라고요.” (F초 돌봄전담사)

“오면 국어 받아쓰기라든지... 부모님들이 원하시니까 받아쓰기하고 수학 기본 연산 중심의 교과학습 그리고 뭐 체험활동 같은 거.” (A초 돌봄전담사)

2) 마을돌봄 운영 실태 및 요구 분석

(가) 마을돌봄기관의 돌봄 운영 현황

본 면담조사에 참여한 마을돌봄기관의 돌봄 운영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 <표 III-17>과 같다.

통영에 위치한 OO지역아동센터는 경남에 2개 있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중 하나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주 이용대상은 인근 2개 초등학교의 돌봄 취약계층 아동으로, 현재 29명 중 2명의 중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10시부터 7시까지이며,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의 5개 영역의 프로그램과 아동권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저녁 제공 및 등하교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창녕에 위치한 OO다함께 돌봄센터는 센터가 위치한 사회복지타운에 공동육아 나눔터, 드림스타트 등 다양한 돌봄시설이 함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대상은 1~3학년으로,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이며 저녁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간식비로 월 20,000원을 받고 있으며, 등하교 차량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에서 지원하는 어르신 자원봉사자 중 일부를 등하교 안심도우미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군청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재능기부자를 활용하여 서예, 뜨개질, 토탈공예, 요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창원에 있는 OO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천주교 청소년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이용학생은 중학교 1, 2학년으로 초등학생은 없다. 같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물 내에 H지역아동센터가 있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및 주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두 기관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표 III-17> 마을돌봄기관 운영 현황

지역	기관	주변환경	이용대상	운영시간	돌봄인력	프로그램 운영	비고
통영	OO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 통영시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9인 시설에 현재 29명(초 27명, 중 2명) 취약계층 우선으로 현재 일반가정 이용 학생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 10:00~19:00(저녁제공) (방학) 9:00~18:00(점심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5명 (센터장1명, 생활복지사1명, 조리사1명, 운영지원팀(겸직)2명) *사회복무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 영역(학습지도, 예체능활동, 체험활동, 야외나들이 등), 아동 권리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하교 차량 지원
창녕	OO다함께 돌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시한 '다함께 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된 초·중·고 돌봄 시설로, 2018년 12월 개소함(2호점) 창녕군 사회복지타운에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드림스타트, 창녕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등)이 모여 있어,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등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학년 대상 현재 16명(정원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기) 13:00~19:00(간식만 제공) (방학) 9:00~19:00(별안 제공, 아이들이 반찬 지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2명 (돌봄관리사1명, 교사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5개 프로그램 운영 (서예, 요리, 토탈공예, 영어, 상담프로그램 등) *유료강사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식비 월 20,000원 수의자부담 등하교 차량 지원 없음 대신 시니어클럽에서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중 일부를 등하교 안심도우미로 활용하고 있음 군청의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재능기부자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창원	OO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하며, 같은 건물에 H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시니어클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등이 모두 함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총 40명(중1, 2학년) 취약계층 우선이지만, 점진 일반가정의 학생도 참여하는 추세임(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금) 17:10~20:30(저녁제공) (토) 월 2회 주말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4명 (관장1명, 청소년지도사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 자기개발활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하교 차량 지원



지역아동센터 모습



다함께 돌봄센터 모습

(나) 마을돌봄 운영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

(1) 예산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 돌봄센터 등 마을돌봄기관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본 면담조사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경우는 그나마 시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라 단독건물을 사용하고 조리사도 채용하고 있었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이 열악하고 센터장이 직접 밥을 해서 저녁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였다. 다함께 돌봄센터도 현재 7시까지 운영하지만 등하교 차량 지원이나 저녁식사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비의 여유가 없어 센터 관리자가 군청의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재능기부자를 직접 일일이 섭외하여 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일단 급식을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에서 진짜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급식비가 나오긴 하는데 급식을 해 먹일 수 있는 사람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단은 급식을 준비할 수 있는 종사자가 없다는 거, 그게 제일 큰 거 같아요. 조리사를 저희처럼 따로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자활근로나 이런 걸 연계해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좀 전문성이 떨어지죠. 그런 부분에서 급식이 참 큰 거 같아요. 아이들 밥 한 번 먹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저희가 유료 강사님을 섭외하면 훨씬 더 경로도 쉽고 한데 운영비가 너무 빠듯해서. 현재 유료 강사님은 한 분만 하고 있는데, 취지를 말씀드리고 공감을 해주는 분까지 연결이 되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다함께 돌봄센터 돌봄관리자)

“기본 예산이겠죠. 뭐 어디나 마찬가지로. 예를 들자면 방과후아카데미에서 4대보험은 기관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퇴직 정리까지는 주는데, 4대 보험은 기관에서 대라 이래서 그 4대보험 뿐만 아니고 이 직원들은 딱 이렇게 단일 호봉제로 되어있고, 뭐 수당이라는 게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명절 수당도 없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장)

(2) 마을돌봄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거를 위한 일반아동 이용률 단계적 확대
본 면담조사에 따르면, 학부모나 교사, 돌봄전담사들은 대체적으로 마을돌봄기관,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간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은 돌봄취약아동¹¹⁾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9). 그러나 본 면담조사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에 일반아동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과 같은 마을돌봄기관의 가장 큰 장점은 늦은 시간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녁식사 제공 및 등하원 차량 지원을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돌봄 취약계층이 간다는 부정적 인식만 어느 정도 제거된다면 맞벌이 가정 아동들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말고 맞벌이 가정의 일반아동까지 점차 확대 수용하여 현재의 부정적 인식을 제거해나갈 필요가 있다. 즉 일반아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이용대상을 맞벌이 가정까지 확대하여 사회통합적 돌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아동만 받지 말고 사실 그냥 그런 구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런 낙인감을 주는 요소는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구분 없이 아이들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모르겠어요. 시작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이왕이면 정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먼저 받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인식은 요즘에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저희도 초창기에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방임 방치되는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인식이 초기에는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반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섞이면서 그런 인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거 같아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장)

11) 돌봄취약아동은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아동 또는 돌봄특례에 해당하는 아동임

3)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협력 실태 및 연계의 어려움

(가) 부처별 돌봄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본 면담조사에 따르면, 돌봄교실 대기자가 많은 학교나 농촌 지역에 있는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와 지역사회 마을돌봄기관 간의 연계 및 협력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와 지역사회 마을돌봄기관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각 부처별 돌봄기관 담당자들의 돌봄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본 면담조사에 의하면, 초등돌봄교실의 담당교사나 돌봄전담사들은 학교 밖 돌봄기관에 아이들을 맡기는 것에 대한 염려나 안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지역사회와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와 같은 마을돌봄기관 종사자들 간에도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유사업종으로 같은 고객에게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계·협력보다는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에 대한 신뢰인지, 그 기관에 대한 신뢰도인지 모르겠지만, 학교는 아이들이 일단 생활하는 곳이고 선생님이 거의 이제 돌봐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애들을 돌보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업무처리를 다 교사가 하고 있으니까. 학교는 안전한 느낌이라든지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아이를 돌본다는 느낌을 확 줄 것 같은데 지역 연계는 진짜 애를 돌본다기보다는 그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할애해서 나와 있는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서 약간....” (F초 돌봄 담당교사)

“지역아동센터와 저희가 연계하기엔... 서로 관내에 8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는 협업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하고는. 저희도 특별히 굳이 기관과의 연계는 솔직히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저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뭐 개별체험을 간다 저희 부모님들께 가지겠냐고 말씀드리면 선택 내켜 하지 않으세요. 지역아동센터니까.”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관리자)

“사실 연계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격이 비슷하고 좀 뭐랄까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돌봄교실 이후에 지역아동센터를 갈 수도 있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조

금 고학년이 되면서 방과후아카데미를 선택해서 간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방과후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비슷하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든 것 같아요. 다함께 돌봄센터도 그렇고. 너무 뭐가 많이 생겨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좀 있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실 좀 위기감도 있기는 한 거 같아요. 너무 비슷한 형태의 뭔가 차별화하기 힘든 그런 어떤 사업들이 계속 많이 생기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나) 지역 돌봄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및 부정적 인식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 간의 연계가 잘되지 않는 것은 학교의 돌봄 담당교사나 돌봄전담사가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 등과 같은 마을 돌봄기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면담조사에서도 돌봄 담당교사나 돌봄전담사들은 우리 지역 내 돌봄기관에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서 어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교사나 돌봄전담사, 학부모들은 지역 돌봄기관이 저소득층이 가는 곳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대표적 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다함께 돌봄센터 등과 같은 마을돌봄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돌봄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및 부정적 인식은 학교가 처한 상황이나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돌봄 수용률이 낮은 도시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주변의 지역아동센터를 소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역시 학부모들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보다는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의 돌봄교실 이외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부족한 농촌학교에서는 도시에 위치한 학교보다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교사나 학부모들의 부정적 인식이 약해, 아이들이 초등돌봄교실 시간이 끝나면 주변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돌봄을 이용하는 시간대별 연계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는 좀 솔직히 여기 돌봄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봄

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거기 저소득층 가는 곳 아니야?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맨땅에 헤딩이죠. 처음에 초등학교에서 먼저 돌봄교실 수요조사 명단을 받아서 그 명단을 통해 전화 컨택을 다 했더니, 저희는 그런데 안 가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는 거기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돌려 하시는 분, 지금 몰라서 못 오시는 분, 옆에 애가 가니까 이제 아 그런 곳이 아니구나 라고 느껴서 뒤늦게 전화하시는 분. 그 돌봄센터라는 부정적 인식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은 지금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관리자)

“딱 들으면 첫 생각이 그거잖아요. 어려운 애들이 간다. 부모들은 낙인찍히는 걸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르게 보는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긴 있는데.... 실제로 부정적이진 않잖아요.” (B초 돌봄 담당교사)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것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읍에 있는 애들하곤. 여기는 그런 거의 농촌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 간다고 해서 부모나 아이들이 그 애는 지역아동센터 가니까 못 사는 애들이다 라고 차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더 즐겁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I초 돌봄 담당교사)

(다) 형식적인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학교와 지역 마을돌봄기관 간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지역별 돌봄협의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돌봄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드림스타트 등 지역 돌봄기관들의 실무자들이 서로 연계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 면담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지역별 돌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만 간단한 정보 공유 정도의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거나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협의체라는 게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시청담당 공무원 등 뭐 이렇게 참여하는데 분기마다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

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관계자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긴 한데 구심점이 없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두 번 참석을 해봤는데, 한 번은 방과후아카데미 방문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같이 한 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한 번은 연말에 그냥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두 번 참여했을 때 좀 드는 생각이 아 이런 협의체 모임이 조금 탄탄하게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면 뭔가 서로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글썽요 이게 좀 허탈한 기분도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지역협의회,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오고.... 그런데 깊이 있는 논의까지는 안 되고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깊이 더 협의하지는 않고 정보 공유 정도.” (H초 돌봄 담당교사)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모여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뭐 벤치마킹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쪽 들러 앉아서 자기 학교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전번에 보니까.... 그때 한 번 돌봄 하는 애들 지역하고 연계해서 주말 프로그램할까 그런 말이 작년에 잠깐 들리더니 없었거든요.” (B초 돌봄 담당교사)

3. 소결

본 연구에서 살펴본 돌봄기관별 초등돌봄 운영 실태 및 돌봄기관 간의 협력 실태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여건 및 학교환경을 고려하여 초등돌봄교실 지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본 면담조사에 따르면,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신도심 지역에 위치한 비교적 환경이 좋은 학교의 경우, 돌봄교실 이용 학생 대부분이 3시 30분에서 4시 사이 학원을 가기 위해 하교하기 때문에 정작 돌봄교실에 5시까지 남아 있는 학생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돌봄교실의 이용 목적은 단순히 학원에 가기 전 잠시 머물면서 간식 먹고 휴식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하다. 즉 돌봄교실에 온 학생들은 간식 먹고,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하다가 학원 시간에 맞춰 학교를 떠나기 때문에 돌봄교실에 모든 학생이 모여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에서는 외부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

반면, 중소도시지만 면단위의 학교나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비교적 환경이 열악한 학교의 경우에는 또 통학버스 유무에 따라 돌봄교실 상황이 달라진다. 즉 통학버스가 있는 학교에서는 대략 버스가 출발하는 3시 30분까지 학생이 많은 반면, 통학버스가 없는 학교에서는 5시까지 남아 있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의 경우에는 방과후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고 외부강사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도 지리적 특성상 강사를 초빙하기 어렵다 보니 학생들이 돌봄전담사와 오롯이 함께 있을 시간이 더 많다. 실례로, 농촌 지역의 학교에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는 아이들이 교실에 한꺼번에 모이고 많은 아이에게 간식 주고 챙기다 보면 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음을 토로하였다. 또한 외부강사의 특별프로그램 없이 혼자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다양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처럼 지역 여건 및 학교가 처한 환경에 따라 돌봄교실의 이용 목적 및 돌봄전담사의 역할이나 고충에서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여건 및 학교의 환경을 세분화하여, 지역 및 학교의 여건에 맞는 돌봄 제공 및 돌봄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급, 애로사항 지원 등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초등돌봄 운영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지만, 초등돌봄교실은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예를 들어, 어떤 학부모는 돌봄을 통해 학습지원보다는 놀이나 활동 위주의 돌봄을 선호하고, 또 어떤 학부모는 숙제 지도나 영어와 같은 학습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 대체로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과 같이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돌봄시설에서 보호, 급식, 학습지원, 상담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지만, 중위소득 이상의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은 틈새시간 돌봄으로 간식 지원, 문화, 예술 등 특별활동 수준의 돌봄과 함께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돌봄서비스를 요구한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돌봄 운영 방식으로는 학부모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돌봄 수요자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여 돌봄교실 운영을 좀 더 유연하고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기관 간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들은 지역의 마을돌봄기관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만큼 신뢰하지 않는다. 특히 학부모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여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도 선 듯 아이를 보내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어 초등돌봄교실 이외에 달리 갈 곳이 없는 농촌 지역에서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와의 시간대별 연계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학교의 돌봄교실 이용 후 저녁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 통학버스나 지역아동센터의 차량 지원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하여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밀학급으로 돌봄 수요가 많아 초등돌봄교실에서 모든 학생을 수용하기 어려운 학교의 경우에는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아동을 소개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따라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돌봄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의 돌봄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한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돌봄협의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돌봄협의체는 지역 내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고, 돌봄 관련 문제를 협의·결정·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 단위의 돌봄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본 면담조사에 따르면, 현재 지역별로 돌봄협의체는 교육지원청, 시군구청 및 지역 돌봄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속적으로 운영되거나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기관별 담당자들이 서로의 기관에 대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기관별로 활발한 정보 공유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내 돌봄 담당자와 지역 돌봄 담당자로 구성된 권역별 돌봄협의체를 구축하여 지역 내 돌봄기관 간의 정보교환, 서비스 질 개선 방안 및 중복 서비스 방지, 대상자 정보 공유 및 연계 등 실질적인 업무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 안의 돌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이외에 지자체 중심의 또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면담조사에서도 돌봄 담당교사들은 돌봄과 관련된 업무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였다. 물론 초등돌봄과 관련하여 학교만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 이를 반영하듯, 초등돌봄교실 정책은 정부가 잘하고 있는 상위 5개의 정책에 손꼽힐 만큼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고 있고, 학부모들은 다른 돌봄기관보다 학교의 초등돌봄교실을 선호한다(김창복 외, 2018). 이는 물론 돌봄서비스 자체에 대한 만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학교라는 안전과 신뢰의 공간에서 아동이 집-학교라는 원거리 이동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시설 및 돌봄공간 부족, 교사의 업무 가중, 예산 부족, 서비스의 질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학교 안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는 방안은 한계에 달했다 할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 신청으로 미처 파악하지 못한 틈새돌봄이나 시스템적으로 대기자가 된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창원, 김해, 양산 등과 같이 초등저학년 비율이 높고, 또 신도심의 과밀학급으로 돌봄교실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지자체 중심의 돌봄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군단위 농촌 지역의 경우는 방과후학교 활동비 지원으로 돌봄교실 및 방과후 수요까지 수용하고 있으나 군지역 특성상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의 한계로

인해 도시 지역과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돌봄을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IV.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 운영 사례 분석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알맞은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경남에 적용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전략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분석과 지역사회 협력 돌봄 운영모델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기초로 하여 다음 <표 IV-1>과 같이 4가지 유형의 돌봄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돌봄모형 기준은 돌봄 운영 주체, 즉 교육청이 운영하느냐 아니면 지자체가 운영하느냐와 활용하는 자원의 소재, 즉 학교의 자원을 활용하느냐 아니면 지역(마을)의 자원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구분하였다. 여기서 자원은 공간이나 시설과 같은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돌봄 운영모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협력형 사례들은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그리고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이나 경기도의 미래형 돌봄교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의 우수사례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돌봄 운영모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역 중심의 돌봄 운영모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중심 모델이다. 이 유형은 초등돌봄교실과 같이 교육청이 학교자원을 활용하여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표 IV-1> 지역 중심의 돌봄 운영모델(안)

기준		운영 주체	
		교육청	지자체
자원의 소재	학교	학교중심 모델 (교육청-학교협력 모델)	지자체-학교협력 모델 (학교자원 활용모델)
	지역(마을)	민간기관중심 모델 (교육청-마을협력 모델)	지자체-마을협력 모델 (마을자원 활용모델)

둘째, 민간기관중심 모델(교육청-마을협력 모델)이다. 이 모델은 교육청이 지역 내 민간기관(예: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과 협력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지자체-학교협력 모델(학교자원 활용모델)이다. 이 유형은 지자체가 학교의 활용가능교실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 지자체-마을협력 모델(마을자원 활용모델)이다. 이 유형은 지자체가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1. 사례조사 분석

가. 민간기관중심 모델(교육청-마을협력 모델) 운영 사례

1) 경기 포천 신북마을 책상없는학교 온종일 돌봄교실¹²⁾

경기 포천시 신북면은 초등학교가 많고 신평공단 조성으로 맞벌이 가정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의 유입이 많아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관내 전체 초등학교 31개교,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서 현재 돌봄교실이 운영 중에 있으나 포천시 신북면을 중심으로 중·북부 지역은 학교돌봄 이외의 아동 보육시설이 전무하여 이 지역의 '사회적 돌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책상없는학교 협동조합은 2018년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모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북면 복지회관에 위치한 신북마을 작은도서관을 활용하여 신북마을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포천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신북면 복지회관은 구 신북면사무소가 있던 자리로 면사무소가 신축·이전하면서 1998년 신북복지회관으로 사용되다가, 2017년 책상없는학교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신북마을 작은도서관으로 다시 개관하여 사용하고 있다.

신북마을 온종일 돌봄센터는 포천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쉽고 놀이, 배움과 보육이 마을생태계 안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마을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즉 마을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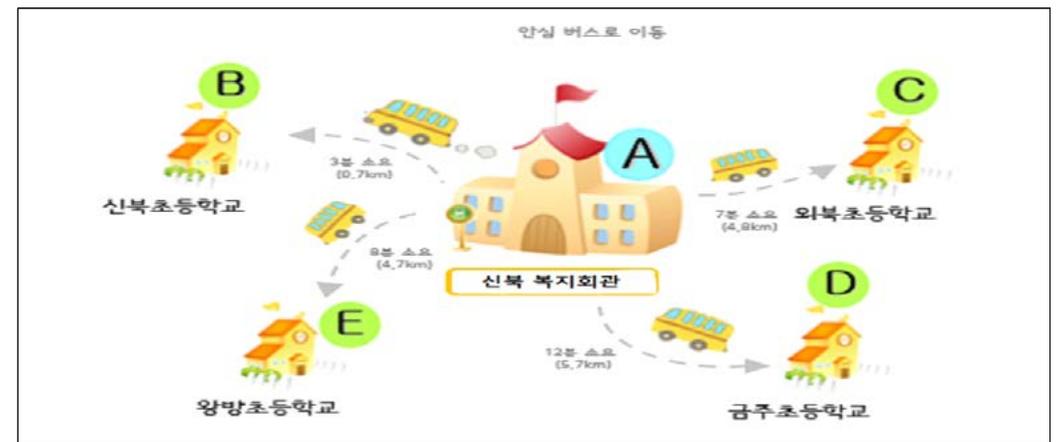
12)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한 「2018.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사업」의 공모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이용으로 아동교육을 중심으로 온 마을을 유기적 생태계로 조성하고, 교육·문화 소외 지역의 한계를 주민 스스로 극복하고 신북마을 온종일 돌봄망 구축으로 아동의 바른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마을자원활동가와 유관기관의 MOU로 아동의 인지, 정서, 행동 발달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마을의 아이들을 마을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마을의 장·노년의 '마을사람책' 자원으로 절기에 맞는 마을체험놀이를 운영하고, 마을자율소방대의 지원으로 안심지구, 안심차량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책상없는학교의 창의인성 무료 강사교육을 통해 독서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후 신북마을 돌봄교실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강사역량을 강화하여 독서프로그램 방과후 강사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이처럼 신북마을 돌봄교실 운영은 아동보육을 중심에 놓고 인적 자원의 활발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민 주도적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신북마을 온종일 돌봄교실은 [그림 IV-1]과 같이 신북면 복지회관에 있는 신북마을 작은도서관을 지역 기반으로 돌봄 수요가 많은 신북초, 왕방초를 중심으로 하여 인근의 외북초, 금주초에 온종일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차량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IV-1] 거점형 돌봄교실 운영

출처: 2018.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모델 공모사업 계획서(경기도교육청 내부자료)

▣ 마을자원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제공

협력기관	기관명	역할
사회적 경제	책상없는학교	공간제공, 강사풀, 프로그램 제공, 학부모네트워크
대학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심리상담, 멘토링(숙제 및 기초학습지도)
마을자원	신북면 마을회	차량지원, 안심지역, 마을사람책(절기별 전래놀이)
유관기관	마을수영장, 신북면 소방서, 파출소	수영교습, 안전교육, 직업체험
인근학교	신북, 왕방, 외북, 금주초	아동보육 네트워크

출처: 경기도교육청 내부자료



신북마을 온종일 돌봄교실 모습

출처: 경기도교육청 내부자료

돌봄교실은 초등 1학년~3학년을 대상으로 현재 2개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13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한다. 돌봄 1반은 오후 돌봄반으로 13시 2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운영하며, 돌봄 2반은 온종일 정규반으로 21시까지 운영한다.

운영 프로그램은 학교숙제와 기초학습 이외에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전래놀이, 요술쟁이 미술, 집단미술치료, 독서NIE, 창의과학 멘토링 등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2) 경기 시흥 ㈜다수리 미래형 돌봄교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의 마을연계 돌봄교실은 2018년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7월부터 시흥시 목감동 LH 13단지 내에 사회적 기업 ㈜다수리가 미래형 돌봄교실 1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을이 중심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육하는 체제로, 아파트단지 내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학교 밖 돌봄교실 운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교육청, 시흥교육지원청, 사업적기업인 (주)다수리가 업무협약을 맺어, 아파트단지 내 유희시설은 LH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급·간식비, 프로그램비 등 교육비를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인 (주)다수리는 보육교사 1명의 인건비와 센터장 1명 지원(봉사), 아이들 간식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그 밖의 필요 경비는 사회적 경제 연대와의 연계 및 협력에 의한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충당한다.

돌봄 대상은 조남초 학생과 인근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2학년 중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으로, 정원은 20명 내외이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17시까지, 방학 중에는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한다. 돌봄 인력은 돌봄 담당교사 1명과 대학생 자원봉사 및 학부모 등 보조 지원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돌봄 프로그램 운영은 과제 지도, 독서 등 개인 활동과 예·체능 등 단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유소년 축구교실, 뉴스포츠, 식생활교실(건강한 먹거리), 보드게임 등 각종 다양한 특성 프로

▣ 학기 중 프로그램 운영(예)

시간	월	화	수	목	금
13:00~13:30	인사 /출석 확인, 개별과제 활동(숙제, 독서활동 등)				
13:30~14:0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인선택)				
14:15~16:00	(단체활동) 식생활교실	(단체활동) 보드게임	(단체활동) 유소년축구	(단체활동) 뉴스포츠	(단체활동) 미술활동
16:00~16:20	간식시간 및 휴식/자유시간				
16:20~17:00	개인활동 /귀가 준비 및 귀가				

출처: 경기도교육청 내부자료



경기 시흥 다수리 미래형 돌봄교실 모습

출처: 아파트단지로 들어 온 돌봄교실(컬처인시흥, 2018.7.7.)

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활동은 돌봄 담당교사가 책임 관리한다.

나. 지자체-학교협력 모델(학교자원 활용모델) 운영 사례

1) 학교 내 활용가능교실을 활용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가) 서울 중구 직영 흥인초 돌봄교실¹³⁾

① 지역 여건

중구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이북,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15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 문화, 언론 및 유통의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중심 업무지구이며, 남대문 시장, 백화점, 동대문 쇼핑몰 등 대표적인 상업지역이기도 하다.

중구 인구는 12만 5천 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다. 또한 주거지역이 부족하고 일반 중고등학교도 많지 않아 새 인구 유입이 쉽지 않으며 오히려 인구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중구청은 돌봄과 교육 분야에서 구 직영 체제를 통해 젊은 층 인구를 유입하겠다는 미래에 대한 투자 전략 중 하나로 중구형 초등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3) 서울 중구청 내부자료 및 관련 신문기사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② 운영 사례: 서울 중구청 직영 흥인초 돌봄교실

서울 중구는 관내 흥인초등학교 활용가능교실 3실을 활용하여 2019년 3월부터 ‘모든 아이 돌봄교실’을 운영 중에 있다. 흥인초의 사례는 학교 내 활용가능교실을 활용하여 돌봄교실을 자치구에서 직영하는 첫 사례로 꼽힌다.

교육청-지자체-학교 간 업무협약을 맺어 교육은 학교가, 돌봄은 지자체가 분담함으로써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직영 돌봄교실은 지자체가 돌봄을 분담하면서 학교는 교원의 업무경감, 교육청은 예산 절감, 학부모는 교육비 절감과 더불어 돌봄 공백이 없어져 안전한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가 학교에서 중구청 직영으로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는 오후 5시에 문을 닫던 기존 초등돌봄교실의 저녁시간 공백을 보강해 맞벌이 부모의 고충을 덜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흥인초 돌봄교실은 현재 3개 교실이 운영 중에 있으며, 평일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아침 8시부

▣ 서울 중구청 직영 흥인초 돌봄교실 운영 개요

개소	2019. 3. 1.
운영주체	구청(돌봄교실 운영 총괄) / 중구시설관리공단(돌봄인력 및 시설 관리)
운영시간	• 학기 중: 아침: 07:30~09:00, 방과후~20:00 • 방학 중: 08:00~20:00
돌봄인력	돌봄전담사 1교실 당 2명(전일제 1명, 시간제 1명)
운영교실 수	3실
이용대상	돌봄 희망학생 전원(정원 초과 시 1~3학년 중, 한부모, 맞벌이 가정 우선 이용)
운영방법	• 저녁 8시까지 운영, 간식 및 저녁식사 제공 • 1개 교실에 돌봄전담사 2명 배치 • 일 2회 전문강사의 문·예·체 프로그램 제공 • 학원 이용 등 자유로운 입·출입 허용(안전관리 철저) • 저녁시간대 돌봄전담보완관 별도 배치
이용료	전액 무료
주관부서	중구청 교육아동청소년과(돌봄지원팀)

출처: 서울 중구청 내부자료.

▣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예)

· 오후 돌봄교실 프로그램: 교실별 진행

돌봄1교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후	3D펜 (3:30~4:50)	댄스 ※신설 (4:00~5:00)	메이커로봇 (3:00~4:20)	성장요가 ※신설 (4:00~5:00)	토탈미술 (3:00~4:20)

· 저녁 돌봄교실 프로그램: 합반으로 진행

합반 운영					
구분	월	화	수	목	금
저녁	음악즐넘기 (5:40~7:00)	뮤지컬 (5:40~7:00)	오카리나 (5:40~7:00)	VR 체험실 (5:40~7:00)	종이접기 (5:40~7:00)

출처: 서울 흥인초 6월 돌봄교실 운영안내(가정통신문)

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한다. 중구청은 돌봄교실 운영에 교실당 연 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난해까지 일부 유상으로 운영되던 돌봄 프로그램과 간식·저녁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돌봄교실 1실당 돌봄전담사를 2명씩 배치함으로써 돌봄의 질과 안전성을 제고하였다.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돌봄교실에 입실하면 병원 외출을 제외하고는 교문 밖 출입이 금지된 것을 교실당 돌봄전담사가 2명씩 배치되면서 학원 수강 등의 이유로 학교 밖 활동을 하는 아이들도 유기적으로 보살핌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돌봄교실을 드나들 때 아이들 각자에게 부여된 카드를 단말기에 대면 사전 등록된 보호자에게 아이의 입·퇴실을 알려주는 문자가 발송된다.

또한 독서, 놀이, 창의활동 등 기존 프로그램에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결합시켜 차별화된 보다 내실 있는 돌봄 프로그램을 일 2회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돌봄전담보안관도 1명 별도 배치하고 있다.

흥인초 돌봄교실은 시설 리모델링, 운영시간 연장, 프로그램 다양화, 급·간식 제공, 안전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기존 초등돌봄교실보다 서비스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현재 구는 지난 3월 흥인초등학교에 제1호 구 직영 돌봄교실을 마련한 데 이어 오는 9월 봉래초등학교에 두 번째 돌봄교실을 개소할 예정이다. 구는 관내 전 공립초등학교의 구 직영 돌봄교실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돌봄교실 전용 출입구

돌봄교실 내부

성장요가 수업



저녁식사 제공

자유로운 입·출입

돌봄보안관 배치

서울 중구 흥인초 돌봄교실 모습

출처: 서울 중구청 내부자료

(나) 충남 홍성군 방과후 돌봄센터 ‘아이들 세상’¹⁴⁾

① 지역 여건 및 돌봄 생태계 구축 노력

충청남도 중서부에 위치한 홍성군은 3개 읍과 8개 면으로 이루어진 인구 10만 도시로, 충청남도청이 홍성군으로 이전하면서 내포신도시 건설과 함께 도농복합형태의 새로운 지역 환경이 조성되었다. 관내 아동 인구는 읍·면 간 인구밀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2개 읍(홍성읍, 홍북읍)에 아동 인구가 가장 밀집해 있고 그 밖에 전형적인 농어촌 형태를 띤 면 단위 지역에는 매우 적은 편이다.

14) 관계부처합동·한국교육개발원(2019)의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사례집」에 포함된 홍성군 사례와 홍성군 내부자료, 신문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도청 이전과 내포신도시(홍북읍) 조성으로 2013년 이후 젊은 층 인구 유입과 아동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아동과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중심의 기반시설은 부족하다. 특히 젊은 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홍북읍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시설이 전무하며, 인근 지역 초등학교와 비교하여 과밀학급 현상으로 학교 내 활용가능한 공간 확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홍성군은 읍면별 지역 특성과 상황, 인구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아이들 세상 만들기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 인구가 가장 밀집된 홍북읍을 중심으로 양육과 돌봄, 청소년활동 지원,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통합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였다.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해 홍성군이 한 노력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총 4번의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둘째, 돌봄 수요조사 결과가 반영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홍성군 지역돌봄협의체를 결성하였다. 지역돌봄협의체 회의를 통해 돌봄 필요 아동 수와 돌봄서비스 참여 아동 수를 토대로 실제 돌봄서비스 매칭 필요 인원을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수요에 따른 공급을 조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를 제정(2018.11.15. 공포)하였다. 조례의 내용으로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 아동복지증진 추진계획 수립, 아이돌봄 지원, 방과후 돌봄 지원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부록1] 참고).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방과후 돌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㉔ 온종일 돌봄모형 구축 및 특징

홍성군은 도농복합형의 돌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세 가지 운영모형으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즉 홍성군의 온종일 돌봄체계는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 교실을 이용한 학교돌봄과 마을이 함께 돌보는 아동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마을돌봄, 그리고 홍성군 틈새돌봄의 세 가지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학교와 함께돌봄’으로, 지자체-교육지원청-학교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학교와 함께돌봄은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 이외에 홍성군청에서 직영으로 학교의 활용가능교실을 활용하여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과밀학급으로 학교 내 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는 ‘마을과 함께돌봄’을 운영한다. 지자체-LH대전본부-LH입주자대표와의 협약을 통해 아파트단지 내 아동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홍성군 틈새돌봄’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 비용을 군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상시돌봄 이외에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 50%를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㉕ 운영 사례: 홍성군 방과후 돌봄센터 ‘아이들 세상’

홍성군 방과후 돌봄센터 ‘아이들 세상’은 맞벌이 가정이 겪는 아동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홍성군 및 학교가 힘을 모아 설립한 홍성군 직영의 초등 방과후 돌봄센터이다.

먼저, 학교의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한 온종일 돌봄을 운영하기 위해 홍성읍 내 초등학교 2개교와 협약을 맺고, 홍성초등학교 1개 교실, 홍주초등학교 2개 교실, 총 3개 교실을 리모델링하였다. 교육부와 KB금융그룹의 협약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이 제공한 활용가능한 교실을 KB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리모델링하고, 홍성군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전국 최초의 ‘학교-지자체 협업 운영 돌봄센터’이다.

돌봄교실은 설계 단계부터 선생님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했고,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고려한 구성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감성 등을 동시에 키울 수 있도록 꾸몄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집이 아닌 곳에서 있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집과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하였다.

특히 홍주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인근 초등학교 학생도 참여하는 거점형 돌봄센터로써, 통학 차량을 1일 2회 운행하고 있으며 안전도우미 자원봉사자가 직접 안전지도 및 학생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은 1~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홍성군 방과후 돌봄센터인 학교돌봄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기존의 초등돌봄교

▣ 홍성군 방과후 돌봄센터 '아이들 세상'

구분	1호점	2호점	3호점
유형	학교 안 돌봄교실 (지자체-학교 협력)	학교 안 돌봄교실(거점형) (지자체-학교 협력)	아동통합지원센터 (지자체-마을 협력)
위치	홍성초등학교 내	홍주초등학교 내	내포LH스타힐스 단지 내
면적	90㎡	131.4㎡	400㎡(급식소 포함)
교실 수	1실	2실	3실
돌봄교사	1명	2명	4명
이용대상	20명 (본교 재학생)	40명 (본교+인근초 재학생)	60명
운영시간	• 학기 중: 13:00~19:30 • 방학 중: 08:30~15:30		
운영방식	군 직영		

출처: 홍성군청 내부자료.

실이 17시까지 운영되는 것에 반해 19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하며, 위탁업체를 통해 주 5일 간식 및 저녁식사 또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과밀학급 현상으로 학교 내 공간 확보가 어려운 홍북읍 지역에는 아파트단지 가운데 홍성군-LH대전본부-LH입주자대표 간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18.3.22.)하여 전국 최초 아동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아동통합지원센터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의 개방된 시설을 활용한 복합센터로, 이곳에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아동통합지원센터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초등방과후 돌봄센터, 급식소, 청소년동아리방, 작은도서관, 독서실, 가족카페 등 총 7개의 시설이 자리하고 있어, 영유아부터 청소년, 가족까지 홍성군민 모두 이용 가능한 가족 중심의 공간이다.

홍성군 방과후 돌봄센터는 단순돌봄에서 벗어나 활동 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교실 내에서는 학습의 연장보다는 창의적인 생각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책읽기와 창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각종 놀이가 진행되지만, 무엇보다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



홍성군 방과후 돌봄센터 '아이들 세상'_학교 안 돌봄교실 모습

출처: 홍성군청 내부자료



공동육아나눔터

초등돌봄교실

작은도서관



독서실

청소년동아리방

급식실

홍성군 방과후 돌봄센터 '아이들 세상'_아동통합지원센터 모습

출처: 홍성군청 내부자료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한다. 또한 온종일 돌봄교실 3개소 6개실 운영의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홍성군에서 돌봄교사를 직접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돌봄교사는 총 7명으로 13시부터 20시까지 1일 7시간 주당 35시간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

2)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가) 경기도 성남시립도담청솔 지역아동센터¹⁵⁾

경기도교육청은 낮은 출산율과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발생한 학교의 유휴교실을 지역공동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안)’을 마련하였다.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도심지역 공동화 현상 등으로 발생한 학교 유휴교실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돌봄 및 방과후 거점학교를 설치하고 인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돌봄 및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이다(경기도교육청, 2016).

성남시립도담청솔 지역아동센터는 2016년 10월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최초로 학교 안에 설치한 시립지역아동센터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청솔초등학교 내 유휴공간을 무상임대하고, 성남시에서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전한 돌봄 및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청솔초등학교 내 조리실로 사용되던 공간(교실 3개 규모)의 유휴시설을 성남시에 무상임대하고 성남시는 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아동센터 시설로 리모델링했다. 성남시립도담청솔 지역아동센터는 총 261.9㎡ 규모에 프로그램실 5개, 사무실, 조리실, 상담실 등의 시설과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도서, 자석 블록, 미술용품 등의 교재 교구를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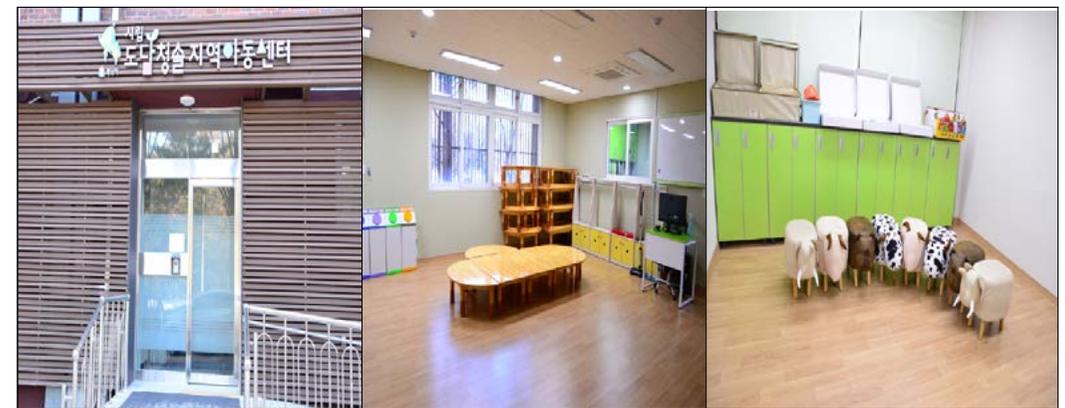
운영시간은 학교 수업이 끝난 후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방학 동안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4명의 선생님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기초학습 지도, 예·체능 특기적성 지원, 문화체험, 급식 지원을 한다.

15) 경기도교육청 미래형 돌봄교실 운영 사례 및 관련 신문 기사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 성남시립도담청솔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요

개소	2018. 1. 23.
운영주체	성남시청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243(청솔초등학교 내 유휴공간)
시설	교실 3개 규모의 유휴시설(261㎡), 프로그램실 5개, 화장실 2개, 조리실 1개, 상담실 1개
이용대상	맞벌이 가정의 자녀(중위소득 130% 이하), 초 1~6학년
운영시간	• 평일: 11:00~20:00, 토요일: 09:00~14:00 • 방학: 09:00~20:00
정원	40명(저학년 우선 선정)
이용료	월 5만 원(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아동은 무료)
종사자 수	4명(시설장 1, 생활복지사 3)

출처: 경기도교육청 내부자료 재구성.



도담청솔 지역아동센터 집단 프로그램실 놀이방

성남시립도담청솔 지역아동센터 모습

출처: 비전성남(2017.12.13.)

지역사회 내 열악한 부속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던 지역아동센터가 학교 내로 들어오면 이용 아동이 접근하기 쉽고, 학교와 연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일반 돌봄교실에 비해 오후 8시까지 운영돼 간식 및 저녁식사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맞벌이 가정과 같이 늦은 시간까지 자

녀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나) 울산 울주군 ‘여럿이함께’ 지역아동센터¹⁶⁾

울산 울주군은 언양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2실에 ‘여럿이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언양초등학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공립초등학교로, 울산광역시에 속하지만 울산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전형적인 도농복합형 지역이다. 특히 인근 아파트들의 대부분이 주공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이 많아 돌봄에 대한 수요 또한 많은 지역이다.

언양초등학교에는 학교 자체의 돌봄교실(‘다솜누리교실’)도 운영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학교 공간(현재 4층 2개실 규모, ‘행복누리돌봄교실’)을 활용하여 운영 중에 있다. 특히 학교가 현재 위치로 신축 이전한 2015년 이전인 2014년부터 위탁운영 협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여럿이함께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 열악한 부속 건물을 임대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중에, 2014년 학교와 울산광역시교육청(강남교육지원청), 그리고 울주군청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초등돌봄교실 지원 활동 추진 과정에서 언양초등학교 내로 새 보급자리를 잡은 후 2019년 현재까지 언양초등학교 자체 초등돌봄교실과 함께 학생들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교사 이전 당시에 학교 예산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29인 이하 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조하여(지역아동센터가 자체적으로 야간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인덕션 시설 설치 포함)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물적 기반을 갖추었으며, 학교와 교육청(학교시설단) 그리고 울주군청의 협의를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활용하는 공간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에 시설 임대료를 내지 않는 대신 수도·전기·전화·인터넷 등 공과금 5만원을 학교에 별도로 납부하며, 생활복지사 1명의 고용 및 기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지자체인 울주군에서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에는 센터장과 전임 생활복지사가 상주하면서 29명의 학생을 대상



언양초 내 ‘여럿이함께’ 지역아동센터 모습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8.13).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과제 확산·공유 간담회 자료집. P. 89.

으로 상시 및 일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학기 중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방학 중에는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학교라고 하는 안정적인 공간에서 지역아동센터 자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 학교의 교육 내용과 학교 행사 등을 공유함으로써 센터 이용 아동들의 불편을 없앴으며, 일반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면서 간식 및 저녁식사도 함께 지원 가능해서 이용 아동 및 가정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다. 지자체-마을협력 모델(마을자원 활용모델) 운영 사례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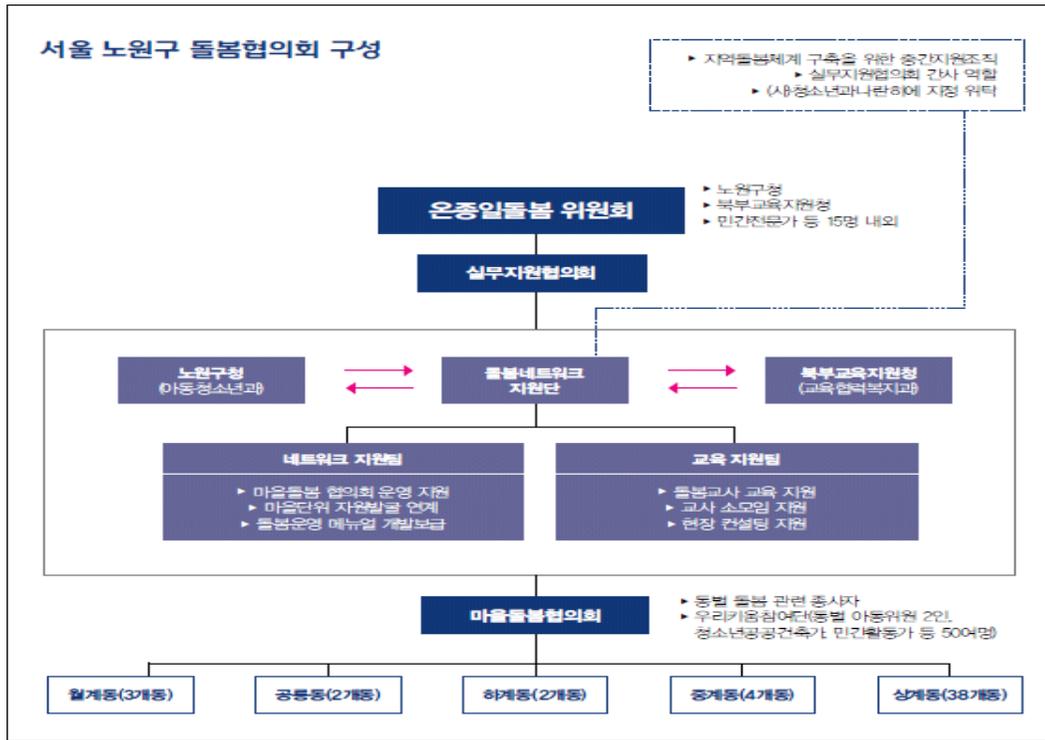
1) 서울 노원구 ‘우리동네 아이휴센터’

① 지역 여건 및 돌봄 생태계 구축 노력

노원구는 전체 인구에서 아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8%이며,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15세 이하 유소년 인구수가 3위인 도시이다. 강북의 ‘대치동’이라 불릴 만큼 대표적인 주거도시로, 저소득층 아동과 중위소득 이상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저소득층 부모는 대개 돌봄시설에서 보호, 급식, 학습지원, 상담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반면, 맞벌이

16) 이희현 외(2019)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과제」에 포함된 울주군 사례 및 관련 신문기사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17) 관계부처합동·한국교육개발원(2019)의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사례집」에 포함된 사례와 관련 신문기사 자료들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그림 IV-2] 서울 노원구 돌봄협의회 구성

출처 : 은종일 돌봄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사례집. P. 21.

가정, 즉 중위소득 이상의 맞벌이 가정 부모들은 틈새시간 돌봄으로 간식 지원, 문화, 예술 등 특별활동 수준의 돌봄과 함께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돌봄서비스를 요구한다.

이에 길으로 보기에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또래지만, 서로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진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은종일 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노원구에서는 학교와 마을간 촘촘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구청과 마을 구석구석 돌봄 지원들이 손을 잡기 위해서는 중간 조직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그림 IV-2]와 같이 노원구청과 북부교육지원청을 연결해주는 ‘돌봄네트워크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노원의 돌봄 컨트롤타워로, 노원구 내 지역아동센터 23곳의 센터장들과 초등돌봄교실 103개 실의 돌봄전담사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봄을 펼치고 있는 민간 돌봄 선생님들을 하나의 돌봄 생태계처럼 엮어 나가고 있다.

② 운영 사례: ‘우리동네 아이휴센터’ 조성

노원형 돌봄시설 ‘아이휴(休)센터’는 1,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내 1층이나 학교 인근 일반주택 등 보호자와 아동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과 학교에서 가까운 최적의 장소에 위치한다.

노원형 돌봄센터는 ‘도보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목표로 다양한 공간을 찾았고, 공공복합시설, 작은도서관, 마을커뮤니티, 경로당, 아파트 등을 활용하여 노원형 초등방과후 돌봄 ‘아이휴센터’를 조성하기 시작하여 2019년 7월 현재 총 11개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18년 11월 상계 주공10단지 아파트 1층 주거 공간에 문을 연 ‘아이휴(休)센터 1호점’은 센터장 1명과 돌봄교사 2명이 4시간씩 근무한다. 정원은 30명으로 이용 자격은 소득과 무관하게 초등 1학년~3학년 대상 다자녀 맞벌이 가정이 우선이며, 한부모, 다자녀 가구 순으로 선정한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등교 전 돌봄도 운영한다. 부모가 일찍 출근하더라도 아동은 아이휴센터의 등교지원 서비스를 통해 돌봄교사와 함께 안전하게 등교하고, 방과후에는 아이휴센터에서 쉬고 놀며 간식을 먹고, 필요시 저녁식사를 하는 등 저녁 9시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평일 저녁이나 방학 중에도 ‘밤상돌봄’을 통해 어린이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아파서 학교 등교가 어려울 때는 쉬면서 식사와 약을 챙겨주는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병원 진료 동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휴일에 부모가 근로하는 가정에는 ‘휴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원구는 2022년까지 총 40개소를 확충해 맞벌이 가정 초등 저학년 1,000명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안심(安心) 동심(童心)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이휴센터 1호점

아이휴센터 2호점

아이휴센터 3호점

출처: 노원구청 내부자료.

2) 경기도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① 지역 여건 및 돌봄 생태계 구축 노력

오산시의 평균연령은 전국의 기초지자체 전체에서 세 번째로 낮은 37.1세로 젊은 도시이다. 그러나 주변에 화성, 평택, 수원, 용인 등 규모가 크고 발전된 도시들이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권을 같이 하는 동탄 같은 거대한 신도시 개발로 젊은 인구가 최근 급격히 빠져나가는 지역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산시는 무엇보다 젊은 인구의 정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결과,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로 발전했고 2017년에는 경기도 최초로 유니세프가 인증한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었다.

오산시가 지역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이 행복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낸 가장 큰 원동력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모든 정책의 중심에 시민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의 돌봄 생태계를 구축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오산시는 2018년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2018.11.)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초등돌봄을 시장의 책무로 하면서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2019년 1월 신설하여, 다양한 기관 및 부서와의 협력을 통하여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② 운영 사례: 오산형 온종일 돌봄 ‘함께자람’

경기 오산시는 2018년부터 오산형 온종일 돌봄 ‘함께자람’을 추진, 학교돌봄을 넘어 마을돌봄으로 돌봄 생태계를 촘촘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다. 오산시는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촘촘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오산형 온종일 돌봄 ‘함께자람’이라는 이름으로 초등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오산형 온종일 돌봄 ‘함께자람’은 초등학생들이 방과후 안전하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전 도시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지원과 더불어 마을에서 아이들을 보듬을 수 있도록 지역의 유휴공간을 찾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고, 마을자원을 투입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함께자람’이란 ‘아이자람+부모자람+마을자람’으로 안전한 돌봄을 통해 밝고 건강한 아이자람,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부모자람, 그리고 마을 모두가 협력하여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마을자람의 이 모든 주체가 함께자람을 의미한다.

오산시는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장소(예: 집같이 편안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 학부모가 원하는 안전성(예: 학교처럼 안전과 보호가 우선시되는 곳)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동의 접근성 및 안전성이 높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함께자람센터 공간을 마련하였다.

함께자람센터는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방학 중엔 오전 9시부터

▣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운영 개요

개소	2018. 11.
위치	오산시 수정로 107 관리동 지하 1층(77㎡) ※ 무상임대(NH)
이용대상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소득수준 무관)
운영시간	• 학기: 13:00~19:00 • 방학: 09:00~19:00
운영 프로그램	독서, 예체능교육, 학습지원 등
종사자 수	총괄관리자 1명, 돌봄교사 1명, 홍익일자리(환경정비) 1명
운영 방식	오산시 직영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9.3.19.) 유은혜 부총리,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교육자치와 온종일 돌봄 체계 달성한다”.

오후 7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 다자녀가구 등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집 근처 가까이에서 아이들이 오갈 수 있어 귀찮길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휴식과 기본적인 돌봄서비스 외에도 하루 한 시간, 주 4일 마을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오산교육재단, 오산체육회, 오산백년시민대학 등에서 양성된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시민이 돌봄공동체의 주축이 돼 돌봄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오산시만의 차별점이다. 또한 언제나 오고 싶은 내 집같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아이의 눈높이에서 시설을 구축하고자 아동친화도시 오산시답게 어린이의회 의원들과 함께 시설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 마을자원을 활용한 틈새 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명	내용	비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마을 내 초등학생 돌봄공간 제공(최소 66㎡이상) (무상 사용기간은 최소 10년으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변경 가능)	시설공유
동 행복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 협조(예: 체력증진실(탁구수업))	
(재)오산교육재단	학부모 강사 연계 초등돌봄 교육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지원
오산체육회	체육회 강사 지원으로 초등돌봄 체육프로그램 제공	
오산시 중앙도서관	마을 내 초등 돌봄시설 순회문고 운영 (6개월 단위 최대 500권 대여, 대여기간 연장 가능)	도서지원
오산시 정보통신과	사물인터넷 기반 등·하원 알림 안심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하원 알림
오산 사회적경제 협의회	마을 내 초등돌봄 이용아동의 건강한 급간식 지원	급·간식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동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및 돌봄센터 등 프로그램 공유 협업 동대표회의: 아파트 내 돌봄센터 이용아동 간식 후원(일부)	마을지원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 방과후돌봄 온라인 뉴스레터(2019. 6월호) 아이, 부모, 마을이 함께 자라는 오산형 온종일 돌봄 "함께자람". P.18.



도레놀이(레고, 보드게임 등)

탁구수업

급·간식 지원

함께자람센터 1호점 활동모습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 방과후돌봄 온라인 뉴스레터(2019, 6월호). 아이, 부모, 마을이 함께 자라는 오산형 온종일돌봄 "함께자람". P.17.)

현재 오산시는 오산 죽미마을 12단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 함께자람센터 1호점('18.11월)을 개소한 데 이어, 원동 동부삼환아파트 관리동에 2호점('19.7월)을 개소하였다. 오산시는 '21년까지 30개소(돌봄수요 전체 초등학생의 약 30%)를 확충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본 연구에서 살펴본 타 지자체의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력 속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을 책임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남지역에 맞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교육청 협력 돌봄 수요조사 실시, 돌봄 전담조직 설치, 돌봄기관 및 유관기관 간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한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운영, 방과후 돌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지역의 돌봄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관주도의 제한적인 돌봄서비스에서 벗어나 틈새돌봄 및 수요자의 다양한 돌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과 같은 민간기관 중심의 돌봄 운영모델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재개발이나 신도시 개발로 신규아파트가 건축되고 젊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 수가 증가하여 돌봄 수요가 많아진 지역의 경우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처럼 학교 밖 지역 기반의 방과후 마을학교는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과 마을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함으로써 마을 전체가 돌봄과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아침의 오전돌봄이나 저녁의 저녁돌봄뿐만 아니라 주말·휴일·방학 돌봄과 같이 틈새 및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초등돌봄교실 이외에 사회적 돌봄망이 거의 없는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거점형 돌봄교실 운영 사례나 통합센터를 통한 돌봄 지원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농촌지역은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이외에 돌봄 관련 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에 학교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돌봄 및 방과후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통학 차량 지원을 통해 인근학교 학생들을 함께 수용하여 안전한 돌봄 및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협력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돌봄수요 가정은 물론 지역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지역 내 통합센터를 설치하고, 통합센터 내에 돌봄교

실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통합센터 내에 설치되는 돌봄교실은 단순한 보호만을 제공하는 돌봄이 아니라, 돌봄과 교육·문화·특기적성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충남 홍성군의 아동통합지원센터가 이에 해당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아동통합지원센터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초등돌봄교실, 급식실, 청소년동아리방, 작은도서관, 독서실, 가족카페 등 총 7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양육과 돌봄, 청소년 활동 지원,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통합 공간으로 육아부터 돌봄, 가족 휴식 공간까지 통합적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학교 내 유휴교실이나 유휴공간이 있는 지역, 특히 도심 공동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생 수도 감소한 지역의 경우에는 지자체 직영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중구청이나 홍성군 사례, 그리고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사례와 같은 학교자원 활용모델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사례들은 학교라는 안정적인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용 아동이 접근하기 쉽고, 학교와 연계한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일반 초등돌봄교실에 비해 오후 8시까지 돌봄시간을 연장하고 저녁식사 지원도 가능하다. 이는 맞벌이 가정과 같이 늦은 시간까지 자녀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게 맡길 수 있어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

다섯째, 학교 내 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의 활용가능한 공간을 이용한 돌봄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노원구 우리동네 아이휴센터나 오산시의 함께자람센터와 같은 지역(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을자원 활용모델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는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장소(집같이 편안한 공간이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선호)에 학부모가 원하는 안전성(학교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선호)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이나 집 근처의 단독주택과 같은 곳에 돌봄센터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이처럼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돌봄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아동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종합해 보면, 지역사회 기반의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정확한 돌봄수요 및 돌봄자원 조사를 기초로 그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돌봄모형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모델마다 운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 규모, 돌봄수요 및 인프라 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돌봄모형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V. 경남의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1.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

가. 아동 중심의 보편적·통합적 돌봄체계 구축

초등돌봄은 학교 교육활동의 연속선 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지역 내 생활과도 분리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초등돌봄 업무를 교육 또는 복지 어느 한쪽만의 업무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초등돌봄은 시간, 장소, 자원 등 여타의 여건에 의해 제한적이고 분절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의 총체적인 삶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관점과 복지적 관점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이희현 외, 2019). 이를 통해 초등 공적돌봄 인프라를 조성하고 온 마을이 참여하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중심의 포용적·통합적 돌봄을 실현해야 한다.

나.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을 통한 돌봄체계 구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서 필수적 요인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기반의 돌봄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가는 것이다.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의 주요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통적인 성공 요인은 지자체장의 의지와 지자체-교육청, 학교-마을 간 연계 및 협력으로 나타났다(이희현 외, 2019). 따라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수요자 중심의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지역사회의 과제로 인식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 마을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안의 돌봄만을 강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보육과 교육의 양쪽 영역에 속해 있는 돌봄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돌봄이 풍성해지

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긴 시간 동안 돌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교와 연계된 돌봄이 실천되어야 한다. 학교와 교육청은 기존의 돌봄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협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돌봄모형 개발·운영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알맞은 돌봄모형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군·구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각 지자체들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고유한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 속에서 돌봄 수요조사를 통해 그 지역의 여건 및 환경에 알맞은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마다 그 지역의 고유한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이 다르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상이하기 때문에 타 시도 및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는 없다. 비록 타 지자체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참고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각 지역의 돌봄체계는 해당 지역 스스로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역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구축될 수 있다(이희현 외, 2019). 따라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돌봄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돌봄 운영 방안

가. 지역 기반의 초등돌봄 인프라 구축

본 연구의 사례조사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각 지역의 지자체들은 돌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돌봄 전담조직 설치, 돌봄기관 간 소통 및 협력을 위한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운영, 방과후 돌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 기반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각 지역에 맞는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온종일 돌봄모형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중구청의 경우, 지자체장의 관심 및 의지가 높아 구청장 공약의 5대 핵심전략과제 중 하나로 ‘중구 모든 아이 돌봄사업’과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교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고, 중구청 조직 개편을 통해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돌봄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지역돌봄협의체인 모든 아이 돌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 돌봄 종합계획 수립, 예산 확보,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돌봄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기반뿐만 아니라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경남도청과 도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합교육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나. 학교와 마을 간의 연계·협력 강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초등돌봄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의 연계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이나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 경기도의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사업이 모두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기반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초등돌봄교실 정책은 정부가 잘하고 있는 상위 5개의 정책에 손꼽힐 만큼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고 있지만,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은 학교의 돌봄 공간 부족 및 업무부담 증가,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학교 안팎에서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 돌봄센터 등 학교돌봄과 마을돌봄기관 간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마을 간의 연계 및 협력에는 부처별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한 시간대별 연계나 프로그램 및 시설·장소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 포함된 각 지자체의 돌봄 제공 사례들은 모두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마을의 시설을 활용하고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학교와 마을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돌봄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마을과 연계한 방과후 돌봄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재개발이나 신도시 개발로 신규아파트가 건축되고 젊은 유입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돌봄 수요가 많아진 지역의 경우에는 마을이 주도하는 마을 학교 형태의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활성화

온종일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내 돌봄서비스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박지영, 2018). 그러나 본 면담조사에 따르면, 현재 지역별로 지역돌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간단한 정보 공유나 친목 도모 수준의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돌봄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과 같은 돌봄기관 및 유관기관의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관내 돌봄시설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다. 이에 지역돌봄협의체는 지역 내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고, 돌봄 관련 문제를 협의·결정·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 단위의 돌봄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관계부처합동, 2018.4.11.).

서울 노원구 같은 경우, 노원구청과 교육지원청의 정기적인 실무협의회 실시로 학교와 마을 간 촘촘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구청과 마을의 돌봄 자

원들이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민간 돌봄전담사들로 구성된 중간 지원조직을 두어 돌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간 지원조직이 주축이 되어 마을돌봄협의회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봄기관 및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돌봄 관련 종사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촘촘한 지역 돌봄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지역 내 각 돌봄기관 및 민간 유관기관 간의 정보교환, 이용대상자 연계 및 대상자 정보 공유,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 방안 등 실질적인 상호 협력 및 연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역돌봄협의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돌봄협의체를 기반으로 읍·면·동 단위의 실질적인 생활권 중심의 마을돌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라.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확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초등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돌봄기관과 다른 점은 무엇보다 이용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의 이용대상은 1, 2학년의 저학년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중심인에 반해 다함께 돌봄센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의 접근성 및 안정성을 선호하는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온종일 있어야 하는 아동들의 피로감 등을 고려하여 집이나 학교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공시설(예: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함으로써 학부모와 아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 지역 내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질병으로 인한 병원 이용 등 일시·긴급 돌봄을 제공해 줌으로써 다양한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즉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별로 개인 일정 등에 따라 자유로운 출입, 탄력적 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처하면서 지역의 학부모와 마을주민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마을돌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9). 앞서 본 연구에서 소개한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이나 서울 노원구의 ‘우리

동네 아이휴센터’, 경기도 오산시의 ‘함께사람센터’가 모두 다함께 돌봄사업의 지자체별 명칭이다.

현재 경남에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창원군에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 4월 진주시와 6월 창원시에 각각 1개소가 설치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없다. 특히 창원, 김해, 양산 등과 같이 초등 저학년 비율이 높고, 또 신도심의 과밀학급으로 돌봄교실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다함께 돌봄센터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 돌봄 협력형 모델 개발 및 운영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돌봄 협력형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사례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각 지자체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자체와 학교 간의 협력 또는 지자체와 마을 간의 협력 등 다양한 협력형 돌봄모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충남 홍성군의 경우 도농복합형의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세 가지 유형의 돌봄모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홍성군의 온종일 돌봄체계는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 교실을 이용한 학교와 함께돌봄, 학교 내 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는 마을이 함께 돌보는 아동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마을과 함께돌봄, 그리고 홍성군 틈새돌봄의 세 가지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와 함께돌봄의 경우는 지자체-학교협력 모델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이외에 홍성군청에서 직영으로 학교의 활용가능교실을 활용하여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특히 홍주초 돌봄교실은 거점형 돌봄교실로 학생 이동을 위한 차량 지원을 통해 인근 초등학교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마을과 함께돌봄은 젊은 층 인구가 증가하여 학교 내 공간이 부족하고 주변에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시설 등 돌봄 관련 인프라가 거의 없는 지역에 아동통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아동통합지원센터는 일종의 지자체-마을 협력 모델로,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의 개방된 시설을 활용한 복합센터로, 센터 내에는 초등방과후 돌봄센터뿐만 아니라 공동육아나눔터, 급식소, 청소년동아리방, 작은도서관, 가족카페 등의 시설이 모두 함께 있어, 영유아부터 청소년, 가

족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종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장명림 외, 2018). 마지막으로, 홍성군 틈새돌봄은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 비용을 군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처럼 우리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돌봄모형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바.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를 통한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 마을의 협력과 연계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의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양적 증가와 함께 돌봄서비스의 질 관리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 다함께 돌봄센터의 돌봄관리자 등 돌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신장할 필요가 있다.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필수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아동들과 실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놀이 등과 같은 아동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다양한 교육들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 돌봄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및 연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종사자들이 원하는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돌봄 종사자들의 임금 개선, 동일한 노동에 따른 동일한 급여 체계 도입 등의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지원, 이세미(2015).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 현황 분석. 보건복지포럼, 60-70.
- 강현주(2017).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협력 연계 방안. 희망이슈, 제32호, 1-22.
- 경상남도교육청(2018). 2019. 경남교육.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17.12.28.).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현장 정책토론회 개최.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19.4.11.). 지역 중심 돌봄생태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협의회 개최.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19.6.25.). 지자체 및 교육청(학교) 협력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성과 확산.
- 관계부처합동(2018.4.26.).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 관계부처합동·한국교육개발원(2019).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사례집.
- 교육부 보도자료(2018.6.28.).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9개 지자체 선정.
- 교육부(2018.12.). 2019학년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 김진석, 백선희, 정영모, 김소영, 조은하(2018).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및 제도화 방안. 범정부공동추진단·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창복, 양애경, 양윤이, 김선례, 김정은, 송영미(2018). 초등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박은중(2018).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양과 질 균형적 개선 전제돼야. 한국교육신문(2018.4.5.).
- 박지영(2018).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현황 및 계획. 육아정책포럼(58), 32-38.
- 보건복지부(2018). 2017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보고서.
- 보건복지부(2019). 2019.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19).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송지현(2018). 초등교육의 변화 필요성과 쟁점. 제7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자료집. 89-92.
- 안현석(2019). 경기도교육청 미래형 돌봄교실 운영 사례.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정책포럼 자료집. 25-31.
- 여성가족부(2018). 2019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 여성가족부(2019). 2019년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19). 2019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2018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실무자 업무 매뉴얼.
- 유해미, 이윤진, 박은영(2018).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병희, 강현주, 강운학(2018). 초등돌봄교실 정책 분석.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슈페이퍼, 3-35.
- 이혜숙, 이영주(2018).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서울연구원.
- 이희현, 장명림, 황준성, 유경훈, 김성기, 김위정, 이덕난, 김보미(2019).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과제: 우수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임선일, 전호성, 이선영(2017).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모델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 임혜정(2017). 패럴순서형로봇모형을 이용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 영향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7(4), 510-534.
- 장명림, 이희현, 최형주, 최은영, 신라리, 김선미, 오상아(2018). 지역돌봄 생태계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4.4.).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 정용주(2018). 돌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행복한 교육. Vol. 435, 64-65.
- 한국교육개발원(2018).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개정판 2019).

[부록 1]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

(제정) 2018.11.15 조례 제2545호
(일부개정) 2019.08.16 조례 제2634호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이돌봄 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 밖의 아동복지증진 관계법령에 따라 홍성군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기”란 「충청남도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생한 달부터 12개월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4. “아동복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5.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행복과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7.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증진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복지법」(이하 “법”라 한다) 및 그 밖의 아동복지증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아동복지증진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아동복지증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추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
2. 영아, 유아, 아동 단계별 지원사업
3. 돌봄 관련 지원사업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
5. 그 밖의 아동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아이들 세상만들기 정책

제5조(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군수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건강한 자녀양육 환경을 위한 가족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3. 방과 후 돌봄의 활성화
4.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5. 지역사회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6.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복지서비스

제6조(충남아기수당 지원) ① 군수는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호자와 12개월 이하의 아기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충남아기수당(이하 “아기수당”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아기수당의 지원 대상·방법·지급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아이돌봄 지원) ① 군수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보호자가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방과후돌봄 지원) ① 군수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과후돌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 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아동 건강 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군수는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의 참여)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친화도시 조성)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예산확보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군수는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원·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14조(조사 및 연구 등)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아동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등) ① 군수는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군민의 접근성을 위해 안내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캠페인, 표어대회, 아이디어 공모 등 다각적인 행사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비영리법인·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아동복지증진 문화 확산, 아동복지증진 촉진과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 소재의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7조(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 대표자
4. 사회복지·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5. 아동친화도시 관계 기관 공무원
6.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7.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아동 및 학부모
8.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

제25조(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6조(아동위원회의 기능)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을 요청하는 사항

제27조(아동위원의 구성)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아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은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 학교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팀장이 된다.

제28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아동위원장의 직무)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을 지키기 위하여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아동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수립·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아동위원의 해촉) 군수는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아동위원의 거주지가 관외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표창 등)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3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16.>

부 칙 <조례 제2545호, 2018.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아이돌봄 지원신청, 지원기준 등 규정은 그 지급 사유가 2018. 1. 1. 이후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634호, 2019.8.16.>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홍성군 아이돌 세상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김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성과 분석

연구진

연구책임자 | 한미영(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공동연구자 | 윤연경(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이미숙(창원교육지원청)

| 김성준(창원행복마을학교)

| 구종현(양산행복교육지원센터)

| 박은영(밀양행복교육지원센터)

연구협력관 | 곽형준(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연구요약>

김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성과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김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김해 행복교육지구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김해지구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김해 행복교육지구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한 만큼,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경남 행복교육지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경남 행복교육지구 운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공통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활용한 김해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양적 설문조사와 사업의 성과 및 한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사업담당자 및 교사, 마을활동가(마을교사) 대상의 집담회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와 집담회 결과 분석을 종합하여 김해 행복교육지구의 발전 전략 및 경남 행복교육지구의 발전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 성과 분석뿐만 아니라 이후 2년 지정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다른 지구의 사업 성과를 분석할 수 있고 또 종단적 관점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 성과의 연차별 성장을 살펴볼 수 있도록 공통 성과지표를 구성하였다.

공통 성과지표는 크게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비전 및 목적에 맞게 추진과제가 잘 이행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의 목표’ 영역과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나타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변화나 사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의 전반적 성과’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사업의 목표’ 영역은 다시 ‘학교혁신’과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영역으로 세분화하였다. ‘사업의 전반적 성과’ 영역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사업에 대한 이

해'와 '사업의 성과 인식'의 2개의 하위영역으로 세분하였다. 학생의 경우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인지 정도가 낮기 때문에 '사업의 전반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행복교육지구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주도성, 타인 배려나 소통능력 등과 같은 '학생역량 계발' 영역을 포함하였다.

둘째, 김해 행복교육지구의 성과 분석을 위해 김해 전 지역의 초·중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성과지표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및 결과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목표 영역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 상관없이 학교혁신 영역에서의 점수는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영역에서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행복학교 및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수업혁신 및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과 관련된 학교혁신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과 관련된 목표 영역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자원 발굴 및 교육인프라 구축, 마을교육과정 운영 및 마을교사 수업 활용 등과 같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들의 마을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마을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교사와 학부모들의 마을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 교사들은 마을학교가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고 다양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학부모들은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마을학교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셋째, 마을학교에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체험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진로성숙도, 의사소통능력, 민주시민성 점수가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 및 학교 밖 단체활동을 통해 학생 개인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율성을 키우며, 타인과 소통·배려하는 과정에서 협동심과 책임감을 함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는 마을학교 운영의 취지와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학생역량 향상뿐만 아니라 마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지역공동체 의식 점수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마을학교 참여 경험이 내가 살고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 및 애착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설명회나 토론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사업 지속 및 확대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나 학부모들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관심은 사업의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교사나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설명회나 간담회, 토론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방식의 홍보 활동을 통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취지 및 방향을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부모 및 교사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인식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사업의 성과로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교직원 간 소통문화 개선'을 높게 인식한 반면, '학교 간 교류 활성화, 학생의 지역공동체 의식 증가,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제고'를 낮게 인식하였다. 학부모들은 '학생과 교사 간 관계 개선, 학생역량 향상,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사업의 성과로 높게 인식한 반면,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확충, 학교 간 교류 활성화, 학부모 및 지역민의 교육활동 참여 증가,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낮게 인식하였다. 현재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학교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행복학교 기반 조성 및 일반화와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간의,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벽을 허물고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교육공동체 구성원에 상관없이 사업의 목표 영역뿐만 아니라 성과 영역 모두에서 행복학교가 일반학교보다 긍정적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학교의 수업혁신 및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등 단위학교 내부에서의 학교혁신 노력이 지역사회로까지 공교육 혁신을 확산하고자 한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함께 이루어질 때 그 상생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행복학교 위주의 일부 학교만이 참여하고 있어 사업의 성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행복교육지구 사업 지원이 일부 행복학교에 집중됨으로써 행복학교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일반학교 대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복학교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행복학교와 일반학교 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학교 간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김해 행복교육지구가 처한 상황이나 사업 운영의 어려운 점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의 성과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사업담당자와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마을교사) 및 관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집담회(FGI)를 실시하였다. 집담회를 통해 얻은 자료는 김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성과에 대한 양적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김해 행복교육지구 발전 전략뿐만 아니라 경남 행복교육지구 발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였다.

집담회 결과, 김해지구 사업의 성과(변화)로는 ① 학생역량 계발, ②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개선 및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증가, ③ 교육과정의 다양화, ④ 학생들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⑤ 학부모 및 지역민의 교육활동 참여 기회 마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사업의 한계로는 ① 교육청과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의 어려움 및 지자체의 소극적 지원, ② 담당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사업 철학 공유 및 유기적 협력의 어려움, ③ 행복교육지구 내 학교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미약, ④ 지역 교육자원 활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부족 및 기피, ⑤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 미흡, ⑥ 마을교사의 효율적 운영 및 활용의 제한성 등이 제시되었다.

김해지구를 포함한 경남 행복교육지구의 개선 방안으로는 ①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철학 공유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② 교육에 대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 개입 및 협력, ③ 마을교육공동체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④ 마을교사에 대한 역할 정립 및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및 집담회 결과를 종합하여 김해 행복교육지구의 발전 전략 및 경남 행복교육지구의 발전 방안을 제언하였다.

김해 행복교육지구 발전 전략으로는 ①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참여 유도, ②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 구축 및 효율적 지원, ③ 학교와 마을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제고 및 연수 강화, ④ 학부모 학교참여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 ⑤ 행복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및 학교 간 행복교육지구 성과 공유의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대상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설명회나 다양한 방식의 홍보 활동을 통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김해지구의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산재해 있는 교육적 자원, 특히 학부모나 재능기부자 등을 잘 조직화하여 학생들의 교육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장 및 교사들의 행복교육지구 사업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수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이해 및 행복교육지구 정책의 목적을 공유한다면, 교사는 학교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마을자원을 보다 교육적이고 알맞은 형태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적 참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부모 학교참여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학부모들의 학교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활동 자원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행복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및 학교 간 행복교육지구의 성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행복학교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행복학교와 일반학교 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학교 간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남 행복교육지구의 발전 방안으로는 ① 평가 및 환류 체계를 통한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② 행복교육지구 정책의 철학 공유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③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대책 마련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도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추진 계획」에 ‘평가 및 환류’ 계획을 포함하여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환류할 필요가 있다. 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 및 환류는 사업의 질 관리뿐만 아니라 행복교육지구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사업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다양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내실 있는 성과 관리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행복교육지구 정책의 철학 공유 및 지자체와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며, 도지사, 시장, 지자체 공무원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치단체장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교육지구 철학과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복교육지구 정책의 취지와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의 자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결국 행복교육지구 정책의 지속성 및 지역사회에서의 자생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행복교육지구 정책의 철학 공유 및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 속에서 지역사회와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실제적인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으로 귀결된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지원과 행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끊임없는 시행착오 및 경험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에 달려 있다. 또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예산에 따른 인력의 편성 및 지원, 획일적인 내용의 사업 추진보다는 그 지역의 요구에 실질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화(localization)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이 우리 지역의 관심사나 문제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목 차>

- I. 서론144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44
 - 2. 연구내용146
 - 3. 연구방법147

- II. 혁신(행복)교육지구 운영 현황 및 성과 분석 관련 선행연구 검토149
 - 1. 전국 혁신교육지구 운영 현황 분석149
 - 2. 경남 행복교육지구 추진 현황 및 특징 분석155
 - 3. 타시도의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가 계획 및 평가지표 분석165
 - 4.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성과 분석 관련 선행연구 검토170

- III.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 성과 분석172
 - 1. 공통 성과지표 구성172
 - 2. 설문조사 분석175
 - 3. 사업의 성과와 한계 및 개선 방안: 집담회(FGI) 분석239

- IV.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발전 방안254
 - 1. 김해 행복교육지구의 발전 전략254
 - 2. 경남 행복교육지구의 발전 방안258

- 참고문헌262
- [부록1] 학생용 설문지264
- [부록2] 교사용 설문지270
- [부록3] 학부모용 설문지277

- 표 목차 -

<표 I-1> 설문조사 대상자	148	<표 III-20>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_교사	196
<표 II-1> 2019년 전국 혁신교육지구 운영 현황 및 방향	150	<표 III-21> 학교만족도_교사	197
<표 II-2> 년도 별 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의 추진 개요	156	<표 III-22>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및 협력_교사	198
<표 II-3> 행복교육지구별 2019년 사업 추진 현황	159	<표 III-23>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_교사	199
<표 II-4> 김해 행복교육지구 연도별 예산	162	<표 III-24> 지역에 대한 이해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_교사	200
<표 II-5> 연도별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 현황	163	<표 III-25> 지역 특색교육 지원_교사	200
<표 II-6>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가 계획 개요	166	<표 III-26>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_교사	202
<표 II-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 기본 계획 개요	168	<표 III-27> 우리 지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속_교사	203
<표 III-1> 공통 성과지표 구성	173	<표 III-28>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확대_교사	204
<표 III-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75	<표 III-29> 학생과 교사 간 관계 개선_교사	205
<표 III-3> 수업혁신(수업개선)_학생	177	<표 III-30>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_교사	206
<표 III-4> 수업 외 활동_학생	178	<표 III-31> 교직원 간 소통문화 개선_교사	206
<표 III-5>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_학생	179	<표 III-32> 학교 간 교류 활성화_교사	207
<표 III-6> 학교만족도_학생	179	<표 III-33> 학생역량 향상_교사	208
<표 III-7> 학교수업과 지역사회 연계_학생	181	<표 III-34>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의 이해 제고_교사	209
<표 III-8>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_학생	182	<표 III-35> 학생의 지역공동체 의식 증가_교사	209
<표 III-9> 지역 특색교육 지원_학생	183	<표 III-36> 학부모 및 지역민의 교육활동 참여 증가_교사	210
<표 III-10> 지역교육공동체 의식_학생	183	<표 III-37>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제고_교사	211
<표 III-11> 자기관리 역량_자기주도성	186	<표 III-38>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증가_교사	212
<표 III-12> 자기관리 역량_진로성숙도	187	<표 III-39>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확충_교사	213
<표 III-13> 의사소통 역량_의사소통능력	188	<표 III-40> 마을학교 만족도_교사	216
<표 III-14> 공동체 역량_민주시민성	188	<표 III-41>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해결과제	217
<표 III-15> 마을학교 만족도	191	<표 III-42>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및 협력_학부모	218
<표 III-16> 마을학교 참여 유무에 따른 학생역량 및 지역공동체 의식에서의 차이 분석	192	<표 III-43>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_학부모	219
<표 III-17> 수업혁신(수업개선)_교사	194	<표 III-44> 지역 특색교육 지원_학부모	219
<표 III-18> 수업 외 활동_교사	195	<표 III-45> 지역공동체 의식_학부모	220
<표 III-19> 동료교사와의 관계_교사	195	<표 III-46>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_학부모	222

- 그림 목차 -

<표 III-47> 우리 지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속_학부모222
 <표 III-48>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확대_학부모223
 <표 III-49> 학생과 교사 간 관계 개선_학부모224
 <표 III-50>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_학부모225
 <표 III-51> 학교 간 교류 활성화_학부모226
 <표 III-52> 학생역량 향상_학부모226
 <표 III-53> 학교생활만족도 증가_학부모227
 <표 III-54>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의 이해 제고228
 <표 III-55> 학생의 지역공동체 의식 증가_학부모229
 <표 III-56> 학부모 및 지역민의 교육활동 참여 증가_학부모229
 <표 III-57> 학교와 사회의 소통 제고_학부모230
 <표 III-58>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증가_학부모231
 <표 III-59>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확충_학부모232
 <표 III-60> 마을학교 만족도_학부모235
 <표 III-61> 집담회 참석 대상자239
 <표 III-62> 집담회 조사 내용240

[그림 III-1] 사업의 목표_① 학교혁신(학생)180
 [그림 III-2] 사업의 목표_② 지역교육공동체 구축(학생).....184
 [그림 III-3] 사업의 성과_학생역량 계발189
 [그림 III-4] 마을학교 인지 여부 및 참여 경험190
 [그림 III-5] 사업의 목표_① 학교혁신(교사)197
 [그림 III-6] 사업의 목표_②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교사).....201
 [그림 III-7]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성과 인식_교사214
 [그림 III-8]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성과 인식_일반학교 교사 vs 행복학교 교사214
 [그림 III-9] 행복교육지구 및 마을학교 인지 여부_교사215
 [그림 III-10] 사업의 목표_① 지역교육공동체 구축(학부모).....221
 [그림 III-11]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성과 인식_학부모233
 [그림 III-12]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성과 인식_일반학교 학부모 vs 행복학교 학부모233
 [그림 III-13] 행복교육지구 및 마을학교 인지 여부_학부모23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은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서 이뤄지는 광범위한 활동과 연결된다. ‘마을이 곧 학교’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또한 ‘학교 안 마을학교’, ‘학교 밖 마을학교’가 내포하는 것처럼, 이제 교육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단순히 연계하는 차원이 아닌 마을과 함께 교육을 고민하는 수준으로까지 개념이 확장되어 마을 내 다양한 자원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교육(삶)과 삶을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민, 2019).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시작된 것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 단위에서 진행된 혁신학교를 지역 단위로 확산하여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다(최창의 외, 2016). 또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교육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뿐만 아니라 학교와 마을과의 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개념과 함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양병찬, 2018).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1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하여 지역별로 사업 명칭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경남에서는 ‘행복교육지구¹⁾’라는 이름으로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김해 행복교육지구를 시작으로 2018년 밀양, 양산, 남해 지역이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되었고, 2019년에는 고성, 사천, 진주, 하동의 4개 지역이 더해져 현재 총 8개의 행복교육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함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학교협력형 마을학교²⁾와 행복마을

학교³⁾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학교협력형 마을학교 15개와 1개의 행복마을학교가 별도로 운영 중에 있다.

공교육 혁신을 위해 행복학교 및 행복교육지구, 그리고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사업의 양적 확산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양적인 확산 노력에 더하여 사업이 원래의 취지 및 목표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구별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등 사업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실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하는 작업을 통해 사업의 질 관리를 제고해 나가는 것이다.

김해 행복교육지구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한 지구로 2년 지정의 사업을 끝마치고 현재 3년째 운영 중이다. 남해, 밀양, 양산을 포함한 2기 지구의 사업 운영도 2019년으로 2년간의 사업이 마무리된다. 따라서 행복교육지구의 2년 동안의 사업 성과를 진단하고, 이러한 객관적인 진단 결과를 기초로 하여 발전 방안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초기 구축 단계로 도교육청의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지역에 상관없이 지구별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비슷했다면 이제는 사업의 정착 단계로 접어든 만큼 지구별 지역 특성에 맞는 행복교육지구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구별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교육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고민해 볼 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2년간의 사업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김해 행복교육지구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김해지구의 상황 및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경남 행복교육지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1)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경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마을학교로, “학교와 지역사회 마을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마을학교”를 말한다.

3) “청소년과 지역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행복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마을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형 배움터”를 말한다.

2. 연구내용

가. 전국 혁신교육지구 운영 현황 분석

2019년 현재 혁신(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시도의 운영 지구 수, 사업 비전 및 목표, 중점 추진과제, 조례 제정 등을 중심으로, 혁신교육지구 운영 현황 및 사업의 추진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나. 행복교육지구 추진 현황 및 특징 분석

행복교육지구 운영계획서에 포함된 추진과제 및 추진내용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의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 현황 및 경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경남의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된 8개 지구의 2019년 행복교육지구 운영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행복교육지구별 사업 추진 현황 및 지구별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다. 타시도의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가 계획 및 평가지표 분석

경남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성과지표를 구성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타시도의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가 계획 및 평가지표를 분석하였다.

라. 경남 행복교육지구 공통 성과지표 구성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비전과 추진목적, 년도 별 중점 추진과제 및 추진내용, 그리고 타시도 혁신교육지구 평가지표 및 성과 분석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여 행복교육지구 공통 성과지표 영역을 구성하였다.

마. 김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성과 분석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성과지표를 활용한 설문조사와 사업담당자 및 관내 교사, 마을활동가 대상의 집담회를 실시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김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성과를 분석하였다.

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발전 방안 제언

김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김해 행복교육지구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김해 행복교육지구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해 행복교육지구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한 만큼 경남 행복교육지구의 발전 방안을 제언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혁신(행복)교육지구 사업 및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타시도 및 경남 혁신(행복)교육지구의 연도별 사업 운영 계획서, 김해 행복교육지구의 연도별 사업 운영 계획서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만든 다양한 정책 문서 및 자료들을 검토·분석하였다.

또한 경남 행복교육지구 운영 성과 분석을 위한 공통 성과지표를 구성하기 위해, 타시도의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가 계획 및 평가지표 자료를 분석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나. 전문가 협의회

본 연구에서는 김해 행복교육지구 성과 분석뿐만 아니라 이후 2년간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다른 지구의 성과 분석을 위해 또한 종단적 관점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의 연차별 성장을 살펴보기 위해 공통 성과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에 공통 성과지표 및 하위지표를 구성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행복학교 및 행복교육지구 업무 담당자들과 여러 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다. 설문조사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2017년 1차연도에는 내외동 및 원도심 중심의 초·중·고 33교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2018년 2차연도부터는 김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해 전 지역의 초·중등학교 학

<표 I-1> 설문조사 대상자

구분		초	중	고
김해시 (전체)	학교 수	58	32	23
	학생 수	35,453	17,388	17,757
조사 대상자	학생	5, 6학년 각 1개 학급	1, 2, 3학년 각 1개 학급	1, 2학년 각 1개 학급
	교사	조사대상 학교의 재직 교원 전체		
	학부모	학생 설문 대상자의 학부모		

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표 I-1> 참조). 설문조사 내용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공통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을 통해 나타난 변화나 현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문항, 그리고 구성원들의 사업 성과에 대한 인식 등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구체적인 설문조사 내용은 II장의 성과지표 구성 참고).

라. 집담회(FGI)

김해 행복교육지구가 처한 상황이나 사업 운영의 어려운 점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의 성과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계획·운영하고 집행하는 사업담당자와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마을활동가(마을교사) 및 관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집담회(FGI)를 실시하였다.

집담회는 마을활동가 4명, 사업담당자 4명, 그리고 관내 초·중 교사 4명을 한 집단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주요 질문 내용은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인해 나타난 변화 및 사업의 성과, 사업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행복교육지구 발전 방안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였다. 집담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의 실태 및 양적 설문조사 분석에 대한 해석, 그리고 김해지구의 발전 전략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II. 혁신(행복)교육지구 운영 현황 및 성과 분석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전국 혁신교육지구 운영 현황 분석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1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업 명칭과 사업목적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있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 사업을 통해 본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지향점이나 교육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협치(協治)를 통한 협육(協育)’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은 어느 지역이나 대동소이하다 할 수 있다(최창의 외, 2016).

2019년 현재 전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현황을 운영 지구 수, 사업 비전 및 목표,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II-1>과 같다. 2019년 현재 전국 18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명칭은 다르지만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서울, 충북, 전남의 3개 지역은 모든 시·군·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경기도도 2020년에는 모든 자치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11개 시도 중 서울, 인천, 경기에는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사업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지역에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표 II-1>의 전국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비전 및 목표,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비전 및 목표가 공교육 혁신을 넘어 점차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방향 및 내용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광주광역시 경우,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충남의 경우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체제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경우 혁신교육지구 시군 I까지 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설정되었던 ‘혁신교육 일반화’가 빠지고, 시군 II부터는 사업의 방향이 지역사회로 확장되어 지역(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쪽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 2019년 전국 혁신교육지구 운영 현황 및 방향

지역	명칭	운영 지구 수	비전	목적/목표	중점 추진과제	비고
서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운영 -(2013) 구로구, 금천구 시범 운영 -(2015) 11개 자치구 -(2016) 20개 자치구 -(2017) 22개 자치구 -(2019) 25개 자치구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마을교육공동체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를 통한 자치구별 특성이 살아가는 마을교육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필수과제와 '필수사업은 없으며,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 기본방향 -유기적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 구축 운영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배움과 심을 위한 마을활동 지원체제 강화 -어린이·청소년 자치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시교육청, 2016)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시, 2017)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 •11개 자치구(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성북구, 종로구)가 지역구별 조례를 제정 (2017.12.31. 기준) *금천구는 금천구 교육발전지원 조례를 준용
부산	다행복교육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7개 지구 운영 /16개 (15구, 1군) -(2018) 사하구, 영도구, 동구, 북구, 사상구 -(2019) 연제구, 부산진구 	행복합니다,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행복교육지구 내 모든 학교의 학교문화 혁신 기반 조성 •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교육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과제 -부산다행복학교 성과 일반화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역협력 교육인프라 구축 •지역특화과제 -지역특화 교육브랜드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8)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2017)

지역	명칭	운영 지구 수	비전	목적/목표	중점 추진과제	비고
인천	교육혁신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지구 운영 /10개 (8구, 2군) -(2015) 남구(미추홀구) -(2017) 계양구, 부평구, 중구 -(2019) 서구, 연수구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행복한 인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맞춤형 지원을 통한 교육공동체 만족도 향상 및 지역발전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형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학교교육 지원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관학 협력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과제 -마을-학교 연계 사업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운영 •지역특화사업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기타 마을의 특색을 살린 지역 특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8)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8)
광주	광주마을교육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 빛고을혁신교육지구(광산구)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광주마을교육공동체로 변경 	아이들의 꿈과 역량이 살아나는 마을교육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 지자체, 학교, 지역 사회와의 교육협력력을 통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지역사회에 형성된 다양한 교육 인프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및 운영을 통한 마을공동체의 교육적 기능 회복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및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진로에 대한 주체적 역량 제고 •관계 형성을 통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도모 및 학교 밖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내실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행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2015)

지역	명칭	운영 지구 수	비전	목적/목표	중점 추진과제	비고
				배움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 •책지역과 연계되는 혁신교육의 외연 확대 및 내실화		
대전	대전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5개 자치구 모두 운영 -(2018) 대덕구 -(2019) 유성구, 동구, 중구, 서구	배움이 행복하고 성장이 즐거운 같이행복교육	•마을과 학교가 연계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공교육 혁신 지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마을에서 실천하는 앞과 삶이 통합되는 미래형 대전교육 실현 •마을과 학교 간 상호작용으로 마을교육공동체운영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지역특색 교육과정 운영 •학교-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활성화 •혁신교육지구 시군III 모델 개발 및 준비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1)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6)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2019)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2015)
경기	혁신교육지구 시군III	•27개지구 운영/37개시군 *2020년 연천, 파주, 하남, 남양주 추가 참여 예정 -혁신교육지구 시군III (2011.3~2016.2) 광명, 구리, 시흥, 안양, 오산, 의정부 -혁신교육지구 시군III (2016.3~2021.2) 화성, 안산, 군포, 부천, 고양, 안성, 여주, 의왕, 성남, 동두천, 가평, 수원, 양평, 이천, 포천, 과천, 광주, 김포, 양주, 용인, 평택	학생과 학교, 주민과 지역이 함께 행복한 교육실현	•함께 만드는 지역특색 교육도시모델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지역특색 교육과정 운영 •학교-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활성화 •혁신교육지구 시군III 모델 개발 및 준비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1)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6)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2019)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2015)

지역	명칭	운영 지구 수	비전	목적/목표	중점 추진과제	비고
강원	행복교육지구	•12개지구 운영/18개시군 -(2016) 태백, 화천 -(2018) 원주, 영월, 정선, 철원, 인제 -(2019) 속초, 삼척, 홍천, 평창, 양구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행복한 아이를 키워내는 학교-마을교육공동체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 •배움과 돌봄의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소통 협력체제 구축	•필수과제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 구축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 -혁신교육 문화 확산 •지역특화사업 -행복교육지구 핵심모델 사업 -기타 지역 및 학교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사업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충북	행복교육지구	•총 17개시군 전지역 운영 -(2017)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진천, 괴산, 음성, 증편 -(2018) 청주, 영동, 단양	마을은 아이를 품고 아이는 자라서 마을을 품는다. 행복한 충북교육	•정주여건 강화, 행복마을 조성 •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육성	•중점사업 -지역 교육생태계 조성 사업 -지역 교육공동체 사업 •지역특화사업 -지역 교육협업체 사업	•충청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2018)
충남	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체제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행복교육지구 운영)	•12개지구 운영/15개시군 -(2016) 아산, 논산, 당진 -(2017) 부여, 서천, 청양 -(2018) 공주, 홍성, 예산 -(2019) 천안, 보령, 서산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공교육 혁신 지원과 마을 교육 활성화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마을교육생태계 조성	•공교육 혁신 지원 •마을교육 활성화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	•충청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2018)
전북	마을교육생태계 (혁신교육특구)	•6개지구 운영/14개시군 -(2015) 전주, 정읍, 남원, 완주 -(2017) 익산 -(2019) 군산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생애주기별 지역교육문화 만들기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마을교육생태계 구축 활성화를 위한 주제별 역할 찾기	•지역(시·군·별) 여건에 따른 세부 추진 전략의 차별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역할 구분에 따른 협력 •주민(시민)의 주도적, 자발적 참여에 따른 거버넌스 환경 구축 •교육(혁신, 농어촌)특구, 방과후 마을학교와 연계 운영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지역	명칭	운영 지구 수	비전	목적/목표	중점 추진과제	비고
전남	전남혁신학교 교육지구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22개 시군 모두 운영 -(2013) 장흥 -(2014) 영광, 장성 -(2015) 나주, 곡성, 고흥 강진, 영암, 함평 -(2016) 여수, 광양, 담양, 화순, 해남, 무안 -(2018) 순천, 보성, 진도, 신안, 목포, 완도, 구례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소통과 협력의 지역교육 공동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혁신학교 성과 확산과 일관성을 위한 체계 구축 •교육 거버넌스 구축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시군 단위 자율혁신학교 지정 및 유·초·중·고 연계 교육혁신 운영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활동 강화	
경남	행복교육지구	•8개 지구 운영/ 18개 시군 -(2017) 김해 -(2018) 밀양, 양산, 남해 -(2019) 진주, 사천, 고성, 하동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소통과 협력의 지역교육 공동체	•행복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교육 혁신의 기반 조성 및 행복학교 확산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지역별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의 균형적 발전 도모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행복교육지구 기반 조성 •행복학교 일반화 •마을학교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출처: 타 시도별 「2019. 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2. 경남 행복교육지구 추진 현황 및 특징 분석

가.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 현황

경남에서는 2017년부터 행복학교 확산 및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2017년 김해 행복교육지구를 시작으로 현재 3년 차에 접어들었다.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추진 현황 및 경과를 살펴보면(<표 II-2> 참고), 사업의 비전은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과 소통과 협력의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으로 변함이 없다. 사업의 추진목적 또한 변화된 내용 없이 일관되게 ‘공교육 혁신의 기반 조성 및 행복학교 확산,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의 균형적 발전,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비전 및 추진목적은 통해 알 수 있듯이, 경남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크게 행복학교 성과를 바탕으로 한 ‘행복학교(혁신교육) 확산’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연도별 중점 추진과제 및 추진내용은 아래 <표 II-2>에 제시한 것처럼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추진내용이 조금씩 변화·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에는 사업 운영의 첫해인 만큼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교육자치 기관인 교육청과 일반자치 기관인 지자체와의 교육을 매개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이 진행될수록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또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 내용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2> 년도 별 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의 추진 개요

비전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 소통과 협력의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교육 혁신의 기반 조성 및 행복학교 확산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지역별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의 균형적 발전 도모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년도 별 추진 과제 및 추진 내용	2017년	2018년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교육거버넌스 구축 행복교육지구 위원회 구성·운영 행복교육지구 위원 역량 강화 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행복교육지구 위원회 운영 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평화로운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교육지구 기반 조성 행복교육지구 위원회 운영 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평화로운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학교 기반 조성 행복교육 네트워크 구성·운영 전문적 학습공동체 문화 조성 학교장 교육정책 파트너십 강화 교육과정 지원 인력 배치 마을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학교 기반 조성 행복교육 네트워크 운영 행복한 학습공동체 문화 조성 마을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학교 일반화 행복교육 네트워크 운영 행복한 학습공동체 문화 조성 마을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학교 운영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 지역중심 마을학교 운영 마을학교 성과발표회 마을학교 학교장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학교 운영 학생중심 마을학교 운영 지역중심 마을학교 운영 지역사회 마을교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학교 운영 지역특색을 살린 다양한 마을학교 운영 지역사회 마을교사 양성 마을교사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교육공동체 기반 조성 지역사회 마을교사 양성 지역사회 학습공동체 구축 현장체험학습 지원 시스템 운영 진로직업 체험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조성 지역민과 함께하는 마을 교육공동체 운영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지역 교육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조성 지역민과 함께하는 마을 교육공동체 운영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지역 교육력 향상

출처: 2017, 2018, 2019년 행복교육지구 추진 계획 참조

나. 행복교육지구별 사업 추진 현황 및 특징 분석

경남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2017년 김해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밀양, 양산, 남해의 3개 지역이, 2019년에는 진주, 사천, 고성, 하동의 4개 지역이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18개 시·군 중 8개 지역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8개 지역의 「2019년 행복교육지구 운영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행복교육지구별 사업 추진 현황 및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II-3>과 같다.

지구별 예산을 살펴보면, 사업 운영 3년 차인 김해지구가 김해교육지원청과 김해시청이 각각 5억을, 교육부의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3억의 국비를 포함하여 총 13억으로 가장 많다. 양산지구가 8억, 나머지 지구는 모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각각 3억씩 투자하여 총 6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별 인력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행복교육지원센터에 상주하는 인력은 대개 교육청 소속 장학사 1명과 교육공무원 1명, 지자체 소속 공무원 1명, 그리고 파견교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밀양을 포함한 남해, 사천, 고성, 하동의 5개 지구는 행복교육지구 업무를 겸임으로 하는 장학사가 배치되어 있다.

지구별 「2019년 행복교육지구 운영 계획」에 포함된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내용은 크게 전반적인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예: 행복교육지구 기반조성,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행복학교 일반화를 위한 학교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예: 행복학교 일반화, 행복한 학교만들기), 그리고 다양한 마을학교 운영을 통한 마을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예: 마을학교 운영, 행복한 마을 만들기,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경남 행복교육지구는 도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추진 계획」에 행복교육지구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의 추진내용 중 하나로 ‘평화로운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처음 추진한 김해지구를 포함하여 양산, 남해, 진주, 사천지구는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김해지구의 경우 사업 3년 차인 만큼 김해 및 장유

지역에 학생자치형 마을학교인 행복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로 꿈꾸고 스스로 기획·도전하여 꿈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행복마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밀양지구의 경우는 특색사업인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토론문화 확산’과 관련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자치·토론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해지구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마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마을학교 운영을 점진적으로 위탁하기 위해 권역별 마을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또한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학교 운영’이라는 특색사업에 맞게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보물섬형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다.

사천지구는 항공우주산업 도시라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을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통한 특색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천지구는 사천행복교육지구를 ‘미래교육을 위한 마을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통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는 마을교육공동체’로 정의하고, 미래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및 메이커 교육을 위한 프로젝트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최근 지자체와 연계를 통해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마을학교를 통한 지역돌봄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사천지구에서는 ‘사천 보듬이 돌봄교실 운영’을, 하동지구에서는 ‘우리 아이 보금자리 운영’ 사업을 통해 학교와 마을공동체가 협력하여 틈새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복교육지구 운영 계획」에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한 지구는 진주, 사천, 고성 3개 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1년간의 사업 운영 내용과 과정을 평가하고 이를 차기 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질 관리뿐만 아니라 지구별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표 II-3> 행복교육지구별 2019년 사업 추진 현황

구분	김해	밀양	양산	남해	진주	사천	고성	하동
영역 연차	3년 차	2년 차	2년 차	2년 차	1년 차	1년 차	1년 차	1년 차
예산	약 13억 교육장: 5억 지자체: 5억 *교육부: 3.3억	6억 교육장: 3억 지자체: 3억	8억 교육장: 4억 지자체: 4억	6억 교육장: 3억 지자체: 3억	6억 교육장: 3억 지자체: 3억	6억 교육장: 3억 지자체: 3억	6억 교육장: 3억 지자체: 3억	6억 교육장: 3억 지자체: 3억
인력 배치	7명 장학사(1) 교육행정직(1) 파견교사(2) 지자체인력(1) 학습연구년교사(2)	6명 장학사(1) 교육행정직(1) 파견교사(1) 지자체인력(1) 학습연구년교사(2)	7명 장학사(1) 교육행정직(1) 파견교사(2) 지자체인력(1) 학습연구년교사(2)	5명 장학사(1) 교육행정직(1) 파견교사(1) 지자체인력(1) 학습연구년교사(1)	7명 장학사(1) 교육행정직(1) 파견교사(2) 지자체인력(1) 학습연구년교사(2)	5명 장학사(1) 교육행정직(1) 파견교사(1) 지자체인력(1) 학습연구년교사(1)	5명 장학사(1) 교육행정직(1) 파견교사(1) 지자체인력(1) 학습연구년교사(1)	5명 장학사(1) 교육행정직(1) 파견교사(1) 지자체인력(1) 학습연구년교사(1)
특색 사업	교직원·학생·지역민이 함께 만드는 김해행복교육도시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토론문화 확산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역과 함께하는 특색 있는 마을학교 운영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마을학교 운영	마을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통한 한 꿈 프로젝트	권역별 마을학교, 놀이터, 도서관 운영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교육과정 운영
세부 사업 내용	■행복교육지구 기반조성 김해행복교육지구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김해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평화로운 마을공동체 조성(학부적 학교·민들기) ■행복학교 일반화 김해행복교육 네트워크 구성·운영 행복한 학습공동체 운영 행복교육지구 연계 운영	■밀양교육공동체 구축 밀양행복교육지구 운영 위원회 운영 밀양행복교육지구 추진 위원회 운영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행복교육지원단 운영 홍보 및 성과 나눔 권역별 행복교육 네트워크 구성·운영 행복한 학습공동체 운영 행복교육지구 연계 운영	■행복한 지역민들기 양산행복교육지구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권역별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행복교육지구 거점 학교 운영 평화로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학교폭력예방 기관과의 협력	■보물섬 교육공동체 구축 보물섬 행복교육지구 운영 위원회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행복교육지구 홍보 ■마을협동조합 육성 보물섬 별빛학교 운영 (평화로운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지원) 행복교육 포럼 ■행복학교 기반 조성 행복학교 간 행복교육	■행복교육지구 기반 조성 행복교육지구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천행복교육지구 참여 인력 강화 연수 사천행복교육지구 사전 설명회 권역별 운영 사천행복교육지구 컨설팅단 및 모니터팀단	■사천교육공동체 구축 경남행복교육지구 운영 위원회 참여 사천행복교육지구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사천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천행복교육지구 참여 인력 강화 연수 사천행복교육지구 사전 설명회 권역별 운영 사천행복교육지구 컨설팅단 및 모니터팀단	■고성교육공동체 구축 행복교육지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행복교육지구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학교단위 마을원탁 회의의 구축 및 운영 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행복교육지구 행정업무 협의의 정례회 행복교육지구 홍보를 위한 설명회, 포럼, 나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하동행복교육지구 운영 위원회 조직 및 운영 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행복학교 기반 조성 행복교육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행복한 학습공동체 지원사업 운영 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원

다. 김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현황 분석

김해 행복교육지구는 2017년 경남교육청과 김해시의 협약으로 경남 도내에서는 처음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되어 2019년 현재 3년째 운영 중에 있다.

<표 II-4>에 제시한 것처럼, 2017년 1차연도에는 김해 내외동 중심의 일부 지역에서만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8년부터 김해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8년 교육부의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⁴⁾에 선정되어 2019년 현재 총 13억으로, 경남 도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표 II-4> 김해 행복교육지구 연도별 예산

연도	대상	예산(천원)
2017년 (1차연도)	김해 내외동 및 원도심 중심의 초·중·고 33교	총 452,142 김해교육지원청: 252,142 김해시청: 200,000
2018년 (2차연도)	김해 내외동, 원도심 및 김해 전 지역 확대	총 655,076 김해교육지원청: 355,076 김해시청: 300,000
2019년 (3차연도)	김해 내외동, 원도심 및 김해 전 지역 확대	총 1,335,555 교육부: 335,555 김해교육지원청: 500,000 김해시청: 500,000

출처: 김해 행복교육지구 내부자료

김해 행복교육지구의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은 <표 II-5>와 같다. 2019년 현재 김해 행복교육지구에서는 4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 가운데 김해지구의 대표적인 사업 추진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센터형 마을학교인 김해·장유 행복마을학교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나가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활동

4) 교육부가 혁신교육지구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일반자치 협력 체계화를 통해 풀뿌리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표 II-5> 연도별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 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 지역 교육거버넌스 구축 -김해행복교육지구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김해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김해행복교육지구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김해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평화로운 마을공동체 조성	• 행복교육지구 기반 조성 -김해행복교육지구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김해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평화로운 마을공동체 조성
• 행복학교 기반 조성 -김해행복교육 네트워크 구성운영 -행복한 학습공동체 문화 조성 -행복교육 정책파트너십 강화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교육과정 운영 -원도심학교 살리기	• 행복학교 기반 조성 -김해행복교육 네트워크 구성운영 -김해시와 함께하는 행복한 학습공동체 운영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교육과정 운영	• 행복학교 일반화 -김해행복교육 네트워크 구성운영 -김해시와 함께하는 행복한 학습공동체 운영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교육과정 운영 -행복교육지구 연구회 운영 -원도심학교 살리기
• 마을학교 운영 -학생중심의 마을학교 운영 -지역중심의 마을학교 운영 -마을학교 나눔마당 -마을학교 학교장 역량 강화 연수	• 마을학교 운영 -학생중심의 마을학교 운영 -지역중심의 마을학교 운영 -지역사회 마을교사 협의체 운영 -원도심학교 살리기	• 마을학교 운영 -학생중심의 마을학교 운영 -놀이중심의 마을학교 운영 -지역중심의 마을학교 운영 -김해(장유) 행복마을학교 운영 -지역사회 마을교사 양성 및 협의회 운영
• 지역교육공동체 기반 조성 -현장체험학습 지원시스템 운영 -진로직업 체험교육 활성화 -지역사회 마을교사 양성 -회복적 도시 만들기	• 행복교육지구 활성화 -현장체험학습 지원시스템 운영 -지역교육공동체 토론회 개최 및 컨설팅단 운영 -행복교육지구 어울림 한마당 축제	•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창의체험학습 지원시스템 운영 -행복교육지구 거점학교 운영 -김해 토론단 및 컨설팅단 운영 -행복교육지구 어울림 한마당 축제

출처: 2017, 2018, 2019년 김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계획 참조.

을 지원하고 있다. 김해·장유 행복마을학교는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미래형 배움터로, 청소년과 지역민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운영한다. 김해 행복마을학교에

서는 초등학교 대상 ‘나비’ 프로젝트, 주말에는 중고등학교 대상 ‘날다’ 프로젝트를 통해 제과·제빵, 커피·음료, 공예, 마을기자단, 청소년극단, 음악, 3D프린터 등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유 행복마을 학교에서는 ‘기린’ 프로젝트를 통해 장유 지역의 다양한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꿈키움 마을학교를 통해 중고등학생의 자율동아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꿈키움 마을학교는 방과후(토,일 포함)에 학생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프로젝트(과제)를 정해 친구들(3명 이상)과 함께 활동하도록 지원한다. 이때 마을학교 운영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프로젝트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활동비, 활동비를 도와줄 마을교사의 지원(강의, 강습, 안내,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김해지역 내 작은도서관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 연계 마을학교와 신나놀Go! 마을놀이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김해행복교육지원센터는 매년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강좌를 열어 지역 학부모들이 놀이로 마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연수를 제공하고 있다. 놀이 중심의 마을학교는 ‘놀이로 크는 우리 아이’라는 학부모 놀이 선생님 양성 과정을 이수한 학부모들이 ‘신나놀Go’라는 놀이공동체를 만들어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둘째, 평화로운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회복적 학교 및 비폭력 대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복적 학교 만들기를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및 지역민 대상 회복적 마을교사 양성 연수, 평화로운 마을공동체 거점학교 추진, 학생 대상 비폭력 대화 프로그램(스마일키피스)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셋째,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김해행복교육지구 토론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토론추진단에서는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민 대상의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행복교육지구별 사업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마을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넷째, 현장체험학습 지원시스템을 통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체험활동 및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및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타시도의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가 계획 및 평가지표 분석

가. 경기 혁신교육지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해 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가는 2년 주기로 평가하되, 평가는 크게 도교육청 차원에서 실시하는 종합평가와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구분된다.

2012년에 실시한 첫 종합평가에서는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공동체적인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한 효과성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 평가 영역은 ‘기초지자체와의 행·재정적 협력, 지역혁신교육협의회 운영, 사업목표 달성도, 학교혁신 기여도, 지역특성화 사업 운영, 사업 만족도’ 영역의 6가지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학부모), 지역혁신교육협의회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현장실사 평가와 지구별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자체평가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종합평가 결과는 사업 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사업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 결과가 각각의 혁신교육지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발전 전략으로까지 제시되지 못한 점과 의도하지 않게 혁신교육지구 간의 서열화로 이어지면서 평가의 실효성에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4년 종합평가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각각의 혁신교육지구가 갖는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되 서열화할 수 있는 요소는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발달 상황이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교사, 학부모들의 인식을 드러냄으로써 각각의 지구가 처해 있는 위기와 기회 요인을 분석하여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부합하는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구별 자체 SWOT 분석, 각각의 혁신지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FGI 실시 등을 활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백병부 외, 2014).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시작된 혁신교육지구 시즌 II에서는 사업의 질 관리를 위해 시즌 I 평가와는 달리 2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하되, 평가를 위한 데

이터는 1년 주기로 수집하여 종단적인 관점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성장을 평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혁신교육지구 운영 성과에 대한 수평적 분석 및 종단적 관점에서 사업 운영의 연차별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공통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공통지표를 활용한 경기도교육청의 「2018년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가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6>과 같다.

혁신교육지구 운영 성과는 종단연구의 관점에서 공통지표를 활용하여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성과 평가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2년 단위로 실시하는 종합평가와 혁신교육지구별 매년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구분된다. 종합평가는 모든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현황과 성과에 대한 수평적 분석을 위해 공통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공통 성과지표 영역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별로 각각 공통지표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여 성과를 분석한다. 자체평가는 혁신교육지구별 자체 계획에 따라 혁신교육지구별로 추진하는 세부사업에 따라 개별지표를 개발·활용하여 성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평가결과들을 종합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혁신교육지구의 전체적 경향성, 연도별 만족도 변화, 기타 세부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종합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 2년 단위로 실시하는 종합평가는 정책 연구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차기년도 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 수립 및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컨설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표 II-6>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가 계획 개요

구분	내용
평가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교육지구별 상황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 모색 2016년에 개발한 혁신교육지구 성과 평가 공통지표로 조사·분석하여 혁신교육지구의 성과와 발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혁신교육지구 운영 주체의 자체평가로 사업 전반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지구별 성장 과제 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우수사례 발굴·공유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속 및 확대 여부 판단을 위한 검토자료로 활용 혁신교육지구 컨설팅 기초자료로 활용

구분	내용				
	구분	주체	영역	대상	결과 분석
평가 영역 및 대상	설문 조사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공통지표 영역	교직원/학부모/학생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통계연구소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 개별지표 영역	교직원/학부모/학생	
자체 평가	혁신교육지구	지구별 현황 및 운영 평가	혁신교육지구 (교육지원청, 지자체)		혁신교육지구
평가 지표	• 공통지표				
	대상	교원	학생	학부모	
평가 결과 활용	공통 지표 영역	사업의 목표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참여 향상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인식 사업의 성과에 대한 인식 학교에 대한 인식	사업의 목표 학교에 대한 인식 정의적 발달	사업의 목표 사업에 대한 이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인식	
		• 개별지표 - 혁신교육지구별로 추진하는 세부사업에 따라 개별지표 개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사업의 일반화 및 지구별 사업에 대한 컨설팅 자료로 활용 사업별 운영방식에 대한 컨설팅 및 차년도 사업 구성에 반영 혁신교육지구 질 제고 및 발전방안 모색 혁신교육지구 지속 및 확대 여부 판단 자료로 활용 					

출처: 경기도교육청(2018.10.). 2018년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가 계획.

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기본 계획」에 ‘평가 및 환류’ 계획을 포함하여 사업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혁신교육지구 지구별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체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발전 방향 제시 및 우수사례 발굴,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8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 기본 계획」에 포함된 평가 계획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II-7>와 같다. 종합평가 방식은 2년간의 운영 내용과 과정 등에 대한 절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지구별 자체평

가를 기본으로 한 정성평가보고서 및 운영 현황조사, 그리고 중앙평가단이 해당 지구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심층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지구별로 제출하는 운영 현황 및 만족도 조사 자료는 정성평가보고서 내용 이해 및 심층면담 평가의 기초자료로만 활용한다.

지구별로 시행하는 자체평가의 공통 평가영역은 ‘학교-마을 연계 학교교육과정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아동·청소년 자치활동 운영,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지역특화사업 운영, 예산 집행의 적절성, 중앙단위 지원조직 운영 효율성’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중앙단위 지원조직 운영 효율성 영역을 제외한 6개 영역에서는 4개의 평가항목인 ‘사업내용, 사업과정, 성과와 과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세부사업별(프로그램별)을 평가하고 정성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중앙단위 지원조직 영역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사업집행팀, 중앙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중앙단위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지원조직 측면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별 자체평가를 기본으로 한 정성평가보고서와 지구-평가단 심층면담을 통한 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 결과는 차기 년도 각 지구별 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에 반영하며, 지구별 비전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활용한다.

<표 II-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 기본 계획 개요

구분	내용
평가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발전방향 제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개선점 도출 및 개선 방안 마련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의 근거 마련
평가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전(全) 과정에서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를 기본으로 운영함(※ 각 지구별로 민·관·학 참여 ‘지구별 평가위원회’ 15명 이상 구성 권장)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대평가, 지구별 심층평가(※ 지구 간 상호평가 없음) 정성평가: 정성평가보고서 및 심층면담 실시, 정량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심층면담: 지구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정성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지구-평가단 면담형식’으로 운영(지구별 방문)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정성평가보고서 내용 이해 근거 및 심층면담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시의회 등 각종 보고 자료로 활용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평가영역별 필요한 항목 방법: 교육청에서 별도의 온라인 사이트 구축→ 지구별 자료 입력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별 자체평가(평가 개요 및 총평 포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영역: 6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영역: 학교-마을연계 학교교육과정 운영 2영역: 마을교육공동체 운영(마을방과후활동 포함) 3영역: 아동·청소년 자치활동 운영 4영역: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및 활성화 5영역: 지역특화사업 운영 6영역: 예산 집행의 적절성 평가항목(정성평가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운영 내용 과정: 사업의 기획 및 추진단계에서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작동 방식 성과와 과제: 변화 정도, 성과, 향후 개선할 사항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 중 지속 또는 확대해야 할 사업 프로그램별(사업별) 만족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별 자체 실시(내용과 방식은 지구 자율) → 조사 결과는 교육청으로 제출 거버넌스 관련 만족도 조사는 교육청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실시 중앙단위 지원조직 및 사업운영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사업진행팀, 중앙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실행추진단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술형: 지구별 정성평가보고서 내 서술형으로 기술(정성평가보고서 7영역) 만족도 조사: 실무협의회 후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등 심층면담: 지구대표와 중앙조직 간담회 실시
평가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 지구별 운영계획 수립 등 평가-계획 연계성 확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2단계 도약을 위한 지구별 비전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를 통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상반기 혁신교육지구 전체 워크숍 시 평가내용 공유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2018.9.), 2018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 기본 계획.

4.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성과 분석 관련 선행연구 검토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민·관·학 거버넌스의 실질적 단초 구축, 공교육 혁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실천적 대안 모색, 교육의 패러다임 확장 및 학교 밖으로 확장된 다양한 교육과정, 지역 교육자원 발굴 및 조직화, 지역 교육역량들의 상호신뢰 강화, 지역공동체성 회복의 계기 마련 등 의미 있는 성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강민정, 2015; 강민정·안선영·박동국, 2018).

성열관과 이형빈(2013)은 경기도의 구로·금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협력교사제 운영으로 교육과정 혁신과 수업혁신, 생활지도 혁신의 토대가 구축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지역연계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었으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지역사회와 단위학교의 유기적인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즉 기존의 교육정책은 대체로 단위학교 차원의 개별적인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사업 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다른 학교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데 비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실제 집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단위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단위학교 차원의 혁신을 넘어 지역 차원의 실천을 통해 지역 내 학교혁신의 일반화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별 편차가 존재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래 목적과는 다른 형태로 사업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혁신교육의 철학과 지향점을 공유하려는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백병부 외(2014)는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시군 I 사업(2011.3.~2016.2.)의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기초로 2016년 이후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언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자녀들의 학교생활만족도와 실력이 향상되고 학부모의 학교참여 기회와 지역사회 자

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이 증가하였으며, 학교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경우에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공교육 혁신과 학생의 역량 계발 및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사업의 주요 목표였던 혁신교육의 일반화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반면 또 다른 목표였던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2016년부터 시작되는 시군 II 사업에서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사업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혜숙과 이영주(2016)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혁신교육지구의 주요 성과로 협치 경험과 협치 구조 생성, 학교·지역 교육협력 시도, 지역주민의 교육에의 관여 및 역량 강화 등을 보고하였다. 먼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의미 있는 변화는 민·관·학 거버넌스라는 협력 구조의 생성을 들 수 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다양한 주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학교와 학교, 지역과 지역 상호 간 연결점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기존의 사업들과 달리 학교와 마을이 함께 협력교육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여러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즉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협력을 시도하면서 학교와의 연계 방식과 연계 내용도 다양하고 풍부해지고 있다. 특히 학부모 등 지역주민이 동원의 대상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면서 주체로 나서는 변화를 경험하고, 참여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변화가 수반되고 있다는 것을 혁신교육지구의 성과로 평가하였다.

III.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 성과 분석

1. 공통 성과지표 구성

본 연구에서는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 성과 분석뿐만 아니라 이후 2년 지정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다른 지구의 사업 성과를 분석할 수 있고 또 종단적 관점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 성과의 연차별 성장을 살펴볼 수 있도록 먼저 공통 성과지표를 구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비전과 추진목적, 년도 별 중점 추진과제 및 추진내용, 그리고 타시도 혁신교육지구 평가지표 및 성과 분석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성과지표 영역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여러 차례의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설정된 성과지표 영역의 적절성 및 성과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구성한 공통 성과지표는 다음 <표 III-1>과 같다. 경남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추진 목적은 ① 행복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교육 혁신의 기반 조성 및 행복학교 확산, ②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지역별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의 균형적 발전 도모, ③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9년에는 ‘행복교육지구 기반 조성, 행복학교 일반화, 마을학교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이라는 네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행복교육지구의 추진 목적 및 추진과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목표는 크게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 및 행복교육지구 확산을 통한 ‘공교육 혁신’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지역(마을)교육공동체 구축’으로 요약될 수 있고, 이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비전과 같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표 영역을 크게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비전 및 목적에 맞게 추진과제가 잘 이행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의 목표’ 영역과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나타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변화나 사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의 전반적 성과’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표 III-1> 공통 성과지표 구성

영역	세부영역	평가지표	학생	학부모	교사
사업의 목표	학교혁신	수업 개선(수업 혁신)	○	-	○
		수업 외 활동	○	-	○
		학생-교사 관계	○	-	○
		교직원 간 관계	-	-	○
		학교만족도	○	-	○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학교수업과 지역사회 연계	○	-	-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	○	○	○
		지역 특색교육 지원	○	○	○
		지역공동체 의식	○	○	-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	○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	-	○	
사업의 전반적 성과	학생역량 개발	자기주도성	○	-	-
		진로성숙도	○		
		의사소통능력	○	-	-
		민주시민성	○	-	-
	사업에 대한 이해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기대	-	○	○
	사업의 성과 인식	학교 관련 성과	-	○	○
		학생 관련 성과	-	○	○
		학부모 관련 성과	-	○	○
		지역사회 관련 성과	-	○	○

먼저, ‘사업의 목표’ 영역은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비전 및 추진과제를 기초로 하여, 다시 ‘학교혁신’ 영역과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영역의 2개의 하위영역으로 세분하였다.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혁신’ 영역은 행복교육 확산을 통한 학교의 변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로,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 개선, 학교 및 학교문화의 변화, 학교에 대한 만족도의 하위지표들로 구성하였다.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영역은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로, 지역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학교 교육활동 운영, 지역공동체 의식 등의 하위 지표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사업의 전반적 성과’ 영역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의 성과 인식’의 2개의 하위영역으로 세분하였다.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에 대한 이해’ 영역은 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및 취지,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와 향후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기대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사업의 성과 인식’ 영역은 행복교육지구에서 추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나타난 학생, 학교, 지역사회 측면에서 나타난 변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학생의 경우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인지 정도가 낮기 때문에 ‘사업의 전반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교사나 학부모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의 성과 인식’의 하위영역 대신 ‘학생역량 계발’ 영역을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인 다양한 마을학교 운영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즉 마을학교는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활동(예: 학생자치배움터, 학생자율동아리, 문화체험 및 진로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마을학교에서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및 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자율성 및 창의성,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책임감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마을학교 운영 사업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이나 진로성숙도, 민주시민성 등과 같은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 계발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사업의 전반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학생역량 계발’ 영역을 설정하고, 자기주도성, 진로성숙도,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민주시민성의 4개의 하위지표로 구성하였다.

2. 설문조사 분석

김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김해 전 지역의 초·중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생은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는 5, 6학년, 중학교는 1, 2, 3학년, 고등학교는 1, 2학년 각 1개 학급 학생과 설문에 참여한 학생의 학부모, 그리고 교사는 초·중등학교 재직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설문조사 대상 중 학생은 총 1,653명, 학부모는 총 812명, 교사는 총 547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으나,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급	초등학교	601(37.6)	405(52.8)	270(53.0)
	중학교	614(38.4)	250(32.6)	175(34.4)
	고등학교	383(24.0)	112(14.6)	64(12.6)
학교소재지	진영읍	80(5.0)	13(1.7)	41(8.1)
	주촌면	8(5)	-	-
	진례면	12(8)	5(7)	6(1.2)
	한림면	7(4)	14(1.8)	8(1.6)
	생림면	1(1)	1(1)	4(8)
	상동면	2(1)	2(3)	-
	대동면	19(1.2)	5(7)	8(1.6)
	동상동	85(5.3)	33(4.3)	13(2.6)
	회현동	5(3)	10(1.3)	-
	부원동	28(1.8)	15(2.0)	16(3.1)
	내외동	470(29.4)	132(17.2)	111(21.8)
	북부동	190(11.9)	137(17.9)	56(11.0)
	칠산서부동	54(3.4)	98(12.8)	8(1.6)
	활천동	68(4.3)	29(3.8)	35(6.9)
	삼안동	204(12.8)	53(6.9)	28(5.5)
불암동	9(6)	9(1.2)	1(2)	

변인	구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유형	장유동	356(22.3)	211(27.5)	174(34.2)
	일반학교	1,373(85.9)	550(71.7)	465(91.4)
	행복(나눔, 맞이)학교	225(14.1)	217(28.3)	44(8.6)
성별	남자	695(43.5)	166(21.6)	140(27.5)
	여자	903(56.5)	601(78.4)	369(72.5)
거주기간	1년 미만	130(8.1)	35(4.6)	-
	1~3년 미만	142(8.9)	52(6.8)	-
	3~5년 미만	158(9.9)	51(6.6)	-
	5~10년 미만	344(21.5)	158(20.6)	-
	10년 이상	824(51.6)	471(61.4)	-
직위	관리자(교장·교감)	-	-	11(2.2)
	부장교사	-	-	130(25.5)
	교사	-	-	365(72.3)
교직경력	5년 미만	-	-	89(17.5)
	5~10년 미만	-	-	83(16.3)
	10~15년 미만	-	-	99(19.4)
	15~20년 미만	-	-	67(13.2)
	20~30년 미만	-	-	102(20.0)
	30년 이상	-	-	69(13.6)
현 근무지 재직기간	1년 미만	-	-	153(30.1)
	1~2년 미만	-	-	133(26.1)
	2~3년 미만	-	-	87(17.1)
	3~4년 미만	-	-	62(12.2)
	4년 이상	-	-	74(14.5)
전 체		1,598(100.0)	767(100.0)	509(100.0)

가. 학생

1) 사업의 목표

(가) 학교혁신

(1) 수업혁신(수업개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의 수업혁신 정도를 알아보았다. 수업혁신은 “배움(학생) 중심의 수업개선 노력 및 실행 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우리학교의 수업분위기는 활기차다’, ‘우리학교는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이 많다’, ‘우리학교는 학생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이 많다’의 세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업혁신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09였다.

수업혁신 정도를 알아본 결과(<표 III-3> 참조), 초등학교가 3.98로 전체 평균 3.73보다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 3.64, 중학교 3.53으로 나타나, 초등학교에서 수업혁신 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F=53.33,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3.82) 학생들이 일반학교(3.71) 학생들보다 수업혁신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1.99, p<.05$).

<표 III-3> 수업혁신(수업개선)_학생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601	3.98(.73)	53.33*** (초>중,고)
	중학교	614	3.53(.76)	
	고등학교	383	3.64(.82)	
학교 유형	일반학교	1,373	3.71(.79)	-1.99*
	행복학교	225	3.82(.75)	
전 체		1,598	3.73(.79)	

*** $p<.001$, * $p<.05$

(2) 수업 외 활동

학교의 수업 외 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알아보았다. “수업 외 활동은 교과수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우리학교는 학생 자치활동이 잘 이루어진다’, ‘우리학교는 동아리활동이 활발하다’, ‘우리학교는 학

<표 III-4> 수업 외 활동_학생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601	3.90(.78)	46.15*** (초>중,고)
	중학교	614	3.50(.80)	
	고등학교	383	3.51(.83)	
학교 유형	일반학교	1,373	3.63(.81)	-2.24*
	행복학교	225	3.77(.85)	
전 체		1,598	3.66(.82)	

*** $p < .001$, * $p < .05$

생 생활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의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업 외 활동의 신뢰도 계수는 .815였다.

수업 외 활동 활성화 정도를 알아본 결과(<표 III-4> 참조), 초등학교가 3.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3.50)와 고등학교(3.51)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46.15$, $p < .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3.77)가 일반학교(3.63)보다 수업 외 활동 활성화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t=-2.24$, $p < .05$).

(3)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는 “학생과 교사 간의 존중 및 소통 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우리학교에는 내가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의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신뢰도 계수는 .852였다.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표 III-5> 참조),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는 초등학교가 4.04로 전체 평균 3.69보다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3.48)와 고등학교(3.49)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F=78.76$, $p < .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3.78)가 일반학교(3.6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III-5>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_학생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601	4.04(.82)	78.76*** (초>중,고)
	중학교	614	3.48(.89)	
	고등학교	383	3.49(.90)	
학교 유형	일반학교	1,373	3.68(.91)	-1.63
	행복학교	225	3.78(.90)	
전 체		1,598	3.69(.91)	

*** $p < .001$

(4) 학교만족도

학교만족도는 “학교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만족 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나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즐겁다’,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의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897이었다.

학생들의 학교만족도를 알아본 결과(<표 III-6> 참조), 초등학교 4.04, 중학교 3.66, 고등학교 3.60으로, 초등학교에서 학교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F=33.41$, $p < .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3.96) 학생들의 학교만족도가 일반학교(3.76)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06$, $p < .01$).

<표 III-6> 학교만족도_학생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601	4.04(.94)	33.41*** (초>중,고)
	중학교	614	3.66(.98)	
	고등학교	383	3.60(.98)	
학교 유형	일반학교	1,373	3.76(.99)	-3.06**
	행복학교	225	3.96(.92)	
전 체		1,598	3.7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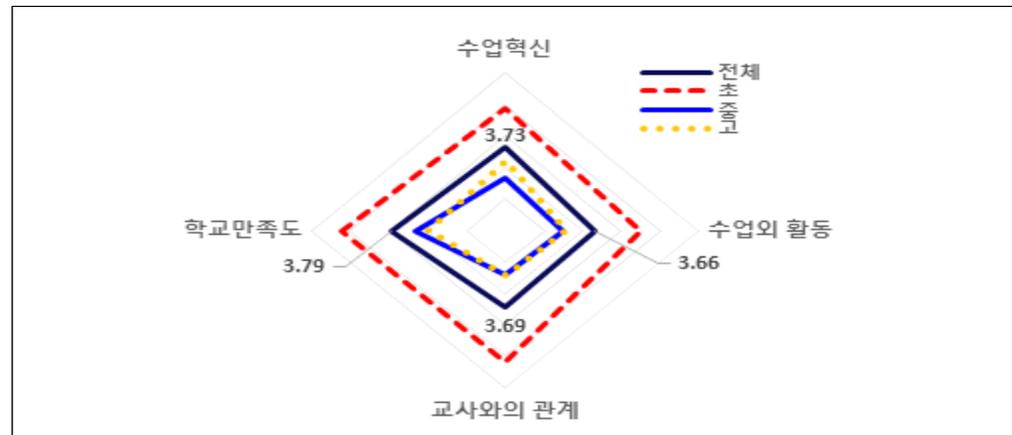
*** $p < .001$, ** $p < .01$

(5) 종합_학교혁신 영역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목표 영역 중 학교혁신과 관련해서는 영역별 평균 점수가 모두 3.5 이상을 상회하여,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학교혁신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교혁신과 관련된 영역별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난 반면, 중·고등학교 간에는 영역별 특별한 차이 없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1] 참조).

이러한 결과는 행복학교 및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중심의 수업혁신 노력과 수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 지원 노력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러한 학교 안의 변화가 또한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및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특히 일반학교보다는 행복학교의 학생들이 이러한 학교혁신에 대한 성과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복학교의 경우 행복교육지구 지원뿐만 아니라 행복학교의 4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수업혁신 및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노력을 꾸준히 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학교혁신 영역별 점수가 모두 낮게 나왔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에서도 수업혁신 및 수업 외 활동 지원 등 학교혁신 노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방안 및 내실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III-1] 사업의 목표_① 학교혁신(학생)

(나)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1) 학교수업과 지역사회 연계

학교수업과 지역사회 연계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지역(마을)에 있는 시설이나 사람을 활용해 수업을 하신다’, ‘우리학교 수업은 우리 지역(마을)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의 두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교수업과 지역사회 연계의 신뢰도 계수는 .869였다.

학교수업과 지역사회 연계 정도를 알아본 결과(<표 III-7> 참조), 초등학교 3.33, 중학교 2.87, 고등학교 2.78로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보다 학교수업과 지역사회 연계 정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52.25,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3.23)가 일반학교(2.98)보다 학교수업과 지역사회 연계 정도를 높게 평가하였다($t=-3.58, p<.001$).

<표 III-7> 학교수업과 지역사회 연계_학생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601	3.33(.94)
	중학교	614	2.87(.87)
	고등학교	383	2.78(1.04)
학교 유형	일반학교	1,373	2.98(.97)
	행복학교	225	3.23(.94)
전체	1,598	3.02(.97)	

*** $p<.001$

(2)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은 “교육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적·인적 자원 구축 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우리 지역(마을)에는 교육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의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 정도를 알아본 결과(<표 III-8> 참조), 초등학교 3.63, 중학교 3.16, 고등학교 3.01 순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 정도를 낮게 평가하였다($F=58.59, p<.001$).

<표 III-8>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_학생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601	3.63(.96)	58.59*** (초>중>고)
	중학교	614	3.16(.89)	
	고등학교	383	3.01(1.05)	
학교 유형	일반학교	1,373	3.28(1.00)	-2.48*
	행복학교	225	3.45(.95)	
전 체		1,598	3.30(.99)	

*** $p<.001$, * $p<.05$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3.45)가 일반학교(3.28)보다 약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48$, $p<.05$).

(3) 지역 특색교육 지원

지역 특색교육 지원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색교육이나 교육활동 지원 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우리 지역(마을)에는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지역만의 특색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의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16이었다.

지역 특색교육 지원 정도를 알아본 결과(<표 III-9> 참조), 초등학교 3.58, 중학교 3.15, 고등학교 3.04로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보다 지역 특색교육 지원 정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56.78$,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3.39)가 일반학교(3.27)보다 지역 특색교육 지원 정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9> 지역 특색교육 지원_학생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601	3.58(.85)	56.78*** (초>중,고)
	중학교	614	3.15(.83)	
	고등학교	383	3.04(.94)	
학교 유형	일반학교	1,373	3.27(.90)	-1.82
	행복학교	225	3.39(.90)	
전 체		1,598	3.28(.90)	

*** $p<.001$

(4) 지역공동체 의식

지역공동체 의식은 “내가 살고있는 지역(마을)에 대한 관심 및 소속감”을 알아보는 것이다. 지역공동체 의식은 ‘우리 지역(마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심이 많다’, ‘우리 지역(마을)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의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신뢰도 계수는 .604였다.

지역공동체 의식 정도를 알아본 결과(<표 III-10> 참조), 초등학교 3.80, 중학교와 고등학교 3.45로,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보다 지역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5.63$,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3.67, 일반학교 3.57로, 행복학교 학생들의 지역공동체 의식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10> 지역교육공동체 의식_학생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601	3.80(.80)	35.63*** (초>중,고)
	중학교	614	3.45(.79)	
	고등학교	383	3.45(.86)	
학교 유형	일반학교	1,373	3.57(.83)	-1.76
	행복학교	225	3.67(.79)	
전 체		1,598	3.5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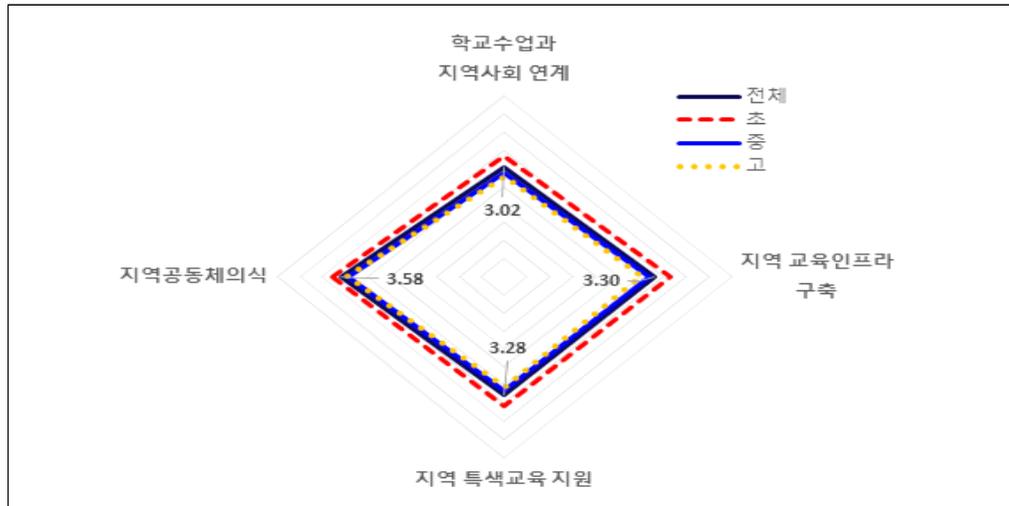
*** $p<.001$

(5) 종합_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영역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목표 중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영역과 관련하여 영역별 평균 점수가 지역공동체 의식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높지 않게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은 학교수업과 지역사회 연계를 낮게 평가하였다([그림 III-2] 참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과 관련된 영역별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학교수업과 지역사회 연계 영역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한 학교수업과 지역사회 연계,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 지역 특색교육 지원 등과 같은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자원을 개발·조직화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역자원을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마을)의 소통 및 협력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III-2] 사업의 목표_② 지역교육공동체 구축(학생)

2) 사업의 전반적 성과

(가) 학생역량⁵⁾ 계발

본 연구에서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학생 성과지표로 자기주도성, 진로성숙도,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민주시민성 등과 같은 미래 핵심역량을 측정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학생들의 역량 수준을 알아보는 것이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효과나 성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학생역량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사업 이전의 학생들의 역량 수준과 사업 이후의 역량 수준 간의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 이전의 학생들의 역량 수준을 알 수 없고, 또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역량 수준을 비교할 통제집단도 없는 상태이다. 또한 학교현장에서는 행복학교 사업 등을 포함하여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유사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별로도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세부 사업 추진 내용 및 방식, 지원되는 예산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설문조사를 통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고유 성과를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본 연구의 학생역량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는 김해 행복교육지구 내 학생들의 현재 역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거나 학생들의 역량 가운데 수준이 낮은 역량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종단적 관점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연차가 계속될수록 지구별 학생들의 역량 수준이 연차별로 어느 정도 변화·성장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역량 계발’ 영역을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공통 성과지표에 포함시켰다.

(1) 자기관리 역량_자기주도성

자기관리 역량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긍정적 자아의식, 자기주도성, 진로성숙도의 3가지 하위영역 및 8가지 하위지표로 구성

5) 본 연구에서 학생역량은 권희경 외(2018) 연구의 「2018년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에서 제시한 6개의 핵심역량 및 하위지표 체계를 기초로 하여, 학생역량의 측정 문항을 재구성한 것임

<표 III-11> 자기관리 역량_자기주도성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590	3.85(.80)	17.23*** (초>중,고)
	중학교	606	3.58(.80)	
	고등학교	381	3.70(.81)	
학교 유형	일반학교	1,359	3.70(.81)	-1.20
	행복학교	218	3.77(.83)	
전 체		1,577	3.71(.81)	

***p<.001

되어 있다(권희경 외, 2018).

이를 기초로 하여, 자기주도성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및 주도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나는 내가 무엇이든 잘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 ‘해야 할 일이 많으면 순서를 정해서 하나씩 한다’,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낸다’의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성의 신뢰도 계수는 .778이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역량을 알아본 결과(<표 III-11> 참조), 초등학교 3.85, 고등학교 3.70, 중학교 3.58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자기주도성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7.23, p<.001$).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여타의 다른 사업과 혼재되어 있고, 출발선에서의 학생 상태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학생의 자기주도성 역량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와 일반학교 간에는 자기주도성 역량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기관리 역량_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건강한 진로발달에 필요한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능력”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진로 선택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 ‘내가 관심 있는 직업

<표 III-12> 자기관리 역량_진로성숙도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590	3.69(.86)	6.33** (초,고>중)
	중학교	606	3.59(.82)	
	고등학교	381	3.78(.79)	
학교 유형	일반학교	1,359	3.67(.83)	-.16
	행복학교	218	3.68(.83)	
전 체		1,577	3.67(.83)	

**p<.01

(전공)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의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의 신뢰도 계수는 .731이었다.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알아본 결과(<표 III-12> 참조), 고등학교(3.78), 초등학교(3.69), 중학교(3.59)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F=6.33, p<.01$).

(3) 의사소통 역량_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으로, 본 연구에서는 ‘친구의 기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다’,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한다’의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의 신뢰도 계수는 .837이었다.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알아본 결과(<표 III-13> 참조), 초등학교가 4.10, 고등학교 4.07, 중학교 3.98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F=4.72, p<.01$).

(4) 공동체 역량_민주시민성

공동체 역량은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으로, 민주시민성과 세계시민성의 2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권희경 외, 2018).

민주시민성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하에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표 III-13> 의사소통 역량_의사소통능력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590	4.10(.72)	4.72** (초,고>중)
	중학교	606	3.98(.68)	
	고등학교	381	4.07(.71)	
학교 유형	일반학교	1,359	4.05(.70)	.20
	행복학교	218	4.04(.75)	
전 체		1,577	4.05(.71)	

**p<.01

요구되는 가치를 함양하고 이를 실천하는 능력”으로(남궁지영 외, 2015), 본 연구에서는 ‘학급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진다’, ‘과제를 함께 하면서 내가 맡은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한다’, ‘과제를 함께 하는 친구들끼리 다투면 서로 화해하도록 나서서 돕는다’의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민주시민성의 신뢰도 계수는 .801이었다.

학생들의 민주시민성 역량을 알아본 결과(<표 III-14> 참조), 초등학교 3.90, 고등학교 3.86, 중학교 3.73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민주시민성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F=5.83,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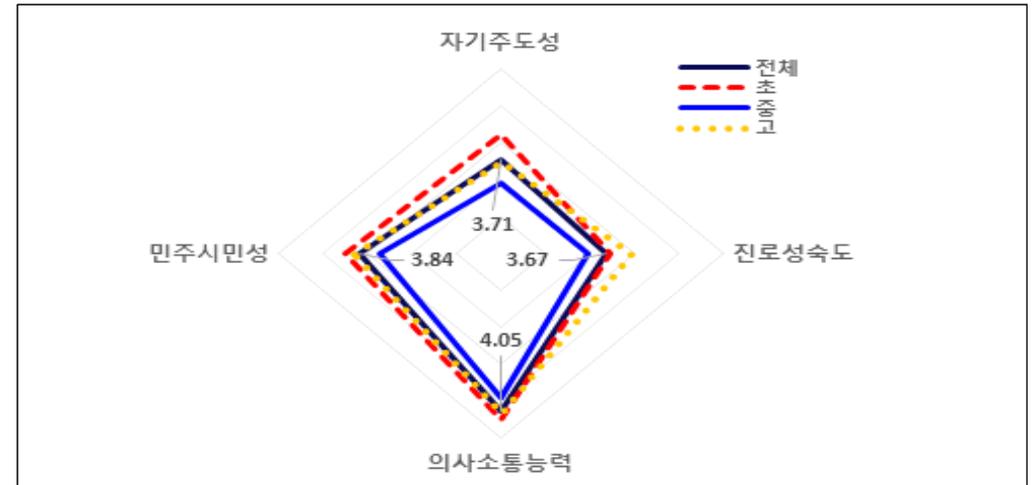
<표 III-14> 공동체 역량_민주시민성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590	3.90(.82)	5.83** (초,고>중)
	중학교	606	3.75(.73)	
	고등학교	381	3.86(.75)	
학교 유형	일반학교	1,359	3.83(.77)	-.96
	행복학교	218	3.88(.79)	
전 체		1,577	3.84(.77)	

**p<.01

(5) 종합_학생역량 계발 영역

학생들의 주요 역량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상대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그림 III-3] 참조).



[그림 III-3] 사업의 성과_학생역량 계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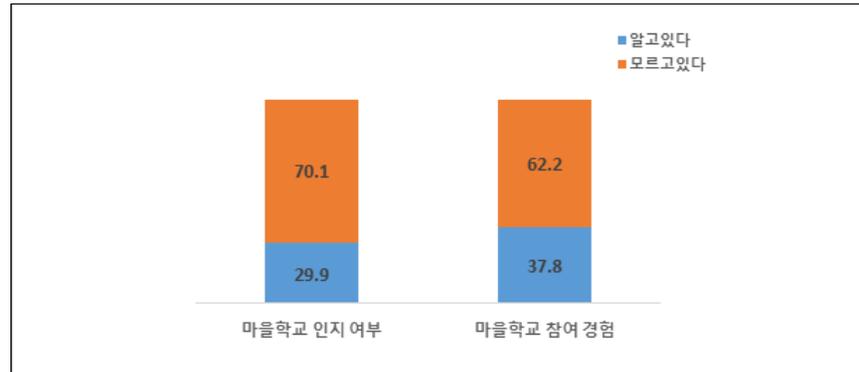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 이전의 학생들의 역량 수준을 알 수 없고 또 학교별로 행복교육지구 사업 이외에 지원받는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김해 행복교육지구 내 학생들의 현재 역량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종단적 관점에서 사업의 연차가 계속될수록 학생들의 역량 수준이 어느 정도 변화·성장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마을학교 운영 효과

(1) 마을학교 인지 여부 및 참여 경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을학교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우리 지역(김해)에 마을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마을학교 인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마을학교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그림 III-4] 참조), ‘알고 있다’는 응답이 29.9%(471명),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70.1%(1,102명)로 나타나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이 더 많았다.

다음으로, 마을학교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471명만을 대상으로 김해 지역에서



[그림 III-4] 마을학교 인지 여부 및 참여 경험

운영하고 있는 마을학교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학생들의 마을학교 참여 경험을 조사한 결과, 마을학교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7.8%(178명),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62.2%(293명)로 나타나 마을학교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 더 많았다.

(2) 마을학교 만족도

마을학교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마을학교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표 III-15> 참조), 전체적으로 이용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M=4.05, SD=.86$). 특히 '마을학교에서 체험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M=4.22, SD=.86$), '마을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체험할 수 있었다'($M=4.12, SD=.89$)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4.25, SD=.08$).

<표 III-15> 마을학교 만족도

구분	초 (n=101)	중 (n=54)	고 (n=17)	전체 (N=172)
마을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체험할 수 있었다	4.27(.85)	3.91(.81)	3.88(1.22)	4.12(.89)
마을학교에서 체험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	4.38(.81)	3.98(.79)	4.00(1.12)	4.22(.86)
마을학교 선생님에게서 내가 원했던 도움을 받았다	4.22(.96)	3.80(.83)	3.71(1.21)	4.03(.97)
마을학교에서의 경험은 나의 꿈(진로)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다	4.12(1.03)	3.54(1.00)	3.59(1.33)	3.88(1.09)
나는 기회가 된다면, 마을학교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	4.25(1.03)	3.61(.90)	3.88(1.27)	4.01(1.05)
마을학교 만족도(전체)	4.25(.08)	3.77(.74)	3.81(1.18)	4.05(.86)

이러한 마을학교 만족도는 본 설문조사에서 마을학교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이 기술한 내용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 학생들은 마을학교에서 학교 밖의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 및 다양한 활동 경험에 대한 만족감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생님과 학생, 남녀 상관없이 모두 하나가 되어 웃고 즐기었던 행사가 너무 재미있었고, 김해지역 거주자와 그 외 모든 사람과 눈도 마주치고 함께 웃고 행사를 참여한 것에도 정말 뿌듯했어요. 덕분에 제 직업 세계가 커져서 꿈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학교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모두와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마을학교 참여학생)

(3) 마을학교 운영 효과

마을학교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간의 핵심역량 및 지역공동체 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16>에 제시한 것과 같이, 마을학교에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체험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진로성숙도, 의사소통능력, 민주시민성 점수가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 및

<표 III-16> 마을학교 참여 유무에 따른 학생역량 및 지역공동체 의식에서의 차이 분석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t값
자기주도성	마을학교 참여 유	178	3.94(.87)	2.94**
	마을학교 참여 무	293	3.71(.83)	
진로성숙도	마을학교 참여 유	178	3.88(.86)	2.93**
	마을학교 참여 무	293	3.64(.87)	
의사소통능력	마을학교 참여 유	178	4.19(.77)	2.63**
	마을학교 참여 무	293	4.00(.74)	
민주시민성	마을학교 참여 유	178	4.04(.84)	3.00**
	마을학교 참여 무	293	3.80(.84)	
지역공동체 의식	마을학교 참여 유	178	3.94(.86)	3.94***
	마을학교 참여 무	293	3.63(.80)	

***p<.001, **p<.01

학교 밖 단체활동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율성을 키우며, 타인과 소통·배려하는 과정 속에서 협동심과 책임감을 함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마을학교 운영의 취지 및 목표와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마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지역공동체 의식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마을학교 참여 경험이 내가 살고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 및 애착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마을학교 개선사항

마을학교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소 마을학교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기술한 내용 중에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좋겠다’, ‘많고 다양한 활동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등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는 본 연구의 사업담당자 대상 집담회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마

을학교 운영의 예산 및 인력 부족, 제한적인 인적 자원 등으로 인해 마을학교 운영 프로그램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요구조사를 통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을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마을교사의 강사비,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도 제한점이 있죠. 또 예산이 많다고 해서 많이 만들 수도 없는 게 그걸 또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학교처럼 강제성이란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많아지다 보면 그걸 충분히 운영하고 관리하기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딱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프로그램만 짜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 또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활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죠. 특히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방식이 정말 학생들에게 요구를 받아서 했다기보다는 일단은 시설을 갖춘 것에 대해서 맞춰 가야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주변의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사업담당 파견교사)

나. 교사

1) 사업의 목표

(가) 학교혁신

(1) 수업혁신(수업개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의 수업혁신 정도⁶⁾를 알아본 결과(<표 III-17> 참조), 초등학교 교사가 4.14로 전체 평균 3.96보다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3.84, 고등학교 3.53 순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수업혁신 정도를 낮게 평가하였다($F=21.39,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교사(4.40)가 일반학교 교사(3.91)보다 수업혁신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48, p<.05$).

<표 III-17> 수업혁신(수업개선)_교사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270	4.14(.71)
	중학교	174	3.84(.72)
	고등학교	64	3.53(.91)
학교 유형	일반학교	464	3.91(.78)
	행복학교	44	4.40(.57)
전 체	508	3.96(.77)	

*** $p<.001$

(2) 수업 외 활동

수업 외 활동 활성화 정도⁷⁾를 알아본 결과(<표 III-18> 참조), 초등학교 4.12, 중학교 3.90, 고등학교 3.73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중고등학교 교사보다 수업 외 활동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F=8.73,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교사(4.34)가 일반학교 교사(3.63)보다 수업 외 활동 활성화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t=-3.12, p<.01$).

6) 학생 문항과 동일하게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909였다.

7) 학생 문항과 동일하게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52였다.

<표 III-18> 수업 외 활동_교사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270	4.12(.74)
	중학교	174	3.90(.76)
	고등학교	64	3.73(.88)
학교 유형	일반학교	464	3.96(.78)
	행복학교	44	4.34(.59)
전 체	508	3.99(.77)	

*** $p<.001, **p<.01$

(3) 동료교사와의 관계

동료교사와의 관계는 “교사들 간의 소통 및 협력 관계 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우리학교는 수업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동료교사들과 공유하며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우리학교는 학생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료교사들과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한다’의 두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70이었다.

<표 III-19>에 제시한 것과 같이, 교사와의 관계 정도는 초등학교 교사가 4.43, 중학교 4.05, 고등학교 3.67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35.47,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교사(4.53)가 일반학교 교사(4.173.68)보다 동료교사와의 협력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t=-3.00, p<.01$).

<표 III-19> 동료교사와의 관계_교사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270	4.43(.65)
	중학교	174	4.05(.73)
	고등학교	64	3.67(.94)
학교 유형	일반학교	464	4.17(.78)
	행복학교	44	4.53(.56)
전 체	508	4.20(.77)	

*** $p<.001, **p<.01$

(4)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는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및 배려 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우리학교는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의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표 III-20>과 같이,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정도는 초등학교 교사 4.35, 중학교 4.01, 고등학교 3.72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20.41,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교사(4.45)가 일반학교 교사(4.13)보다 학생과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t=-2.51, p<.05$).

<표 III-20>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_교사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270	4.35(.76)
	중학교	174	4.01(.79)
	고등학교	64	3.72(1.00)
학교 유형	일반학교	464	4.13(.84)
	행복학교	44	4.45(.63)
전체	508	4.16(.83)	

*** $p<.001, *p<.05$

(5) 학교만족도

학교만족도는 ‘우리학교에 근무하면서 보람을 느낀다’, ‘우리학교는 내가 교사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의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신뢰도 계수는 .942였다. 교사들의 학교만족도를 알아본 결과(<표 III-21> 참조), 초등학교 교사 4.19, 중학교 3.88, 고등학교 3.70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중고등학교 교사보다 학교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1.66,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교사(4.35)가 일반학교 교사(3.99)보다 학교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56, p<.05$).

<표 III-21> 학교만족도_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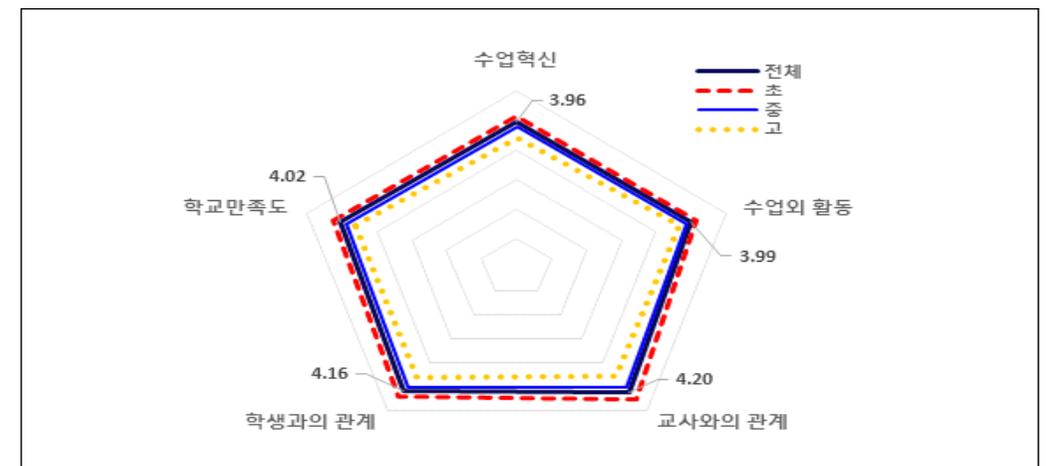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270	4.19(.86)
	중학교	174	3.88(.86)
	고등학교	64	3.70(1.01)
학교 유형	일반학교	464	3.99(.91)
	행복학교	44	4.35(.72)
전체	508	4.02(.90)	

*** $p<.001, *p<.05$

(6) 종합_학교혁신 영역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목표 영역 중 학교혁신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교 교사가 중고등학교 교사보다 모든 영역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그림 III-5] 참조). 또한 일반학교보다는 행복학교 교사들이 이러한 학교혁신에 대한 성과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의 자기고양적 편향(self-serving bias)을 나타내는 결과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복학교 및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수업 혁신 및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 등 학교혁신 노력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III-5] 사업의 목표_① 학교혁신(교사)

(나)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1)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및 협력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및 협력 정도는 ‘우리학교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 하면서 교육활동을 운영한다’, ‘우리학교는 학부모나 지역민(마을교사)이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다’의 두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72였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및 협력 정도를 알아본 결과(<표 III-22> 참조), 초등학교 교사 3.80, 중학교 3.57, 고등학교 3.16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및 협력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F=18.62,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교사(4.16)가 일반학교 교사(3.59)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및 협력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6.09, p<.001$).

<표 III-22>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및 협력_교사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270	3.80(.76)
	중학교	174	3.57(.71)
	고등학교	64	3.16(.98)
학교 유형	일반학교	464	3.59(.80)
	행복학교	44	4.16(.57)
전 체	508	3.64(.80)	

*** $p<.001$

(2)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은 ‘우리학교가 위치한 지역에는 교육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우리학교가 위치한 지역에는 학교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다’의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신뢰도 계수는 .948이었다.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 정도를 알아본 결과(<표 III-23> 참조), 초등학교 교사 3.57, 중학교 3.46, 고등학교 3.09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

<표 III-23>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_교사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270	3.57(.98)
	중학교	174	3.46(.83)
	고등학교	64	3.09(1.02)
학교 유형	일반학교	464	3.42(.95)
	행복학교	44	3.98(.78)
전 체	508	3.47(.94)	

*** $p<.001$

보다 상대적으로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F=6.70,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교사(3.98)가 일반학교 교사(3.42)보다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4.42, p<.001$).

(3) 지역에 대한 이해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역에 대한 이해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은 ‘우리학교가 위치한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관심이 많다’,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업을 한다’의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855였다.

교사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정도를 알아본 결과(<표 III-24> 참조), 초등학교 교사 3.74, 중학교 3.53, 고등학교 3.21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지역에 대한 이해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2.23,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교사(3.99)가 일반학교 교사(3.56)보다 지역에 대한 이해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t=-3.37, p<.001$).

<표 III-24> 지역에 대한 이해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_교사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270	3.74(.82)	12.23*** (초,중>고)
	중학교	174	3.53(.73)	
	고등학교	64	3.21(.87)	
학교 유형	일반학교	464	3.56(.82)	-3.37***
	행복학교	44	3.99(.67)	
전 체		508	3.60(.82)	

***p<.001

(4) 지역 특색교육 지원

지역 특색교육 지원 정도는 ‘우리 지역에는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지역만의 특색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의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신뢰도 계수는 .826이었다.

지역 특색교육 지원 정도를 알아본 결과(<표 III-25> 참조), 초등학교 3.77, 중학교 3.47, 고등학교 3.25로 초등학교 교사가 중고등학교 교사보다 지역 특색교육 지원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3.37,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교사(4.03)가 일반학교 교사(3.56)보다 지역 특색교육 지원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t=-3.59, p<.001).

<표 III-25> 지역 특색교육 지원_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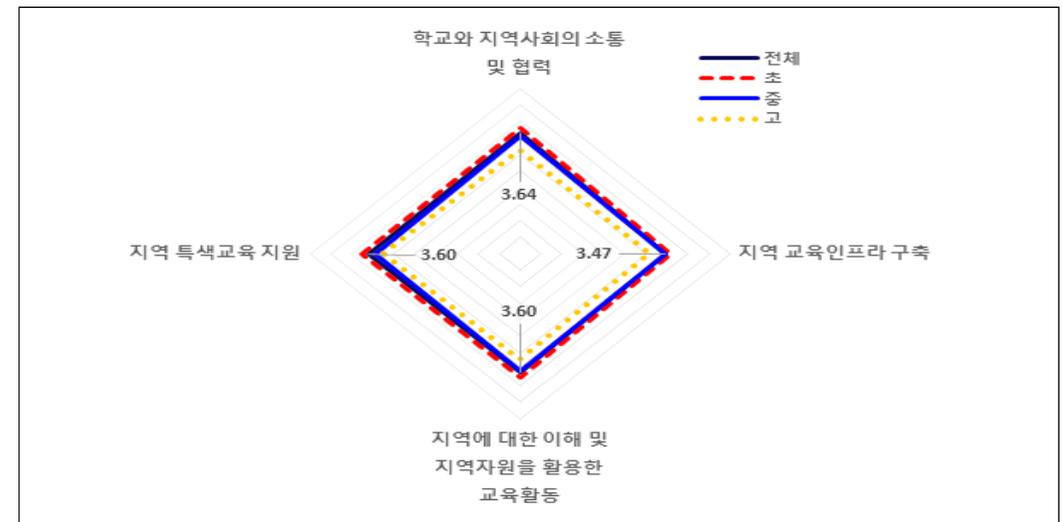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270	3.77(.84)	13.37*** (초>중,고)
	중학교	174	3.47(.78)	
	고등학교	64	3.25(.95)	
학교 유형	일반학교	464	3.56(.85)	-3.59***
	행복학교	44	4.03(.73)	
전 체		508	3.60(.85)	

***p<.001

(5) 종합_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영역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과 관련된 영역에서 교사들은 영역별로 어느 정도 높게 평가했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 영역을 낮게 평가하였다.

또한 학교급에 따른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영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영역별 점수를 모두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6] 참조). 이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노력이 고등학교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III-6] 사업의 목표_②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교사)

2) 사업의 전반적 성과

(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기대

(1)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취지 및 내용 이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를 알아보았다.

<표 III-26>과 같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36, 중학교 3.20, 고등학교 2.95로, 초등학교 교사가 중고등학교 교사보다 사업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77, p<.01$). 그러나 이러한 학교급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취지 및 내용 이해에 대한 전체 평균이 3.26임을 감안할 때 그리고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현재 3년 차에 접어든 것에 비하면, 학교급에 상관없이 교사들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는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다.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교사(4.09)가 일반학교 교사(3.17)보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6.13, p<.001$).

더 나아가,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예: 토론회, 간담회, 연수 등)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3.95)가 참여 경험이 없는 교사(3.15)보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표 III-26>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_교사

구 분	학교급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초	260	3.36(1.03)	4.77** (초>중, 중>고)
	중	172	3.20(.87)	
	고	61	2.95(1.02)	
	일반학교	449	3.17(.96)	-6.13***
	행복학교	44	4.09(.77)	
	참여 유	65	3.95(.82)	7.21***
	참여 무	428	3.15(.96)	
전 체		493	3.26(.98)	

*** $p<.001$, ** $p<.01$

<표 III-27> 우리 지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속_교사

구 분	학교급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우리 지역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초	260	3.58(1.02)	3.82* (초,중>고)
	중	172	3.63(.82)	
	고	61	3.25(1.08)	
	일반학교	449	3.49(.94)	-5.31***
	행복학교	44	4.27(.90)	
	참여 유	65	4.02(.99)	4.19***
	참여 무	428	3.49(.94)	
전 체		493	3.56(.97)	

*** $p<.001$, * $p<.05$

났다($t=7.21, p<.001$).

(2) 우리 지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 지속

우리지역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27>에 제시한 것과 같이,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3.63, 초등학교 3.58, 고등학교 3.25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82, p<.05$).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교사(4.27)가 일반학교 교사(3.49)보다 김해 지역에서의 행복교육지구 사업 지원이 지속되기를 희망하였다($t=-5.31, p<.001$).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4.02)가 참여 경험이 없는 교사(3.49)보다 김해 지역에서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속적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4.19, p<.001$).

(3)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확대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다른 지역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표 III-28> 참조), 중학교 3.50, 초등학교 3.47, 고등학교 3.31 순으로

<표 III-28>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확대_교사

구분	학교급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초	260	3.47(1.05)	.81
	중	172	3.50(.90)	
	고	61	3.31(1.09)	
	일반학교	449	3.39(.99)	-5.46***
	행복학교	44	4.23(.89)	
	참여 유	65	3.78(1.17)	2.81**
	참여 무	428	3.41(.97)	
전 체		493	3.46(1.01)	

***p<.001, **p<.01

나타났으나, 이러한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교사(4.23)가 일반학교 교사(3.39)보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5.46, p<.001$).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3.78)가 참여 경험이 없는 교사(3.41)보다 상대적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81, p<.01$).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관련된 설명회나 토론회, 간담회 등에 참여하는 교사가 현재까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회에 참여한 교사들이 참여하지 않은 교사에 비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러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의 지속적 지원 및 확대를 희망하는 만큼, 학교 안 사업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나) 사업의 전반적 성과 인식

(1) 학생과 교사 간 관계 개선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29>과 같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3.46), 중학교(3.30), 고

<표 III-29> 학생과 교사 간 관계 개선_교사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254	3.46(.95)	7.97*** (초,중>고)
	중학교	171	3.30(.83)	
	고등학교	61	2.95(.92)	
학교 유형	일반학교	442	3.28(.89)	-4.79***
	행복학교	44	3.95(.91)	
설명회 참여 유무	참여 유	65	3.69(1.05)	3.39***
	참여 무	421	3.28(.88)	
전 체		486	3.34(.92)	

***p<.001

등학교(2.95)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성과 인식을 더 높게 하였다($F=7.97,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교사(3.95)가 일반학교 교사(3.28)보다 관계 개선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79, p<.001$).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예: 토론회, 간담회, 연수 등)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3.69)가 참여 경험이 없는 교사(3.28)보다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았다($t=3.39, p<.001$).

(2)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다양화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30>에 제시한 것과 같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3.58), 중학교(3.37), 고등학교(3.10)로, 초등학교 교사가 중고등학교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대한 성과 인식을 더 높게 하였다($F=7.33,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교사(4.20)가 일반학교 교사(3.37)보다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77, p<.001$).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3.72)가 참여 경험이 없는 교사(3.40)보다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았다($t=2.55, p<.05$).

<표 III-30>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_교사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254	3.58(.95)	7.33*** (초>중, 중>고)
	중학교	171	3.37(.88)	
	고등학교	61	3.10(1.00)	
학교 유형	일반학교	442	3.37(.93)	-5.77***
	행복학교	44	4.20(.77)	
설명회 참여 유무	참여 유	65	3.72(1.11)	2.55*
	참여 무	421	3.40(.91)	
전 체		486	3.45(.94)	

*** $p < .001$, * $p < .05$

(3) 교직원 간 소통문화 개선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교직원 간 소통문화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31>과 같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3.53), 중학교(3.39), 고등학교(3.03)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교직원 간 소통문화 개선에 대한 성과를 더 높게 하였다($F=7.44, p < .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교사(4.11)가 일반학교 교사(3.35)보다 교직원 간 소통문화 개선에 대한 성과를 더 높음 것으로 나타났다($t=-5.36, p < .001$).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3.82)가 참여 경험이 없는 교사(3.36)보다 교직원 간 소통문화 개

<표 III-31> 교직원 간 소통문화 개선_교사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254	3.53(.95)	7.44*** (초,중>고)
	중학교	171	3.39(.83)	
	고등학교	61	3.03(1.00)	
학교 유형	일반학교	442	3.35(.91)	-5.36***
	행복학교	44	4.11(.84)	
설명회 참여 유무	참여 유	65	3.82(1.12)	3.75***
	참여 무	421	3.36(.88)	
전 체		486	3.42(.93)	

*** $p < .001$

선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았다($t=3.75, p < .001$).

(4) 학교 간 교류 활성화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학교 간 교류가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32>와 같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38, 중학교 3.26, 고등학교 3.10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학교급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교사(3.86)가 일반학교 교사(3.24)보다 학교 간 교류 활성화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50, p < .001$).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3.58)가 참여 경험이 없는 교사(3.26)보다 학교 간 교류 활성화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았다($t=2.44, p < .05$).

<표 III-32> 학교 간 교류 활성화_교사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254	3.38(.95)	2.54
	중학교	171	3.26(.82)	
	고등학교	61	3.10(.93)	
학교 유형	일반학교	438	3.24(.89)	-4.40***
	행복학교	44	3.86(.91)	
설명회 참여 유무	참여 유	65	3.58(1.03)	2.44*
	참여 무	417	3.26(.88)	
전 체		482	3.30(.91)	

*** $p < .001$, * $p < .05$

(5) 학생역량 향상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자기주도성이나 공동체 역량 등과 같은 학생역량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33>에 제시한 것과 같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3.47), 중학교(3.36), 고등학교(3.15)로, 초등학교 교사가 중고등학교 교사보다 학생역량 향상에 대한 성과를 더 높게 하였다($F=3.20, p < .05$).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교사(4.09)가 일반학교 교사(3.32)보다 학생역량 향상

<표 III-33> 학생역량 향상_교사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254	3.47(.93)	3.20* (초>중, 중>고)
	중학교	171	3.36(.84)	
	고등학교	61	3.15(.98)	
학교 유형	일반학교	441	3.32(.89)	-5.54***
	행복학교	44	4.09(.77)	
설명회 참여 유무	참여 유	65	3.72(.96)	3.12**
	참여 무	420	3.34(.89)	
전 체		485	3.39(.91)	

***p<.001, **p<.01, *p<.05

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54, p<.001$).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3.72)가 참여 경험이 없는 교사(3.34)보다 학생역량 향상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았다($t=3.12, p<.01$).

(6)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의 이해 제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34>와 같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3.45), 중학교(3.33), 고등학교(3.03)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의 이해 제고에 대한 성과 인식을 더 높게 하였다($F=5.30,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교사(3.95)가 일반학교 교사(3.30)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의 이해 제고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60, p<.001$).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3.68)가 참여 경험이 없는 교사(3.31)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의 이해 제고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았다($t=3.02, p<.01$).

<표 III-34>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의 이해 제고_교사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254	3.45(.96)	5.30*** (초,중>고)
	중학교	171	3.33(.84)	
	고등학교	61	3.03(.93)	
학교 유형	일반학교	441	3.30(.90)	-4.60***
	행복학교	44	3.95(.96)	
설명회 참여 유무	참여 유	65	3.68(1.02)	3.02**
	참여 무	421	3.31(.90)	
전 체		486	3.36(.92)	

***p<.001, **p<.01

(7) 학생의 지역공동체 의식 증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학생들의 지역공동체 의식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35>와 같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3.41), 중학교(3.28), 고등학교(3.03)로, 초등학교 교사가 중고등학교 교사보다 학생역량 향상에 대한 성과 인식을 더 높게 하였다($F=4.77, p<.05$).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교사(3.91)가 일반학교 교사(3.26)보다 학생의 지역공동체 의식 증가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53, p<.001$).

<표 III-35> 학생의 지역공동체 의식 증가_교사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254	3.41(.96)	4.47* (초,>중, 중>고)
	중학교	171	3.28(.84)	
	고등학교	61	3.03(.97)	
학교 유형	일반학교	442	3.26(.91)	-4.53***
	행복학교	44	3.91(.86)	
설명회 참여 유무	참여 유	65	3.62(1.07)	2.45*
	참여 무	421	3.27(.89)	
전 체		486	3.32(.92)	

***p<.001, *p<.05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3.62)가 참여 경험이 없는 교사(3.27)보다 학생의 지역공동체 의식 증가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았다($t=2.45, p<.05$).

(8) 학부모 및 지역민의 교육활동 참여 증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학부모 및 지역민의 교육활동 참여가 증가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36>에 제시한 것과 같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3.46), 중학교(3.34), 고등학교(2.97)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학부모 및 지역민의 교육활동 참여 증가에 대한 성과 인식을 더 높게 하였다($F=7.53,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교사(3.91)가 일반학교 교사(3.30)보다 학부모 및 지역민의 교육활동 참여 증가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26, p<.001$).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3.69)가 참여 경험이 없는 교사(3.31)보다 학부모 및 지역민의 교육활동 참여 증가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았다($t=3.20, p<.001$).

<표 III-36> 학부모 및 지역민의 교육활동 참여 증가_교사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254	3.46(.94)
	중학교	171	3.34(.82)
	고등학교	61	2.97(.98)
			7.53*** (초,중>고)
학교 유형	일반학교	442	3.30(.90)
	행복학교	44	3.91(.91)
			-4.26***
설명회 참여 유무	참여 유	65	3.69(1.03)
	참여 무	421	3.31(.89)
			3.20***
전 체	486	3.36(.92)	

*** $p<.001$

(9)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제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더 많이 소통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37>과 같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3.46), 중학교(3.31), 고등학교(2.95)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제고에 대한 성과 인식을 더 높게 하였다($F=7.72,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교사(4.02)가 일반학교 교사(3.27)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제고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26, p<.001$).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3.68)가 참여 경험이 없는 교사(3.29)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제고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았다($t=3.17, p<.01$).

<표 III-37>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제고_교사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254	3.46(.95)
	중학교	170	3.31(.85)
	고등학교	61	2.95(.92)
			7.72*** (초,중>고)
학교 유형	일반학교	441	3.27(.90)
	행복학교	44	4.02(.88)
			-5.26***
설명회 참여 유무	참여 유	65	3.68(1.02)
	참여 무	420	3.29(.90)
			3.17**
전 체	485	3.34(.92)	

*** $p<.001, **p<.01$

(10)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증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지역사회 자원이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활동이 증가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38>에 제시한 것과 같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3.51), 중학교(3.35), 고등학교(2.98)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증가에 대한 성과 인식을 더 높게 하였다($F=8.18,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교사(4.00)가 일반학교 교사(3.32)보다 지역 교육자원

<표 III-38>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증가_교사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253	3.51(.95)	8.18*** (초,중>고)
	중학교	170	3.35(.85)	
	고등학교	61	2.98(.96)	
학교 유형	일반학교	440	3.32(.91)	-4.70***
	행복학교	44	4.00(.92)	
설명회 참여 유무	참여 유	65	3.74(1.02)	3.33***
	참여 무	419	3.33(.91)	
전 체		484	3.38(.93)	

***p<.001

을 활용한 교육활동 증가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70, p<.001$).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3.74)가 참여 경험이 없는 교사(3.33)보다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증가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았다($t=3.33, p<.001$).

(11)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확충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교육관련 인프라가 풍부해졌다고 생각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39>와 같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3.46), 중학교(3.32), 고등학교(3.05)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확충에 대한 성과를 더 높게 하였다($F=5.09, p<.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교사(3.95)가 일반학교 교사(3.30)보다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확충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54, p<.001$).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예: 토론회, 간담회, 연수 등)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3.72)가 참여 경험이 없는 교사(3.30)보다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확충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았다($t=3.43, p<.001$).

<표 III-39>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확충_교사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254	3.46(.97)	5.09** (초,중>고)
	중학교	171	3.32(.85)	
	고등학교	61	3.05(.93)	
학교 유형	일반학교	440	3.30(.91)	-4.54***
	행복학교	44	3.95(.89)	
설명회 참여 유무	참여 유	65	3.72(.98)	3.43***
	참여 무	419	3.30(.91)	
전 체		484	3.3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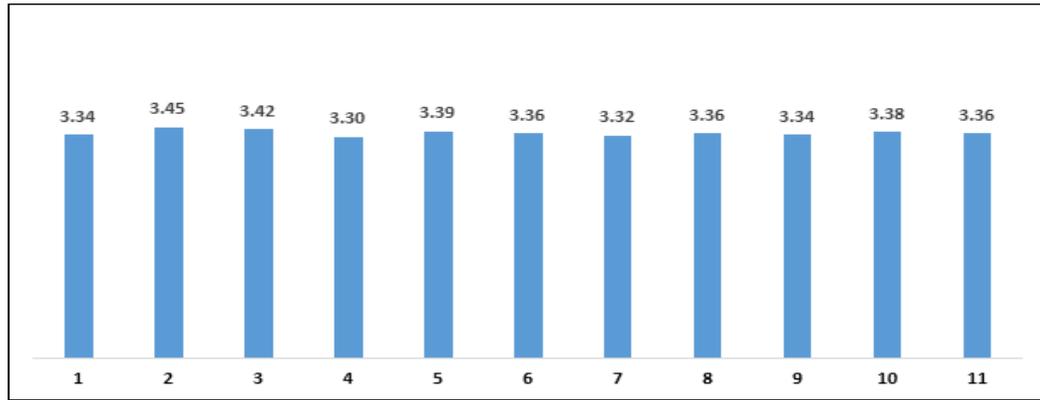
***p<.001, **p<.01

(12) 종합_사업의 성과 인식 영역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인식을 영역별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영역별로 5점 척도의 평균 3.5 이하로 나타나 교사들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성과 인식은 그렇게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그림 III-7] 참조). 그러나 일반학교와 행복학교 교사들간의 성과 인식에는 차이가 있어, 행복학교 교사들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성과를 매우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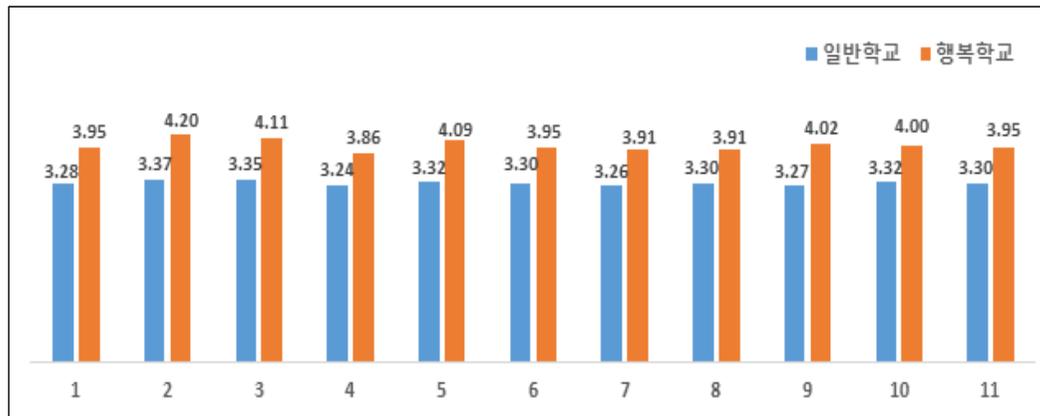
교사들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성과로 가장 낮게 인식한 영역은 ‘학교 간 교류 활성화’였다. 다음으로는 ‘학생의 지역공동체 의식 증가’,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제고’와 ‘학생과 교사 간 관계 개선’ 순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교사들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학교 간 교류 활성화나 학교의 지역자원의 소통 및 협력에 기여했다는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I-7]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성과 인식_교사

1: 학생과 교사 간 관계 개선, 2: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3: 교직원 간 소통문화 개선, 4: 학교 간 교류 활성화, 5: 학생역량 향상, 6: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의 이해 제고, 7: 학생의 지역공동체 의식 증가, 8: 학부모 및 지역민의 교육활동 참여 증가, 9: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제고, 10: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증가, 11: 지역사회의 교육 인프라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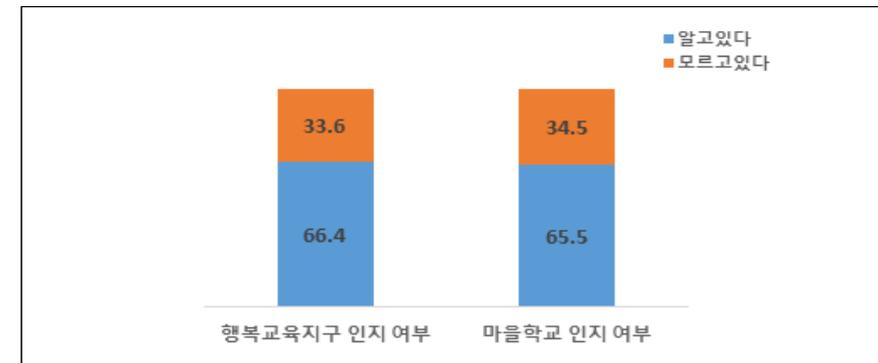


[그림 III-8]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성과 인식_일반학교 교사 vs 행복학교 교사

(다) 마을학교 만족도

(1) 행복교육지구 및 마을학교 인지 여부

교사들 대상으로 마을학교 효과를 알아보기 전에, 김해가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된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그림 III-9] 참조), 전체 응답자 중 김해가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된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66.4%,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33.6%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마을학교 인지 여부에서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65.5%,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34.5%로 나타났다.



[그림 III-9] 행복교육지구 및 마을학교 인지 여부_교사

(2) 마을학교 만족도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는 안다고 응답한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마을학교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표 III-40> 참조), 전체적으로 교사들의 마을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을학교가 ‘학생들의 진로탐색’(M=3.98, SD=.83) 및 ‘학교 밖 다양한 교육활동 경험 제공’(M=3.97, SD=.82)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마을학교의 활성화’(M=3.96, SD=.88) 문항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교사가 중고등학교 교사보다 모든 문항에서 마을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0> 마을학교 만족도_교사

구 분	초 (n=172)	중 (n=118)	고 (n=31)	전체 (N=321)
마을학교 운영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제공한다	4.09(.84)	3.86(.68)	3.77(1.05)	3.97(.82)
마을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준다	4.04(.85)	3.83(.68)	3.71(1.04)	3.93(.82)
마을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은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준다	4.07(.85)	3.88(.72)	3.81(1.08)	3.98(.83)
우리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민 대상 마을교사 양성이 필요하다	3.98(.94)	3.88(.75)	3.87(1.09)	3.93(.89)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마을학교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4.01(.91)	3.93(.77)	3.84(1.07)	3.96(.88)

3)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개선방안

(가) 해결과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41>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지역자원 인프라 구축’(14.2%), ‘학교 밖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14.2%), ‘행복교육지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1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순위로 응답한 내용만을 포함하여 살펴보면,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구축’이 17.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지역자원 인프라 구축’(16.9%), ‘행복교육지구 정책의 철학과 방향 공유’와 ‘행복교육지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15.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 사업의 개선사항

교사들을 대상으로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개선점이나 원하는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기술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김해가 행복교육지구로 사업

<표 III-41>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해결과제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1+2+3)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협력 구축	82(17.0)	29(6.0)	58(12.0)	169(11.6)
행복교육지구 정책의 철학과 방향 공유	75(15.5)	56(11.6)	26(5.4)	157(10.8)
행복교육지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75(15.5)	49(10.1)	70(14.5)	194(13.4)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및 협력 강화	47(9.7)	78(16.1)	57(11.8)	182(12.5)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지역자원 인프라 구축	86(16.9)	75(15.5)	45(9.3)	206(14.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체계적 업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42(8.7)	59(12.2)	46(9.5)	147(10.1)
학교 밖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다양한 마을학교 운영)	45(9.3)	79(16.3)	74(15.3)	198(13.6)
지역주민의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	4(8)	17(3.5)	25(5.2)	46(3.2)
지역 특색사업 운영 및 지역교육 브랜드 구축	13(2.7)	27(5.6)	34(7.0)	74(5.1)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교육력 제고	7(1.4)	13(2.6)	43(8.9)	63(4.3)
기타	7(1.4)	2(4)	6(1.2)	15(1.0)
전 체	483(100.0)	358(100.0)	358(100.0)	1,451(100.0)

을 추진한 지 3년이 되었음에도, 김해가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된 것을 모른다고 응답한 교사가 33.6%, 현재 재직 중인 학교가 행복교육지구 사업 대상학교인지 모른다는 응답이 42.0%,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응답이 34.5%로 나타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사의 업무경감’, ‘마을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지역으로의 확대 및 지원’, ‘마을교사 역량 강화 및 교사와의 협력 강화’, ‘사업의 지속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 학부모

1) 사업의 목표

(가)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1)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및 협력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및 협력 정도⁸⁾를 알아본 결과 (<표 III-42> 참조), 초등학교 학부모가 중·고등학교 학부모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및 협력 정도를 높게 평가하였다($F=17.09,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학부모(3.88)가 일반학교 학부모(3.18)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및 협력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12.52, p<.001$).

<표 III-42>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및 협력_학부모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405	3.53(.81)
	중학교	250	3.20(.70)
	고등학교	112	3.23(.66)
학교 유형	일반학교	550	3.18(.71)
	행복학교	217	3.88(.69)
전 체	767	3.38(.77)	

*** $p<.001$

(2)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 정도⁹⁾를 알아본 결과(<표 III-43> 참조), 고등학교 학부모 3.18, 중학교 3.11, 3.07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학부모(3.23)가 일반학교 학부모(3.04)보다 지역 교육

8) 교사 문항과 동일하게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39였다.

9) 교사 문항과 동일하게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904였다.

<표 III-43>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_학부모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405	3.07(.88)
	중학교	250	3.11(.73)
	고등학교	112	3.18(.75)
학교 유형	일반학교	550	3.04(.78)
	행복학교	217	3.23(.89)
전 체	767	3.10(.82)	

** $p<.01$

인프라 구축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68, p<.01$).

(3) 지역 특색교육 지원

지역 특색교육 지원 정도¹⁰⁾를 알아본 결과(<표 III-44> 참조), 초등학교 학부모가 중·고등학교 학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특색교육 지원 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F=17.09,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학부모(3.63)가 일반학교 학부모(3.18)보다 지역 특색교육 지원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12.52, p<.001$).

<표 III-44> 지역 특색교육 지원_학부모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405	3.39(.78)
	중학교	250	3.20(.62)
	고등학교	112	3.25(.65)
학교 유형	일반학교	550	3.18(.68)
	행복학교	217	3.63(.71)
전 체	767	3.31(.72)	

*** $p<.001, **p<.01$

10) 교사 문항과 동일하게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631이었다.

(4) 지역공동체 의식

지역공동체 의식 정도¹¹⁾를 알아본 결과(<표 III-45> 참조), 초등학교 학부모 3.63, 중학교, 3.60, 고등학교 3.56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학교급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학부모(3.84)가 일반학교 학부모(3.52)보다 지역공동체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75, p<.001$).

<표 III-45> 지역공동체 의식_학부모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405	3.63(.73)	.47
	중학교	250	3.60(.62)	
	고등학교	112	3.56(.64)	
학교 유형	일반학교	550	3.52(.67)	-5.75***
	행복학교	217	3.84(.68)	
전 체		767	3.6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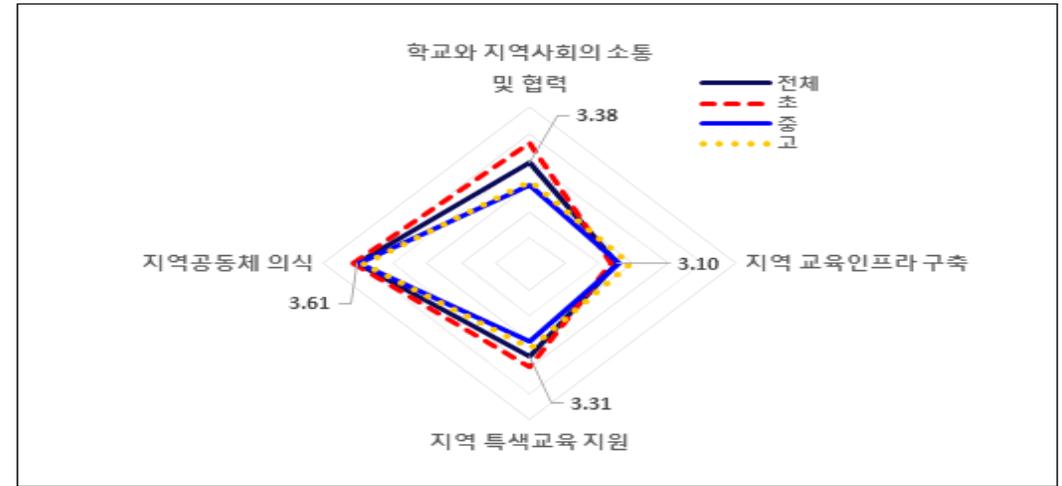
*** $p<.001$

(5) 종합_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영역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영역 중 학부모들은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 정도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고, 다음으로 ‘지역 특색교육 지원’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및 협력’ 영역을 낮게 평가하였다.

학교급별 차이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및 협력 영역과 지역 특색교육 지원 영역에서 초등학교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행복학교 학부모들이 일반학교 학부모들에 비해 영역별 점수가 모두 높았다. 즉 일반학교보다는 행복학교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및 협력,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 지역 특색교육 지원’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학생 문항과 동일하게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615였다.



[그림 III-10] 사업의 목표_① 지역교육공동체 구축(학부모)

2) 사업의 전반적 성과

(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기대

(1)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취지 및 내용 이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를 알아보았다.

<표 III-46>과 같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01, 중학교 2.77, 고등학교 2.61로, 초등학교 학부모가 중고등학교 학부모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8.99,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학부모(3.40)가 일반학교 학부모(2.66)보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9.70, p<.001$).

더 나아가,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예: 토론회, 간담회, 연수 등)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3.84)가 참여 경험이 없는 학부모(2.66)보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3.64, p<.001$).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 마찬가지로,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현재 3년 차에 접어든 것에 비하면, 학부모들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는 대체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III-46>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_학부모

구 분	학교급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초	378	3.01(1.05)	8.99*** (초,중>고, 초>중,고)
	중	239	2.77(.90)	
	고	105	2.61(.89)	
	일반학교	516	2.66(.91)	-9.70***
	행복학교	206	3.40(.98)	
	참여 유	128	3.84(.92)	13.64***
	참여 무	594	2.66(.87)	
전 체		722	2.87(.99)	

***p<.001

(2) 우리 지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 지속

우리지역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47>과 같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학부모가 중고등학교 학부모보다 상대적으로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1.30,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학부모(4.29)가 일반학교 학부모(3.78)보다 김해 지역

<표 III-47> 우리 지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속_학부모

구 분	학교급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우리 지역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초	378	4.11(.77)	21.30*** (초>중,고)
	중	239	3.70(.86)	
	고	105	3.75(.84)	
	일반학교	516	3.78(.85)	-8.69***
	행복학교	206	4.29(.66)	
	참여 유	128	4.42(.72)	7.75***
	참여 무	594	3.82(.82)	
전 체		722	3.92(.83)	

***p<.001

에서의 행복교육지구 사업 지원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8.69, p<.001).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4.42)가 참여 경험이 없는 학부모(3.82)보다 김해 지역에서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속적 지원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7.75, p<.001).

(3)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확대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다른 지역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표 III-48> 참조), 초등학교 학부모 4.03, 중고등학교 학부모는 3.64로 초등학교 학부모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기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1.06,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학부모(4.19)가 일반학교 학부모(3.71)보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기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7.49, p<.001).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4.38)가 참여 경험이 없는 학부모(3.73)보다 상대적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8.43, p<.001).

<표 III-48>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확대_학부모

구 분	학교급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초	378	4.03(.76)	21.06*** (초>중=고)
	중	239	3.64(.83)	
	고	105	3.64(.81)	
	일반학교	516	3.71(.81)	-7.49***
	행복학교	206	4.19(.75)	
	참여 유	128	4.38(.69)	8.43***
	참여 무	594	3.73(.80)	
전 체		722	3.84(.82)	

***p<.001

(나) 사업의 전반적 성과 인식

(1) 학생과 교사 간 관계 개선

학부모를 대상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49>에 제시한 것과 같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학부모(3.65)가 중고등학교 학부모보다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1.11,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학부모(3.96)가 일반학교 학부모(3.27)보다 관계 개선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1.00, p<.001$).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4.03)가 참여 경험이 없는 학부모(3.35)보다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았다($t=9.11, p<.001$).

<표 III-49> 학생과 교사 간 관계 개선_학부모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378	3.65(.79)
	중학교	239	3.29(.80)
	고등학교	105	3.21(.79)
학교 유형	일반학교	516	3.27(.77)
	행복학교	206	3.96(.73)
설명회 참여 유무	참여 유	128	4.03(.88)
	참여 무	594	3.35(.75)
전 체	722	3.47(.82)	

*** $p<.001$

(2)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다양화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50>과 같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학부모가 중고등학교 학부모보다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에 대한 성과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5.49,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학부모(3.91)가 일반학교 학부모(3.22)보다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에 성과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0.59, p<.001$).

<표 III-50>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_학부모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378	3.58(.86)
	중학교	239	3.26(.82)
	고등학교	105	3.19(.75)
학교 유형	일반학교	516	3.22(.78)
	행복학교	206	3.91(.81)
설명회 참여 유무	참여 유	128	4.01(.92)
	참여 무	594	3.29(.77)
전 체	722	3.42(.85)	

*** $p<.001$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4.01)가 참여 경험이 없는 학부모(3.29)보다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았다($t=9.21, p<.001$).

(3) 학교 간 교류 활성화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학교 간 교류가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51>에 제시한 것과 같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학부모가 중고등학교 학부모보다 학교 간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2.20,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학부모(3.65)가 일반학교 학부모(3.24)보다 학교 간 교류 활성화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9.06, p<.001$).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3.74)가 참여 경험이 없는 학부모(3.10)보다 학교 간 교류 활성화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았다($t=7.10, p<.001$).

<표 III-51> 학교 간 교류 활성화_학부모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378	3.36(.84)	12.20*** (초>중,고)
	중학교	239	3.05(.77)	
	고등학교	105	3.10(.79)	
학교 유형	일반학교	516	3.04(.76)	-9.06***
	행복학교	206	3.65(.82)	
설명회 참여 유무	참여 유	128	3.74(.97)	7.10***
	참여 무	594	3.10(.74)	
전 체		722	3.22(.82)	

***p<.001

(4) 학생역량 향상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자기주도성이나 공동체 역량 등과 같은 학생역량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학부모가 중고등학교 학부모보다 학생역량 향상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7.09,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학부모(3.80)가 일반학교 학부모(3.14)보다 학생역량 향상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9.76, p<.001).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예: 토론회, 간담회, 연수 등)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

<표 III-52> 학생역량 향상_학부모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378	3.50(.84)	17.09*** (초>중,고)
	중학교	239	3.13(.79)	
	고등학교	105	3.16(.87)	
학교 유형	일반학교	516	3.14(.77)	-9.76***
	행복학교	206	3.80(.84)	
설명회 참여 유무	참여 유	128	3.96(.85)	9.93***
	참여 무	594	3.19(.78)	
전 체		722	3.33(.85)	

***p<.001

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3.96)가 참여 경험이 없는 학부모(3.19)보다 학생역량 향상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았다(t=9.93, p<.001).

(5) 학교생활만족도 증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가 증가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53>과 같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학부모가 중고등학교 학부모보다 학교 간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9.25,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학부모(4.02)가 일반학교 학부모(3.25)보다 학교 간 교류 활성화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1.89, p<.001).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3.74)가 참여 경험이 없는 학부모(3.10)보다 학교 간 교류 활성화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았다(t=10.23, p<.001).

<표 III-53> 학교생활만족도 증가_학부모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378	3.70(.84)	29.25*** (초>중,고)
	중학교	239	3.22(.83)	
	고등학교	105	3.23(.81)	
학교 유형	일반학교	516	3.25(.78)	-11.89***
	행복학교	206	4.02(.82)	
설명회 참여 유무	참여 유	128	4.13(.84)	10.23***
	참여 무	594	3.33(.80)	
전 체		722	3.47(.87)	

***p<.001

(6)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의 이해 제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표 III-54> 참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학부모가 중고등학교 학부모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의 이해 제고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4.56, p<.001).

<표 III-54>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의 이해 제고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378	3.44(.82)	14.56*** (초>중,고)
	중학교	239	3.13(.80)	
	고등학교	105	3.08(.78)	
학교 유형	일반학교	516	3.11(.76)	-8.88***
	행복학교	206	3.70(.82)	
설명회 참여 유무	참여 유	128	3.87(.84)	9.38***
	참여 무	594	3.16(.76)	
전 체		722	3.28(.82)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학부모(3.70)가 일반학교 학부모(3.11)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의 이해 제고에 대한 성과 인식을 더 높게 하였다($t=-8.88, p<.001$).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예: 토론회, 간담회, 연수 등)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3.87)가 참여 경험이 없는 학부모(3.16)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의 이해 제고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았다($t=9.38, p<.001$).

(7) 학생의 지역공동체 의식 증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학생들의 지역공동체 의식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55>와 같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학부모가 중고등학교 학부모보다 학생의 지역공동체 의식 증가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9.32,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학부모(3.68)가 일반학교 학부모(3.12)보다 학생의 지역공동체 의식 증가에 대한 성과 인식을 더 높게 하였다($t=-8.24, p<.001$).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3.84)가 참여 경험이 없는 학부모(3.16)보다 학생의 지역공동체 의식 증가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았다($t=8.27, p<.001$).

<표 III-55> 학생의 지역공동체 의식 증가_학부모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378	3.40(.84)	9.32*** (초>중,고)
	중학교	239	3.13(.76)	
	고등학교	105	3.16(.83)	
학교 유형	일반학교	516	3.12(.75)	-8.24***
	행복학교	206	3.68(.86)	
설명회 참여 유무	참여 유	128	3.84(.86)	8.27***
	참여 무	594	3.16(.76)	
전 체		722	3.28(.82)	

***p<.001

(8) 학부모 및 지역민의 교육활동 참여 증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학부모 및 지역민의 교육활동 참여가 증가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표 III-56> 참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학부모가 중고등학교 학부모보다 학부모 및 지역민의 교육활동 참여 증가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7.15,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학부모(3.68)가 일반학교 학부모(3.04)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의 이해 제고에 대한 성과 인식을 더 높게 하였다($t=-9.20, p<.001$).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

<표 III-56> 학부모 및 지역민의 교육활동 참여 증가_학부모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378	3.39(.90)	17.15*** (초>중,고)
	중학교	239	3.00(.78)	
	고등학교	105	3.09(.79)	
학교 유형	일반학교	516	3.04(.79)	-9.20***
	행복학교	206	3.68(.87)	
설명회 참여 유무	참여 유	128	3.87(.90)	9.16***
	참여 무	594	3.08(.79)	
전 체		722	3.22(.86)	

***p<.001

이 있는 학부모(3.87)가 참여 경험이 없는 학부모(3.08)보다 학부모 및 지역민의 교육활동 참여 증가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았다($t=9.16, p<.001$).

(9)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제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더 많이 소통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57>과 같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학부모가 중고등학교 학부모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제고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2.32,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학부모(3.63)가 일반학교 학부모(3.07)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제고에 대한 성과 인식을 더 높게 하였다($t=-8.16, p<.001$).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3.81)가 참여 경험이 없는 학부모(3.10)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제고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았다($t=8.01, p<.001$).

<표 III-57>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제고_학부모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378	3.37(.86)
	중학교	239	3.05(.78)
	고등학교	105	3.10(.73)
학교 유형	일반학교	516	3.07(.76)
	행복학교	206	3.63(.86)
설명회 참여 유무	참여 유	128	3.81(.94)
	참여 무	594	3.10(.75)
전 체	722	3.23(.83)	

*** $p<.001$

(10)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증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지역사회 자원이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활동이 증가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표 III-58> 참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학부모가 중고등학교 학부모보다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증가에 대한 성

<표 III-58>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증가_학부모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378	3.35(.87)
	중학교	239	3.08(.78)
	고등학교	105	3.11(.76)
학교 유형	일반학교	516	3.07(.77)
	행복학교	206	3.61(.86)
설명회 참여 유무	참여 유	128	3.84(.91)
	참여 무	594	3.09(.76)
전 체	722	3.22(.83)	

*** $p<.001$

과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9.17,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학부모(3.61)가 일반학교 학부모(3.07)보다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증가에 대한 성과 인식을 더 높게 하였다($t=-7.85, p<.001$).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예: 토론회, 간담회, 연수 등)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3.84)가 참여 경험이 없는 학부모(3.09)보다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증가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았다($t=8.51, p<.001$).

(11)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확충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교육관련 인프라가 풍부해졌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59>와 같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학부모 3.28, 고등학교 3.10, 중학교 3.03으로, 초등학교 학부모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확충에 대한 성과 인식이 가장 높았다($F=6.90, p<.001$).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 학부모(3.47)가 일반학교 학부모(3.05)보다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확충에 대한 성과 인식을 더 높게 하였다($t=-6.11, p<.001$).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참여 유무별로 살펴보면,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3.75)가 참여 경험이 없는 학부모(3.09)보다 지역 교육자원을 활

<표 III-59>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확충_학부모

구분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F값/t값
학교급	초등학교	378	3.28(.84)	6.90*** (초,고>중, 초>중,고)
	중학교	239	3.03(.80)	
	고등학교	105	3.10(.73)	
학교 유형	일반학교	516	3.05(.77)	-6.11***
	행복학교	206	3.47(.86)	
설명회 참여 유무	참여 유	128	3.75(.87)	8.51***
	참여 무	594	3.05(.75)	
전 체		722	3.1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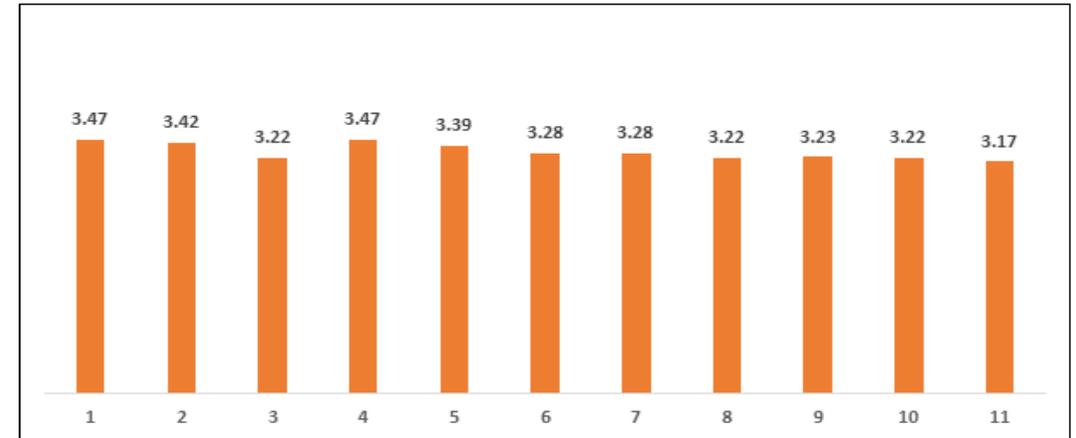
*** $p<.001$, ** $p<.01$

용한 교육활동 증가에 대한 성과 인식이 더 높았다($t=8.51$, $p<.001$).

(12) 종합_사업의 성과 인식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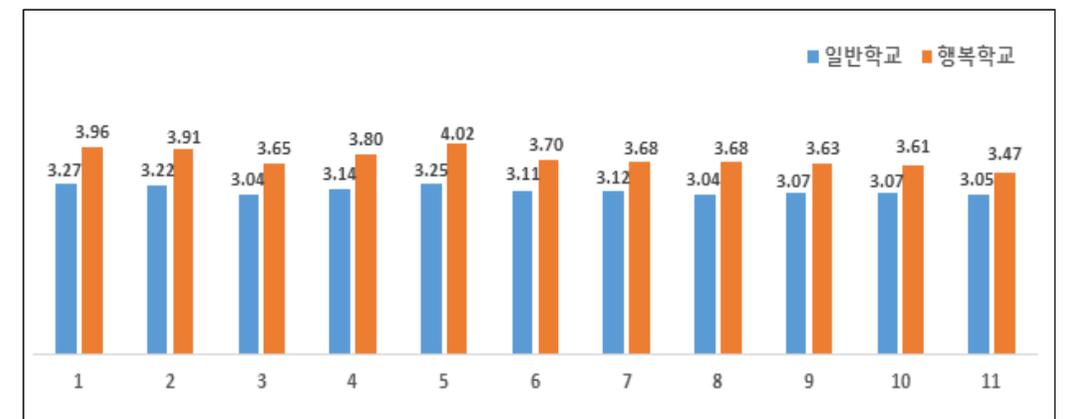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들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인식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학교와 행복학교 학부모들 간의 성과 인식에는 차이가 있어, 행복학교 학부모들이 일반학교 학부모들에 비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성과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확충’ 영역을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다음으로는 ‘학교 간 교류 활성화’, ‘학부모 및 지역민의 교육활동 참여 증가’,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증가’와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제고’ 순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부모들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학교 간 교류 활성화나 학교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증가 및 학부모와 지역민의 교육활동 증가에 기여했다는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I-11]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성과 인식_학부모

1: 학생과 교사 간 관계 개선, 2: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3: 학교 간 교류 활성화, 4: 학생역량 향상, 5: 학교생 활만족도 증가, 6: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의 이해 제고, 7: 학생의 지역공동체 의식 증가, 8: 학부모 및 지역민의 교육활동 참여 증가, 9: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제고, 10: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증가, 11: 지역사회의 교육 인프라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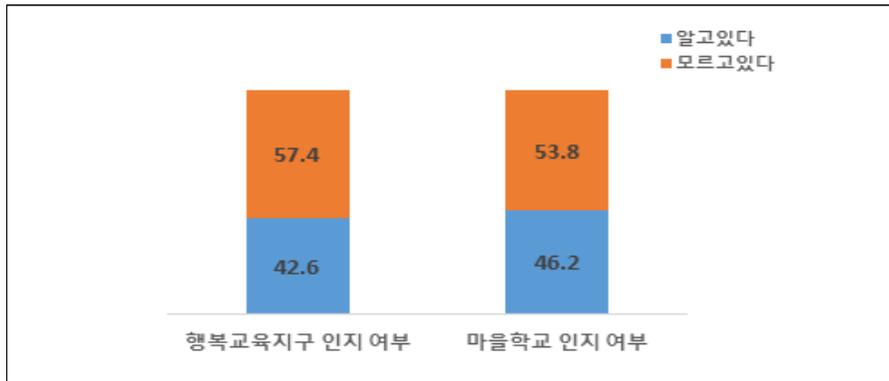
[그림 III-12]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성과 인식_일반학교 학부모 vs 행복학교 학부모

(다) 마을학교 만족도

(1) 행복교육지구 및 마을학교 인지 여부

학부모들 대상으로 마을학교 효과를 알아보기 전에, 김해가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된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그림 III-13] 참조), 전체 응답자 중 김해가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된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42.6%,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57.4%로 김해가 행복교육지구인 것을 모르는 학부모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마을학교 인지 여부에서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46.2%,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53.8%로 마을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모르는 학부모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3] 행복교육지구 및 마을학교 인지 여부_학부모

(2) 마을학교 만족도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응답한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마을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표 III-60> 참조), 전체적으로 학부모들의 마을학교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들은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마을학교 활성화’(M=4.00, SD=.71)와 ‘지역민 대상 마을학교 양성’(M=3.93, SD=.75)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학부모가 중고등학교 학부모보다 모든 문항에서 마을학

<표 III-60> 마을학교 만족도_학부모

구 분	초 (n=209)	중 (n=90)	고 (n=28)	전체 (N=327)
마을학교 운영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제공한다	3.86(.74)	3.48(.72)	3.71(.66)	3.74(.75)
마을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준다	3.84(.77)	3.61(.77)	3.64(.62)	3.73(.77)
마을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은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준다	3.80(.75)	3.53(.81)	3.71(.60)	3.72(.76)
우리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민 대상 마을교사 양성이 필요하다	4.04(.77)	3.74(.68)	3.68(.61)	3.93(.75)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마을학교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4.14(.69)	3.76(.68)	3.71(.60)	4.00(.71)

교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목표 영역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 상관없이 학교혁신 영역에서의 점수는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영역에서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행복학교 및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수업혁신 및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과 관련된 학교혁신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과 관련된 목표 영역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자원 발굴 및 교육인프라 구축, 마을교육과정 운영 및 마을교사 수업 활용 등과 같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들의 마을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마을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교사와 학부모들의 마을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 교사들은 마을학교가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고 다양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학부모들은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마을학교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셋째, 마을학교에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체험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진로성숙도, 의사소통능력, 민주시민성 점수가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 및 학교 밖 단체활동을 통해 학생 개인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율성을 키우며, 타인과 소통·배려하는 과정에서 협동심과 책임감을 함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마을학교 운영의 취지와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학생역량 향상뿐만 아니라 마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지역공동체 의식 점수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원하자는 마을학교 참여 경험이 내가 살고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 및 애착에도 어

느 정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설명회나 토론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사업 지속 및 확대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나 학부모들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관심은 사업의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교사나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설명회나 간담회, 토론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방식의 홍보 활동을 통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취지 및 방향을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부모 및 교사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인식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사업의 성과로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교직원 간 소통문화 개선’을 높게 인식한 반면, ‘학교 간 교류 활성화, 학생의 지역공동체 의식 증가,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제고’를 낮게 인식하였다. 학부모들은 ‘학생과 교사 간 관계 개선, 학생역량 향상,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사업의 성과로 높게 인식한 반면,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확충, 학교 간 교류 활성화, 학부모 및 지역민의 교육활동 참여 증가,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낮게 인식하였다. 현재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학교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행복학교 기반 조성 및 일반화와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간의,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벽을 허물고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교육공동체 구성원에 상관없이 사업의 목표 영역뿐만 아니라 성과 영역 모두에서 행복학교가 일반학교보다 긍정적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학교의 수업혁신 및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등 단위학교 내부에서의 학교혁신 노력이 지역사회로까지 공교육 혁신을 확산하고자 한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함께 이루어질 때 그 상생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행복학교 위주의 일부 학교만이 참여하고 있어 사업의 성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행복교육지구 사업 지원이 일부 행복학교에 집중됨으로써 행복학교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일반학교 대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복학교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행복학교와 일반학교 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

육 활성화함으로써 학교 간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사업의 성과와 한계 및 개선 방안: 집담회(FGI) 분석

가. 집담회(FGI) 개요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담당자와 교사, 그리고 마을활동가(마을교사)들을 대상으로, 김해지구 사업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사업으로 인해 나타난 변화 및 성과, 그리고 개선점이나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집담회(FGI)를 실시하였다.

집담회는 <표 III-61>에 제시한 것처럼, 사업담당자 집단 4명,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집단 4명, 그리고 마을활동가 집단 4명씩 총 12명이 참여하였다. 교사집단은 행복학교와 일반학교 초·중 교사 각각 1명씩으로 구성하였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주로 초·중학교 위주로 지원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사는 제외하였다.

집담회 조사 내용은 다음 <표 III-62>와 같이, 크게 김해지구 사업으로 인해 나타난 변화 및 사업의 성과, 김해지구 사업의 개선점 및 발전 전략, 그리고 경남

<표 III-61> 집담회 참석 대상자

구분	참석자	일시
마을활동가 집단	박○○(마을교사)	19.9.6.(금). 10:00
	노○○(마을교사, 김해행복교육지원센터 정책실무팀 위원)	
	김○○(김해토론촉진단 단장)	
	허○○(작은도서관 관장, 김해행복교육지원센터 정책실무팀 위원)	
사업담당자 집단	김○○(김해행복교육지원센터 담당장학사)	19.9.6.(금). 13:00
	정○○(김해행복교육지원센터 파견교사)	
	김○○(김해시청 파견공무원)	
	박○○(김해교육지원청 공무원)	
교사집단	신○○(초, 일반학교)	19.9.9.(월). 15:30
	장○○(초, 행복학교)	
	송○○(중, 행복학교)	
	배○○(중, 일반학교, 꿈키움마을학교 담당)	

<III-62> 집담회 조사 내용

영역	질문 내용	비고
I. 김해지구 사업의 성과(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지구가 가지고 있는 강점 및 약점 - 김해 지역의 지역적 특징(예: 환경적 특성, 교육적 특성, 지구 내 학교 특성,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정도 등) ○ 김해지구에서 추진한 구체적인 세부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 ○ 김해지구만의 특색사업(지역특성화 사업) 	사업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동안) 사업을 통해 나타난 변화 및 성과 -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증가 -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교육활동 참여 기회 증가 -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조성 - 학교 간 교류 활성화 -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제고 등 	공통
II. 김해지구 사업의 개선점 및 발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예: 인력, 예산, 지자체와의 협력,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 ○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김해시청)에 바라는 점 ○ 김해지구가 지속적으로 운영·정착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방법 	사업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예: 사업의 취지 및 내용 등) ○ 마을활동가(혹은 마을교사)로서의 어려움 ○ 사업 지원과 관련된 아쉬움이나 요구사항 ○ 마을활동가(혹은 교사)로서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에 바라는 점 ○ 김해지구가 지속적으로 운영·정착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방법 	마을 활동가
III. 경남 행복지구의 지속·발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행복교육지구의 지속적·안정적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및 나아가 할 방향 	공통

행복교육지구의 발전 방안 영역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집담회를 통해 얻은 자료는 김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성과에 대한 양적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김해 행복교육지구 발전 전략뿐만 아니라 경남 행복교육지구 발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였다.

나. 사업의 성과와 한계 및 개선 방안

1) 변화와 성과

(가) 학생역량 계발

본 집담회에 참여한 사업담당자나 교사, 마을활동가들은 모두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율동아리, 문화체험 및 진로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이나 공동체 역량 등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2017년 첫해에 거의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키움 마을학교를 했었는데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어요. 자율동아리에 지원을 해줘서, 이게 자율동아리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느냐면 일반 방과후 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지원이 되거든요. 방과후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짜요. 강사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모집해요. 물론 그 전에 수요조사는 하기는 해요. 뭘 하고 싶니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 자율동아리는 그렇게 안 하고, 학생 중심이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는 거야, 자기 주도적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모임은 깨지고, 또 새로 하고, 이런 속에서 정말 동아리를 구성하고 이렇게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이런 능력들을 자기들이 기르는 거예요. 이게 꿈키움 마을학교에서의 어떤 성과인 것이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과가 있고, 애들이 좋아하고, 이게 그 지금 시대의 교육 방식하고도 딱 맞아요. (배○○, 일반학교 중등교사)

애들이 정말 많이 변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놀이수업을 해보면 진짜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내가 뭐 주목받고 싶어 하고 이런 애들이 단체로 놀아야 되잖아요. 혼자서 못 놀거든요. 단체로 놀다 보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친구들과하고 마찰이 생기고 이런 것을 꾸준하게 알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애들이 정말 잘 어울려서 잘 놀아요. (박○○, 마을교사)

(나)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개선 및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증가

교사들은 마을교육과정 운영 및 마을교사 수업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

공해 주고, 이러한 다양한 마을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이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개선이나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즐거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학교 교육으로는 모든 걸 감당하기는 힘든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마을교사들이 참여하는 수업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이런 분들이 학교에 들어오셔서 같이 또 활동을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항상 자기가 아이들을 놓고 이렇게 관리하고 봐야 하는데, **외부의 다른 분이 오셔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을 때 한 발짝 뒤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을 관찰할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또 하다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애들은 살짝 불러서 상담도 할 그런 기회도 생기고, 그러면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관계도 또 어느 정도는 많이 좋아질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배○○, 일반학교 중등교사)

마을교사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6학년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학예회를 앞두고 어, 탭댄스라든가 택견이라든지 우리가 지도하기 힘든 걸 가지고 와서 학예회 종목으로 같이 연습을 시켜서 올렸거든요. **선생님이 다룰 수 없는 걸 애들이 해보니까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2학기 때는 두 개 학년을 더 신청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감이 되어서 못 했거든요. (신○○, 일반학교 초등교사)

(다) 교육과정의 다양화

교사들은 행복한 학습공동체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이 다양화되고, 이러한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교사들의 노력이 학생들의 수업에 재미와 활기를 주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더 나아가, 집담회에 참여한 행복학교 교사들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교사들이 김해지역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성장하고, 이러한 교사들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지역과 연계한 수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사업의 성과로 보고하였다. 이는 행복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지역연계 프로젝트 수업 및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중심형 수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반학교

에 비해 행복학교 학생들의 ‘학교수업과 지역사회 연계’ 나 교사의 ‘지역에 대한 이해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행복한 학습공동체 사업을 지원받아 좋은 점은 교육과정이 조금 더 재밌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이 좀 더 재미있고 활동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쨌든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우리 애들한테 맞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같이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는 것들도 어떤 걸 하면 더 좋을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농사를 직접 해보고, 그래서 수업을 좀 재미있게. 또 6학년 같은 경우는 조금 무미건조하게 되기 쉽거든요, 수업 자체도. 그래서 또 활력도 있고 애들한테, 경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신○○, 일반학교 초등교사)

저희 사례를 조금 풀면 저희는 4년째 돈을 받아서 교육과정 재구성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사연수로도 쓰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는데 그 타이틀은 **지역교육 프로젝트예요. 김해지역 프로젝트.** ... 처음에는 저희가 그 프로젝트 진행할 때 조사를 해보니까 선생님이 김해에서 나서 자란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외지인들이 김해에 와서 김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어 이거 뭐지 우리부터 알아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선생님들부터 내 지역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 지역을 알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 이 지역의 위상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수업에 다시 녹아내리게 되고 또 실천의 날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직접 본인들이 지역 내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배울 것인지 찾아서 나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또 배운 내용을 공유하고. (송○○, 행복학교 중등교사)

(라) 학생들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행복교육지구는 학교가 지역(마을)과 연계하여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행복학교 교사들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 및 애향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사업의 성과로 보고하였다.

처음에 이 아이들이 김해에서도 학교 집 학교 집 밖에 경험한 적이 없는 거에

요. 정말 근처에 수영장이 어디에 있는지, 운동장이 어디에 있는지, 버스를 타고 나가본 아이들도 없고. 저희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계획 짜고 인솔교사 없이 자기들끼리 나가서 다니는 거거든요. 이론으로 배우고 실제로 그러니까 새롭게 이런 데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 순간에는 되게 힘들어하는데 나중에 막 이렇게 발표할 때 보면 되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약간 애항심 비슷한 것도 생기는 거예요. 내 고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하고자 했었던 지점이 소속감, 결국에는. 우리는 왜 항상 서울만 가고 싶어 하고 막 이러잖아요. 언젠가 돌아올 지점이고, 언젠가 성장했던 시절을 얘기할 지점인데 학교 외에는 할 얘기가 없다는 거죠. (송○○, 행복학교 중등교사)

(마) 학부모 및 지역민의 교육활동 참여 기회 마련

학생들의 삶과 배움이 전개되는 공간은 크게 학교와 마을이기 때문에 행복교육지구에서 마을은 교육공동체의 중요한 주체가 되며, 이런 측면에서 지역(마을)의 교육자원 및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집담회에 따르면, 사업담당자나 교사들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학부모 및 지역민의 교육활동 참여 기회가 마련된 것을 사업의 성과로 보고하였다.

특히 행복학교 교사들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을 통해 교사 대상의 역량 연수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이나 연수를 진행하고, 이러한 학부모 연수를 통해 학부모가 다시 학교로, 지역사회의 마을교사로 활동하는 선순환 구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일단 지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역의 인자(人子)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 그걸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뭘 할 수는 있는데, 일거리가 없다든지 기회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집에서 그냥 묵히고 있던 분들이 이제 막 밖으로 나오고 계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정○○, 사업담당 과학교사)

행복한 학습공동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연계와 관련된 거. 지역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쪽으로 조금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부모 연수를 통해 학부모가 학교에 많이 들어오시게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뭔지를 좀 알려 드리고. 저희가 어 작년, 올해, 그전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들 하고 같이 떠나는 문학 기행. ... 학교 자체의 예산 가지고는 학부모님들 참여하는 예산까지 쓰기가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학습공동체 자체가 마을교육과정 관련되는 부분일 때 오히려 저희는 쓰기는 더 편하죠. 그러면서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참여하고, 다른 식으로 또 나누기도 하고. 학부모님들이 다시 또 마을교사로 학교에 다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장○○, 행복학교 초등교사)

2) 한계

(가) 교육청과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의 어려움 및 지자체의 소극적 지원

김해 행복교육지구가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김해교육지원청과 김해시 간의 협력이 여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김해 행복교육지구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경남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김해시 입장에서는 여전히 도와준다는 소극적 지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김해만의 문제는 아닌데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학생 교육의 몫을, 책임을 학교와 교육청과 선생님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많다.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업을 전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다. ... 협력이라는 것은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같이 해야 한다는 개념인데 협력 관계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여전히 어렵다. (김○○, 사업담당 장학사)

(나) 담당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사업 철학 공유 및 유기적 협력의 어려움

2017년보다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 및 협력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높아졌지만, 복잡다단한 업무의 특성상 담당자들의 잦은 이동 및 기피로 인해 지속적인 사업 운영의 어려움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들의 단기근무로 인한 이동은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역량 제고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교육청 소속 업무 담당자에게도 해당하여 과학교사의 2년 단기근무로 인한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연속성 확보의 어려움, 행정직 공무원의 예

산지출 관련 업무처리의 어려움 등도 함께 지적되었다.

물론 지자체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면 우리 사업의 내용을 알고 그걸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이제는 지자체가 '지역사회가 학생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학교와 선생님들의 몫이 아니다, 우리 모두 함께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고 담당자들이 바뀌면 다시 시작해야 하죠. 또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되면 또 담당자가 바뀌고, 바뀌고 이런 문제점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김○○, 사업담당 장학사)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말발도 없고 여기에 진짜 뭐 7급 정도 와 계시면, 뭐 행복교육에 대해서 같이 생각도 하고, 운영에도 좀 참여하고, 그리고 본청에 올라가서 건의도 하고 그럴텐데, 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할 짬밥이 안 되니까 좀 그렇거든요. 조금 경력이 있거나 힘 있는 분이 오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에도 막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건의도 좀 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파워 있는 분이 오시면... (김○○, 김해시청 파견공무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마을교사분들을 좀 다양하게, 좀 다양한 분들이 많이, 한 시간을 참여하더라도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데 곧 가야 합니다. (정○○, 사업담당 파견교사)

(다) 행복교육지구 내 학교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미약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현재 행복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한 행복학교 기반 조성 및 일반화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학교 운영 및 지역사회 중심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행복학교 일반화를 위해서는 행복교육지구 내 행복교육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학교 간의 교육과정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집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의하면, 행복학교와 일반학교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학교 간의 소통 및 협력적 교류가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또한 행복학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배움중심의 수업개선이나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노력이 일반학교까지 확산되기에는 현재 학교 간의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수업혁신을 위

한 일부 교사들의 자생적인 모임이나 연구회가 조직되어 조금씩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낙관적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초등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한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 뿌려요, 경남 전체 지역. 그런데 경남 전체를 해도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남, 김해 안에도 물론 그렇지만 참여율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14번 정도 열었거든요. 그런데 참여하신 분들 누계를 해보니까 100분이 안 넘어가는 거야. 14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고. 올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크라든지 일반학교와 네트워크를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일반학교에서 받아들이는 정도는 아직까지 조금 냉랭하다. ... 그런데 선생님 내부에서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만들어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장○○, 행복학교 초등교사)

일반학교에는 수업혁신 시스템 확산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죠. 그들만의 활동 이렇게 하고 거기서는 뭐 회복적 이런 거 역수로 하는데, 그 안에서는 하지만 또 그 밖은 냉랭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온도를 못 느끼고... (신○○, 일반학교 초등교사)

(라) 지역 교육자원 활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부족 및 기피

지역민이나 지역자원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학교의 거부감이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낮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마을교육과정 운영이나 마을교사 수업 활용 시의 귀찮음이나 행정업무 가중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시도를 꺼린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학교나 교사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을교사 수업 활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제고 및 학교가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설명회나 홍보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는 외부에 사람 들어오는 거 그렇게 반기지 않거든요. 그런 마인드가 아직 선생님들 대부분한테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으면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면 애들이 그러니까 좀 이상해진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나쁜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직접 겪는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힘든 거

죠.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하시는 분만 하시는 거예요. (정○○, 사업담당 파견교사)

중학교 같은 경우 실제로 수업을 하는 데 마을교사가 필요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협조를 구할. 내 과목인데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게 마을교사와 수업이 되려면 이제 융합수업으로 간다든지 일단 교육과정과 좀 벗어난, 중학교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중학교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면 이게 되는데 아직은 그런 개념이 없어서. 실제로 뭐 벽이 있다기보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교사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굳이 또 마을교사를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차라리 방과후에 뭐 요리를 지도해 준다든지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좀 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바빠서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도를 해주는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한 거예요. (배○○, 일반학교 중등교사)

사실 그런 것도 있는데, 행정상으로 선생님이 일하려다 보면 행정적으로 그 일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를, 감당을 처음에 알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해보니까 어, 별로 어렵지 않네, 그래서 우리 지금 2학년 2학기 때 하겠다는 팀도 제가 해 주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행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아요, 사실 거의.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죠. 그냥 이게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모르니까 내가 이거 얼마만큼 해야 할지 모르는데 나중에 쉽사리 했다가 어구야 이거 힘들면 어떡해, 약간 이런 걱정도 있는 거죠. (신○○, 일반학교 초등교사)

(마)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 미흡

행복교육지구 추진 목적 중의 하나는 학교와 마을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자원을 축적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이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이나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 교육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문화, 예술, 진로활동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학교 밖 배움터를 발굴하고, 학부모, 지역주민, 재능기부자 등과 같은 마을공동체 인력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이들 자원을 교육

활동에 적절하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제 학교의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선생님들도 지역을 보고 지역 밖으로 마을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한다. 학교 안에서만 모든 교육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학생들의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교육과정, 학생들의 배움을 지역으로 확장 시켜야 한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바로 그래요. 학생들을 데리고 문밖으로 나가면 할 게 없대요. 배움터가 아니에요. 마을이 지금은. 이제 문제는 마을이 배움터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실제로 학생들을 데리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불만도 당연히 있는 거고. (김○○, 사업담당 장학사)

저희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지원해주는 마을교사랑 이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마을선생님들의 인프라를 봤었을 때, 솔직히 조금 한정적이잖아요. (송○○, 행복학교 중등교사)

(바) 마을교사의 효율적 운영 및 활용의 제한성

마을교사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나 갈등, 그리고 마을교사 활용의 쏠림 현상 등 마을교사의 운영 및 효율적 활용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사업 초기보다는 학교에서의 마을교사 활용이 많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관심을 가진 일부 교사의 개인적 역량이나 행복학교 위주로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마을교사 지원 인력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방안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학교에서 마을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마을교사의 입장과 이 일을 집행하고 끌고 가는 입장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을교사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부 몇 분들이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마을교사들이 지금 현재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속가능하게 아이들을 돌봐주고 배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교사끼리도 서로 경쟁하고 부딪히는 거는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김○○, 사업담당 장학사)

이거 하신 분이 이거도 하고 저거도 하고, 계속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했던 분이 여기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것에 다 발이 걸쳐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김○○, 마을활동가)

마을교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학교가 얼마나 신청했는지 그 결과가 참 궁금한데요. 행복학교 위주로 사실 신청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학교는 일반학교인데, 우리 부장님이 이런 생태를 잘 알고 있어서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좋다는 말이죠. 해본 우리는 좋으니까 또 신청한 거예요. 우리학교 안에서도 소문이 나니까 안 해본 다른 학년에서도 우리도 해 볼까, 이제 딱 이 단계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된 거지, 일반학교에서는 잘 시도를 안 한다는 거죠. 시도하지 않은 학교는 전혀 확산될 기미조차도 없는 거예요. (신○○, 일반학교 초등학교)

3) 개선 방안

(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철학 공유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혁신교육을 통한 성과를 더욱 의미 있게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차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손문숙, 2019). 따라서 마을교육과정 개발이나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에 대한 조급함보다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철학 공유 및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 속에서 지역사회와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진짜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분명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이라는 그거보다는 정말 어떤 철학이다, 철학이고, 뭐라고 해야 하나, 시대정신, 패러다임, 이런 생각을 갖고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여기 특히 경남지역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 그 개념을 잡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다. ... 사실은 이런 거는 좀 드러내기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게 과정이잖아요. 그게 공동체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떨어져 나갈 사람은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우리의 철학과 방향이 공유되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참 길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

다. 시흥 같은 경우는 10년이 걸렸는데, 아직도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 사업담당 파견교사)

저는 마을교육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더 길게 가야 된다고, 이제 2~3년밖에 안 됐는데 바로 뭔가를 찾는다는 건 조금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 같아요. 이제 중간 지점의 차원에서 모인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더디게 가지만, 더디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급하면 탈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가고, 마을교사분들도 점점 전문성을 쌓아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 행복학교 초등학교)

(나) 교육에 대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 개입 및 협력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거버넌스 차원의 접근을 통해 지방자치기관과 교육자치 기관의 동등한 관점에서의 연계·협력과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역민 간의 상호협력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함께 교육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박성호, 2017). 따라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 협업을 통한 지역교육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일단은 마을교육공동체라면 마을이라는 개념에는 교육과 관련된 기관과 학생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마을의 주가 될 수 있는 시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가 될 수도 있고 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분들이 들어와서 뭘 하는지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실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직책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교육과정하고,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방과후에 마을로 흩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마을교육공동체라고 생각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 지원이 꼭 필요해요.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되는 건 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시가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시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다시 그 시로 흡수되고 거기에서 뭔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시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냥 일개의 사업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죠.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단지 지금 떨어진 앞만 보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죠. (장○○, 행복학교 초등학교)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개념이 나온 것도 학교로서는 교육혁신이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을교육공동체가 나왔다는 거로 저는 들었고, 또 실제로 해보면 그것이 대안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교육적으로 너무나 많이 번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거를 담당하는 주체가 누구냐고 따져봤을 때는 마을에서 그거를 담당해야 하는데, 그러면 마을 주체를 양성해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마을교육공동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변하는 부분이 꼭 필요해요. 제가 2년 동안 다른 학교, 뭐 다른 저기 오산이나 이런 선진 지역에도 가보고 왔었는데, 마을교육공동체가 제대로 되려면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 이 부분이 안 되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배○○, 일반학교 중등교사)

(다) 마을교육공동체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지속적인 지역 혁신과 공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단순히 지자체의 예산과 교육청의 지원을 활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백병부 외, 2016). 특히 학교는 학교라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활동에 활용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민 대상의 마을교육공동체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을학교라는 개념이 생소하고, 아직까지 홍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개념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도 잘 모르고, 학생도 잘 모르고, 교사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교육지구에 관계된 사람들과 마을교사들, 마을교사라고 등록된 선생님들 중에서도 일부만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나쁘게 이해하는 사람은 그냥 방과후, 방과후 교사의 변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개념을 또 그러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이걸 왜 또 우리가 하지, 제가 학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걸 왜 해야 돼, 이걸 교육청이나 다른 데서 하지. 그러니까 이게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아직 개념들이 잘 안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필요성을 알고 그걸 이해하는 속에서 일을 해도 어려운데 이 개념조차도 생소한 거예요. (배○○, 일반학교 중등교사)

(라) 마을교사에 대한 역할 정립 및 역량 강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지역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가 필

요하다. 특히 현재 마을학교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교사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서로 협의와 논의의 장을 통해 마을교사에 대한 역할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을교사들에게 지속적인 연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마을교사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정말 잘못된 마을교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좀 모여서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활발하게 그런 것들을 좁혀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우리가 과도기다 보니까. 이제야 제가 그것도 깨달은 거예요. 3년 만에. 그것도 제가 중심에서 토론축진단을 운영하고 계속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야 저도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많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구나, 심지어 마을교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제 돈벌이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김○○, 마을활동가)

서로 서로가 협력해서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자발적인 우리 협의회 모임인데, 이것도 우리가 교육청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뜻이 맞는 우리가 모여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발적인 모임이 만들어져야 되고. 아까 선생님 말씀했듯이 마을교사 각자가 목적을 달리 왔지만 어떤 영화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독립운동에 관한 역을 굉장히 많이 맡았는데 처음에는 자기는 할 수 없다 생각했지만, 계속 독립운동가 배역을 맡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도 독립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는 듯이, 처음에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왔지만, 우리가 계속 회의나 어떤 협의회가 진행되면서 아 이렇게 내가 봉사도 할 수 있고 아이도 도울 수 있구나, 서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 마을활동가)

IV.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발전 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김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김해 행복교육지구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김해 행복교육지구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김해 행복교육지구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한 만큼,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경남 행복교육지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성과지표를 활용한 설문조사와 사업담당자 및 교사, 마을활동가 대상의 집담회 결과를 종합하여 김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양적, 질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김해 행복교육지구의 발전 전략 및 경남 행복교육지구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1. 김해 행복교육지구의 발전 전략

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참여 유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대상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설명회나 다양한 방식의 홍보 활동을 통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설문결과에 따르면, 김해가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된 것을 모른다고 응답한 교사가 33.6%, 학부모가 57.4%인 것으로 나타났고,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도 교사는 5점 척도의 평균 3.26, 학부모는 2.87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현재 3년 차에 접어든 것에 비하면, 교사나 학부모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인지 정도는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도 ‘행복교육지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더 나아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설명회나

토론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교사나 학부모가 경험이 없는 교사나 학부모보다 사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사업 지속 및 확대에 대한 기대가 더 높고, 사업에 대한 성과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관여가 사업에 대한 이해나 기대, 성과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사나 학부모,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행복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및 인식 공유를 위한 간담회나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종합보고회나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사업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교사, 학부모, 지역민의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나.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 구축 및 효율적 지원

행복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여 학교교육 정상화를 돕고 학교 밖 지역 사회에도 교육협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에 의존해 일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일회성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이 자체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협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강민정 외, 2018. P. 272).

김해 지역은 젊은 세대가 많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가야문화 관련 유적이거나 유물 등 문화유산이 풍부하다. 또한 동네마다 작은도서관이 잘 구축되어 있고 현재 대략 200명 정도의 마을교사 인력풀을 갖추고 있는 등 물적·인적 자원이 풍부한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목표 영역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학교수업과 지역사회 연계’를 교사와 학부모들은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 영역을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담당자나 교사들은 지역사회가 현재 학생들의 배움터로써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마을교사 지원 측면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김해지구의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산재해 있는 교육적 자원, 특히 학부모나 재능기부자 등을 잘 조직화하여 학생들의 교육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 학교와 마을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제고 및 연수 강화

학교와 지역사회라는 서로 다른 성격과 특성을 가진 참여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간에는 여전히 벽이 존재하여 지역사회는 학교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고 말하고 학교는 지역사회의 인프라 수준이 학교로 들어오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혁신교육지구 정책에서 학교가 참여 주체가 되지 않으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교와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간적 의미에서만 학교 밖 마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한되거나, 극단적으로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학교에 새로운 부담만 지우는 사업이 될 것이다(이윤미 외, 2015).

본 연구의 설문조사나 집담회 결과에 따르면, 행복학교 교사보다는 일반학교 교사들이, 초등학교 교사보다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초기보다는 일반학교에서의 마을교사 활용이 많아지고는 있으나 마을교사 협력 수업은 여전히 관심을 가진 일부 교사의 개인적 역량이나 행복학교 위주로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학교 교사들은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마을교사 수업 활용 시의 귀찮음, 행정업무 가중의 두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마을자원 이용을 선 듯 신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장 및 교사들의 행복교육지구 사업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수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이해 및 행복교육지구 정책의 목적을 공유한다면, 교사는 학교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마을자원을 보다 교육적이고 알맞은 형태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적 참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윤미 외, 2015).

또한 단위학교에서 마을자원을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처리나 행정업무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학교수업과 지역사회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

학부모들은 학부모인 동시에 지역사회의 주민이다. 따라서 이들이 학교에 대해 갖는 인식은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학부모를 매개로 하여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백병부 외, 2016).

본 집담회에 참석한 사업담당자나 행복학교 교사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학부모 및 지역민의 교육활동 참여 기회가 일부 마련되었다는 것을 사업의 성과로 보고하였다. 특히 행복학교 교사들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이나 연수를 지원하고, 이러한 학교참여 활동이나 연수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다시 학교에 재능기부자로 그리고 지역사회의 마을교사로 활동함으로써 교육기부나 나눔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부모 중심의 학교운영 및 지역사회 참여는 일부 행복학교에 해당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부모들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성과 중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확충’ 영역을 가장 낮게 인식하였고, 교사들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우선적인 해결과제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지역자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지역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학부모들의 학교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활동 자원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 행복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및 학교 간 행복교육지구 성과 공유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현재 ‘학교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행복교육 기반 조성 및 일반화’와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행복교육 기반 조성 및 일반화를 위해서는 행복교육지구 내 행복교육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학교 간의 교육과정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성과로 ‘학교 간 교류 활성화’를 낮게 인식하였으며, 집담회에 참석한 교사들도 행복학교와 일반학교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학교 간의 소통 및 협력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이는 행복학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배움중심의 수업혁신이나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노력이 일반학교까지 확산되기에는 현재 학교 간의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학교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행복학교와 일반학교 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 학교 간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경남 행복교육지구의 발전 방안

가. 평가 및 환류 체계를 통한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도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추진 계획」에 ‘평가 및 환류’ 계획을 포함하여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환류할 필요가 있다. 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 및 환류는 사업의 질 관리뿐만 아니라 행복교육지구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재 경남의 경우 행복교육지구가 8개로 확대되었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아직까지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나 서울의 경우 사업의 내실있는 질 관리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 계획에 평가 및 환류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환류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혁신교육지구의 질적인 성장과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공통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연차별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도교육청 차원의 행복교육지구 운영 종합평가 계획이나 지구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 및 종합평가를 기초로 한 내부 환류 체계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구별로는 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환류를 통해 행복교육지구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발전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경남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다양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내실 있는 성과 관리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행복교육지구 정책의 철학 공유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전국에서 추진 중인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형태와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교육 마인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도 있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역도 있다. 또한 지자체도 광역지자체가 나서서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기초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곳도 있다(최창의 외, 2016).

경남의 경우는 도교육청이 개별 기초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한 다음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지구별 사업 추진 양상을 살펴보면,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도교육청이 중심이 되고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인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교육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인력 파견이라는 소극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사들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구축’을 들었다. 또한 집담회에 참석한 사업담당자들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거버넌스 차원의 접근을 통해 지방자치기관과 교육자치 기관의 동등한 관점에서의 연계·협력과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역주민 간의 상호협력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함께 교육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박성호, 2017).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교육거버넌스 결합이라 할 때, 최근 경남도청과 도교육청이 교육자치 강화와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통합교육추진단’을 출범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며, 도지사, 시장, 지자체 공무원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장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교육지구 철학과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복교육지구 정책의 취지와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의 자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을 통해 사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의 상호신뢰가 형성될 때, 비로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대책 마련

혁신교육지구는 “교육혁신과 지역발전”이라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혁신교육지구의 정책 목표는 궁극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교육지구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사업 성과가 아니라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강민정 외, 2018. PP. 311-312).

결국 행복교육지구 정책의 지속성 및 지역사회에서의 자생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행복교육지구 정책의 철학 공유 및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 속에서 지역사회와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실제적인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으로 귀결된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지원과 행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끊임없는 시행착오 및 경험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에 달려 있다. 또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어진 예산에 따른 인력의 편성 및 지원, 획일적인 내용의 사업 추진보다는 그 지역의 요구에 실질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화(localization)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권효숙 외, 2015; 양병찬 외, 2019). 이를 기반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이 우리 지역의 관심사나 문제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상의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특히 행복학교 및 행복교육지구 정책은 선출직 수장에 의해 정책 방향이 좌우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전국 혁신교육지구 운영 현황 분석에 따르면, 서울은 교육청과 시청이 각각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혁신교육지구 조례뿐만 아니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최근 혁신교육지구의 방향 및 내용이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쪽으로 변화하면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역도 많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사업에 대한 지속성 및 안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민정(2015).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의 성과와 과제. *교육비평*(36), 210-232.
- 강민정, 안성영, 박동국(2018). 혁신교육지구란 무엇인가? 서울: 맘에드림.
- 경기도교육청(2018.10.). 2018년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가 계획.
- 경상남도고성군·고성교육지원청(2019). 고통이 로컬 에듀 고성 행복교육지구 운영 계획.
- 경상남도교육청(2016). 2017. 행복교육지구 기본 계획.
- 경상남도교육청(2017). 2018. 행복교육지구 추진 계획.
- 경상남도교육청(2018). 2019. 행복교육지구 추진 계획.
- 경상남도교육청(2018.9.). 2019. 행복교육지구 추진 계획.
- 경상남도교육청(2019). 2019. 행복교육지구 관계자 워크숍 자료집.
-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2017). 2017. 김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계획.
-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2018). 2018. 김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계획.
-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2019.2.). 2019. 김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계획.
-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남해군(2019.3.). 2019. 보물섬형 행복교육지구 운영 계획.
-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2019.3.). 2019. 밀양 행복교육지구 운영 계획.
- 경상남도사천시·사천교육지원청(2019.3.). 2019. 사천 행복교육지구 운영 계획.
- 경상남도양산시·양산교육지원청(2019.1.). 2019. 양산 행복교육지구 운영 계획.
- 경상남도진주시청·진주교육지원청(2019.3.). 2019. 진주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 계획.
- 경상남도하동군·하동교육지원청(2019.3.). 2019. 별천지 하동 행복교육지구 운영 계획.
- 권효숙, 오희환, 송성영, 김광남, 김혜인.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사업 발전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혁신교육지구 정책 이슈와 대안을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 김민(2019). 교육이 희망이 되는 세상을 위해: '앓과 삶'. *행복한 교육*. Vol. 438, 6-7.
- 김용련, 김성천, 노시구, 홍섭근, 이승호, 윤지훈(2014).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사업 발전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 박성호(2017).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적 관계 모색.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병부(2016). 혁신교육지구 시군II 평가: 1차년도 공통지표. 경기도교육연구원.
- 백병부, 김용련, 원덕재, 채현우(2014).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평가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 서용선(2018). 혁신학교-혁신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의 교육거버넌스: 시공간과 주체의 변화.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7-51.
- 서울특별시교육청(2018.9.). 2018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 기본 계획.
- 성열관, 이형빈(2013). 구로·금천 혁신교육지구사업 성과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 구로구청·금천구청.
- 양병찬(2018). 교육혁신을 위한 교육복지체계의 재구축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9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17-39.
- 양병찬, 김용련, 이진철, 조윤정, 전광수, 이유진, 정혜미(2019). 혁신교육지구 사례 분석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부.
- 이윤미, 백병부, 김세희, 송미숙, 이혜진(2015). 2015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이혜숙, 이영주(2016).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서울연구원.
- 최창의, 서용선, 김혁동, 홍섭근, 김용련(2016). 혁신교육지구사업 비교분석을 통한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발전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1. 다음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나 동네(마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1. 학교(수업) 및 학교생활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①	②	③	④	⑤
2	①	②	③	④	⑤
3	①	②	③	④	⑤
4	①	②	③	④	⑤
5	①	②	③	④	⑤
6	①	②	③	④	⑤
7	①	②	③	④	⑤
8	①	②	③	④	⑤
9	①	②	③	④	⑤
10	①	②	③	④	⑤
11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및 동네(마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①	②	③	④	⑤
2	①	②	③	④	⑤
3	①	②	③	④	⑤
4	①	②	③	④	⑤
5	①	②	③	④	⑤
6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및 동네(마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 각 질문을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이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에 √표 해 주십시오.

※ 학생역량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①	②	③	④	⑤
2	①	②	③	④	⑤
3	①	②	③	④	⑤
4	①	②	③	④	⑤
5	①	②	③	④	⑤
6	①	②	③	④	⑤
7	①	②	③	④	⑤
8	①	②	③	④	⑤
9	①	②	③	④	⑤
10	①	②	③	④	⑤
11	①	②	③	④	⑤
12	①	②	③	④	⑤

※ 스크리닝 문항

1. 여러분은 우리 지역(김해)에 마을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___① 예 ___② 아니오 (☞ 설문 종결)

2. 여러분은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학교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아래

<예시> 참고)

<예시>

▶ 학생중심(학생자치형) 마을학교

- ① 나비·날다 프로젝트: 음악, 목공예, 3D프린트, 드론, 코딩, 요리, 청소년 마을기자단, 청소년의회 등
- ② 꿈키움 마을학교(내동초, 경운초, 내동중, 경운중): 학생주도적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③ 김해·장유행복마을학교: 청소년 자치배움터, 북카페, 진로체험교실 등

▶ 지역중심 마을학교

- ① 마을놀이학교: 전래놀이, 퓨전놀이 등
- ② 진로체험 마을학교: 뮤지컬, 영상, 목공, 바리스타, 오케스트라 등
- ③ 작은도서관 연계 마을학교(내외 작은도서관 외 2개소): 독서, 인문학 강좌, 북아트 등

___① 예 ___② 아니오 (☞ 설문 종결)

III. 다음은 여러분이 참여한 마을학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에 ✓표 해 주십시오.

※ 마을학교 만족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마을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체험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마을학교에서 체험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마을학교 선생님에게서 내가 원했던 도움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4	마을학교에서의 경험은 나의 꿈(진로)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기회가 된다면, 마을학교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평소 마을학교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2] 교사용 설문지

김해 행복교육지구 설문조사(교사용)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김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성과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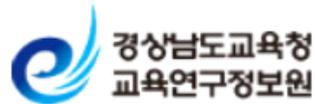
이 설문조사는 김해 행복교육지구 지원 사업의 성과를 진단해봄으로써, 향후 김해 행복교육지구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성실한 응답이 향후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 협조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9. 8.



※ 다음은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학교급	__① 초등학교	__② 중학교	__③ 고등학교
행복학교 여부	__① 행복나눔학교 __③ 행복맞이학교	__② 행복학교 __④ 일반학교	
학교가 위치한 행정구역	__① 진영읍 __④ 한림면 __⑦ 대동면 __⑩ 부원동 __⑬ 칠산서부동 __⑯ 불암동	__② 주촌면 __⑤ 생림면 __⑧ 동상동 __⑪ 내외동 __⑭ 활천동 __⑰ 장유동	__③ 진례면 __⑥ 상동면 __⑨ 회현동 __⑫ 북부동 __⑮ 삼안동
성별	__① 남자	__② 여자	
교직 경력	__① 5년 미만 __④ 15~20년 미만 __⑦ 30년 이상	__② 5~10년 미만 __⑤ 20년~25년 미만	__③ 10년~15년 미만 __⑥ 25년~30년 미만
현 근무지 재직기간	__① 1년 미만 __④ 3~4년 미만	__② 1~2년 미만 __⑤ 4년 이상	__③ 2~3년 미만
직위	__① 관리자(교장·교감)	__② 수석교사	__③ 부장교사 __④ 교사
행복교육지구 인지 여부	선생님께서 김해가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__① 예 __② 아니오		
행복교육지구 사업 대상학교 여부	선생님께서 현재 재직 중인 학교가 김해행복교육지구 사업 대상학교인지 알고 있습니까? __① 예(알고 있다) __② 아니오(모르고 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참여 경험 여부	선생님께서 김해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설명회(예: 토론회, 간담회, 연수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__① 예 __② 아니오		

I. 다음은 선생님이 재직 중인 학교 및 학교가 위치한 지역(마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 학교(수업) 및 학교문화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학교의 수업분위기는 활기차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학교는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학교는 학생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학교는 학생 자치활동(학생이 주도적으로 하는 활동)이 잘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학교는 학생 생활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학교는 동아리활동이 활발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학교는 수업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동료교사들과 공유하며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학교는 학생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료교사들과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학교는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학교에 근무하면서 보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학교는 내가 교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사회(마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학교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교육활동을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학교는 학부모나 지역민(마을교사)이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교육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학교가 위치한 지역에는 교육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학교가 위치한 지역에는 학교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학교가 위치한 지역에는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사회(마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우리학교가 위치한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9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업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지역에는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지역만의 특색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선생님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읽고 선생님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기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우리학교가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지역(김해)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사업의 성과 인식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다양화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교직원 간의 소통문화가 개선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학교 간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5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학생들의 역량(예: 자기 주도성, 공동체 역량 등)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김해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지원 방향 및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읽고 선생님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수행하는 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3순위	<input type="text"/>
-----	----------------------	-----	----------------------	-----	----------------------

- 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협력 구축
- ② 행복교육지구 정책의 철학과 방향 공유
- ③ 행복교육지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 ④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 및 협력 강화
- ⑤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지역자원 인프라 구축
- ⑥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체계적 업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⑦ 학교 밖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다양한 마을학교 운영)
- ⑧ 지역주민의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
- ⑨ 지역 특색사업 운영 및 지역교육 브랜드 구축
- ⑩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교육력 제고
- ⑪ 기타()

2. 마지막으로, 김해행복교육지구 사업의 개선점이나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3]_학부모용 설문지

김해 행복교육지구 설문조사(학부모용)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김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성과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김해 행복교육지구 지원 사업의 성과를 진단해봄으로써, 향후 김해 행복교육지구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학부모님의 성실한 응답이 향후 김해 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 협조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9. 8.



※ 다음은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자녀의 학교급	__① 초등학교 __② 중학교 __③ 고등학교
행복학교 여부	__① 행복나눔학교(김해봉황초, 봉명중 해당) __② 행복학교(구봉초, 안명초, 김해 분성여고 해당) __③ 행복맞이학교(김해동광초, 김해활천초, 봉명초, 내동중, 율하중, 한림중, 김해삼문고 해당) __④ 일반학교
자녀의 학교가 위치한 행정구역	__① 진영읍 __② 주촌면 __③ 진례면 __④ 한림면 __⑤ 생림면 __⑥ 상동면 __⑦ 대동면 __⑧ 동상동 __⑨ 회현동 __⑩ 부원동 __⑪ 내외동 __⑫ 북부동 __⑬ 칠산서부동 __⑭ 활천동 __⑮ 삼안동 __⑯ 불암동 __⑰ 장유동
성별	__① 남자 __② 여자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거주한 총 기간	__① 1년 미만 __② 1~3년 미만 __③ 3년~5년 미만 __④ 5~10년 미만 __⑤ 10년 이상
행복교육지구 인지 여부	부모님께서 김해가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__① 예 __② 아니오
행복교육지구 사업 대상학교 여부	부모님께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김해행복교육지구 사업 대상학교인지 알고 있습니까? __① 예(알고 있다) __② 아니오(모르고 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참여 경험 여부	부모님께서 김해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설명회(토론회, 간담회, 연수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__① 예 __② 아니오

I. 다음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 및 학교가 위치한 지역(마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 학교 및 지역사회(마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학교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교육 활동을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학교는 학부모나 지역민(마을교사)이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교육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학교가 위치한 지역에는 교육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학교가 위치한 지역에는 학교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학교가 위치한 지역에는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지역의 마을학교에서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색교육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지역만의 특색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지역(마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지역(마을)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및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읽고 학부모님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기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자녀가 소속된 학교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지역(김해)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IV. 마지막으로, 김해행복교육지구 사업의 개선점이나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9년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자체연구보고서

발행일 | 2019년 12월 27일 인쇄
2019년 12월 27일 발행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원 장 이 영 주
기획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소 장 차 재 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최 화 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이 화 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이 상 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행정주사 박 은 희

연구자문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책임연구원 한 미 영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책임연구원 정 연 흥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책임연구원 구 경 호

연구지원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주 무 관 곽 동 욱

발행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51141)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로 111번길 20
누리집 : <http://gerii.gne.go.kr/>
전화 : (055)269-0777
전송 : (055)269-0789

인쇄 | 주식회사 마크(Tel. 055-263-4001)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 <http://ebook-lib.gne.go.kr/>에 탑재되어 있습니다.